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2 호 12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6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12호 (133)

1956년12월 25일

내 용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

국제 제국주의 반동 세력들의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도발적 음모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미제의 충실한 주구인 리 승만 역도들의 발광적 『북진』소동이 『고열화』되는 복잡하고 첨예한 환경 속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는 전체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열성 속에서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一一월 二〇일에 실시된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九九•九九%가 참가하였고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九九•七三%가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으며 一一월 二七일에 진행된 도、시、군(구역)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九九•九九%가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중 九九•八九%가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 인민적 지지와 신뢰의 표시였으며 이미 공고화된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 단결의 위력에 대한 강력한 시위였다。 전체 인민들은 선거 사업의 전 기간을 통하여 인민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성을 가일층 제고하며 증산 경쟁의 불길을 더욱 높임으로써 인민 정권에 대한 사랑과 신임을 력력히 표시하였다。

선거의 승리는 특히 오늘 세계 도처에서 도발적 파괴 행동을 감행하며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분렬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국제 반동들과 그들의 발악적 장단에 맞추워 또 다시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 하며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려고 발광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되였다。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서 우리 인민이 거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은 기본 요인은 인민에 대한 복무、 인민의 복리와 행복에 대한 배려를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과 정부가 시종 일관하게 실시하여 온 그 모든 인민적 시책과 거대한 업적、 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 우에서 형성 공고화된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의 위력이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직접 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창건된 인민 정권은 언제나 인민들의 의사를 심각히 표현하였고 현명하고 예견성 있는 지도자로、대중의 꾸준한 조직자로 행동하였으며 그의 무궁 무진한 생활력으로 하여 인민 대중의 념원을 매개 력사적 시기마다에서 훌륭히 실현 보장하였다。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옳은 인민적 시책과 능숙한 지도로 말미암아 인민 정권은 인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인민은 인민 정권의 주위에 부단히 집결되였고 단결되였다。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각계 각층 인민들의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는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혁명의 원쑤들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민 정권은 조선 인민의 생활과 순시도 떼여 낼 수 없는 생명이며 조선 인민의 새 력사 창조의 무기이다。

조선 인민의 지나 온 력사적 경험은 오직 인민 정권만이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정권이며 오직 이 정권만이 외래 제국주의자들과 인민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으로부터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보장하여 주며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였다。

해방후 인민들 자신에 의하여 수립된 인민 정권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제반 사회 경제적 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반부 근로자들을 반봉건적 및 식민지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영원히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 주었으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당과 인민 정권의 덕택으로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우리 인민은 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확고히 가지게 되였으며 그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게 되였는 바 이 통일 단결은 전쟁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실시된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거대한 위력을 발휘하였다。당과 인민 정권의 정확한 정책과 그 주위에 통일 단결된 인민들의 불패의 위력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케 하였으며 해방후 불과 三년 동안에 식량이 부족하던 북반부를 식량에 여유 있는 지대로 전변시켰으며 一九四六——一九四七년 간에 산업 생산량을 四배 이상으로 장성시켰다。그리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북반부에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자주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경제、문화적 기초를 축성하여 놓았다。

인민 정권의 생활력은 준엄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더욱 발현되였다。우리 당의 지도하에 인민 정권은 우리 인민을 전쟁 승리에로 옳게 조직 동원하였으며 준엄한 전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반 인민적 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인민들을 무한히 고무하였다。적들의 파렴치한 시도가 악랄하면 할수록 인민들은 인민 정권의 주위에 더욱 단결되였으며 인민 정권은 인민을 전쟁 승리에로 힘차게 고무하였다。그리하여 전쟁 기간에 인민 정권과 인민과의 련계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자기의 주권을 옹호 고수하려는 인민들의 결의와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자기 자신의 손으로 수립된 인민 정권하에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행복을 체험한 인민들의 단결된 력량은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헌신성、대중적 영웅주의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마침내 원쑤들은 단결된 우리 인민의 력량 앞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달성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 승리는 우리 당과 인민 정권의 령도하에 나라의 주인으로 된 자각한 인민의 통일 단결의 힘은 불패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그 어떠한 악랄한 방법과 수단을 다하더라도 자각한 인민의 통일 단결된 힘은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쟁의 가혹한 시련을 통하여 가일층 공고화된 당과 정부와 인민의 통일 단결된 힘은 오늘 더욱 더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당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서 자기들의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미래를 내다 보고 있는 우리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키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고 있다。이리하여 전후 불과 三년 여에 우리는 이미 수백개소의 대 중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 신설하였으며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총량적으로 완수하고 지금 그의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면서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거보를 내디디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철저한 준비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바치고 있다。

농촌 경리 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협동화 운동의 빛나는 성과와 아울러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一〇월 말 현재로 전체 농호의 七九%가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으며 五만 三천톤의 알곡을 증수할 수 있는 평남 관개 一、二 계단 공사의 완공을 비롯하여 대규모적인 관개 공사들과 하천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됨으로써 二만 三천 정보의 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시켰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 당과 정부는 전후 기간에만 하여도 五차에 걸쳐 물가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임금을 평균 三五% 이상 인상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이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당과 정부와 인민이 한 몸으로 단결하여 오로지 혁명 승리를 위하여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결과이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은 우리의 모든 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원천이며 힘이다。

우리 인민의 정치—정신적 통일의 구현으로서의 당과 정부와 인민의 통일 단결은 오늘 부단히 확대 강화되여 가고 있으며 더욱 더 심화되여 가고 있다。 로농 동맹에 기초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와 지향에 의하여 더욱 더 강화되여 가는 우리 인민의 강력한 통일 단결은 어떠한 힘으로써도 정복할 수 없다。 이러한 힘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는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발악적 책동을 능히 분쇄할 수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동족 상쟁의 내란을 또 다시 도발하려고 더욱 요란스럽게 『북진』소동을 떠벌려 오던 리 승만은 최근 미제와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 조약인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공공연하게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팔아 먹고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연시키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을 조성하여 놓았다。 이 『조약』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로 하여금 더욱 로골적으로 남조선 인민들의 재부를 마음대로 착취 략탈할 수 있는 무제한한 특권을 주었으며 얼마되지 않는 남조선의 민족 자본과 중 소 상공업의 더욱 급속한 완전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 조약의 매국적 본질과 침략적 본질은 이처럼 철면피하다。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이 조약과 같은 민족적 모욕으로 되는 수치스러운 매국 조약은 五〇여 년 전에 리 완용 도당이 우리 조국을 팔아 먹기 위하여 일제와 체결한 『을사 조약』이 있을 뿐이다。 이 매국적 『을사 조약』이 초래한 참담한 후과는 三六년 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노예의 설음 뿐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은 매국적인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의 매국적 본질과 침략적 성격을 엄폐하기 위하여 『공평한 대우』이니 체약 쌍방의 호상 『내국민 대우』와 『최혜 국민 대우』이니 라고 떠벌리고 있으나 이 『조약』의 본질을 결코 조선 인민 앞에서 숨길 수는 없다。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이러한 정세는 천인 공노할 매국 조약인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배격하고 이 『조약』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가일층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망국노의 설음을 원하지 않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는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조선 사람들은 그의 사회적 처지와 정견、신앙의 여하를 막론하고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 정책과 리 승만의 매국적 행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의 매국 행동을 좌절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그들을 대치하여 전체 애국적 민족적 량심을 가진 력량이 단결하여 공동 투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정견상 및 신앙상의 차이의 문제가 리 승만의 매국적 행위를 분쇄하는 전 민족적 과업을 앞두고 장애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애국적인 인사들과 인민들은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행동상 통일을 취하여야 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워진 재부를 미국 침략자들이 마음대로 략탈하여 우리 선조들의 유골이 묻혀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강토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미국 침략자들의 조향을 분쇄하고 우리 조국을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적 영예를 반드시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리 승만의 매국 조약을 반대하는 확고한 립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들을 그 매국 조약을 배격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고 있다。 지난 一二월 四일 공화국 정부는 전체 인민들의 의사와 지향을 표명하면서 그 『조약』의 침략적、매국적 본질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공화국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치욕적 매국 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여 나서고 있다。 전체 인민들은 한결같이 조국 분렬의 비운을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여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조성된 정세하에서 우리는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며 우리의 사회 국가 제도를 가일층 강화하여야 하며 조국 전선을 더욱 더 강화하며 당과 정부와 인민의 통일 단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금번 실시된 지방 주권 기관 대의원 선거의 승리적 종결은 의심할 바 없이 인민 정권 기관을 가일층 강화함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되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의 가일층의 강화와 당과 정부와 인민의 통일을 더욱 더 강화함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선거의 결과 지방 주권 기관들에는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일꾼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우수한 대표들이 선출됨으로써 인민들과 인민 정권의 련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인민 정권내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양、인민 정권의 혁명적 기능의 가일층의 제고가 보장될 것이며 종전에 일부 정권 기관내에 있던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이 근절될 것이며 이리하여 인민 정권은 더욱 더 인민 대중과의 통일 단결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인민들을 통일 단결시킴에 있어서 결정적 고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이다。 우리는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훼손시키려는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용허하지 말고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대중과의 통일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으며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가정속에 튼튼히 결속되여 자기 력사 발전의 길을 확신 있게 전진하는 조선 인민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매국적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반대하여

三천만 조선 인민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온갖 곤난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식민주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총 붕괴의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二〇세기의 제국주의 원흉인 미제와 조선 인민의 악독한 원쑤이며 만고의 역적 리승만은 조선 민족을 더 한층 분렬시키며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법적으로 정식화한 새로운 매국 조약인 소위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이 매국 배족적 새로운 책동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남반부 동포 형제들은 미국의 식민지 노예로 더욱 전락되는 가장 위급한 난국에 직면하게 되였고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 인민 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조성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민족적 격분을 가지고 매국 배족적인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배격 규탄하고 있으며 노비 문건으로 되는 그것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여 궐기하고 있다。

이미 그의 침략—매국적 성격이 만천하에 들어난 소위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은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영원히 식민지화하고 그를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는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인 리 승만 도당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여 왔다。

특히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조선 전쟁이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나고 그들이 기도한 북반부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 달성되지 못하게 되자 우리 조국 남반부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각 방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식민지 노예화할 새로운 음모를 꾸며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흉모는 몇개의 계단을 걸쳐 강행되였다。

미제는 우선 조선에서의 정전으로 인하여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자 정전협정을 란포하게 유린하고 一九五三년 一〇월 一일에는 악명 높은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의 영구 주둔화와 군사적 예속화를 목적한 음모 조작이였다。

이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에 의하여 미국 군대의 남조선 주둔은 지역적 제한도、인원상 제한도、시간상 제한도 없이 무조건、 무한정、 무제한 주둔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군의 남조선 영구 주둔은 합법화되였으며 남조선 전 지역은 미군의 련병장으로 화하였다。

이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기본 립장을、 즉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기본 정책을 표명한 것이다。

미제는 자기들의 군대를 남조선에 영구 주둔시켜 남조선을 무력적으로 계속 강점하게 하고 그의 비호 밑에 그후 단계로는 미국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입을 위하여 각종 책동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경제적 침략과 략탈을 허울 좋은 『원조』의 명목으로 추구하였다。

미제의 이 『원조』는 자기들의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군사비의 성격을 가졌으며 그는 또한 이 『원조』를 통하여 자기들의 잉여 물자를 조선 시장에 판매하여 리윤을 획득하며 그들의 군사적 식민지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방법으로 리용되였다。

미제는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조작하고 남조선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원조』 물자의 도입 및 사용에 대한 전 권한을 그에게 부여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에 의하여 딸라와 남조선 화폐 교환률을 획정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재정과 금융을 예속화하며 그의 체계를 완전히 지배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남조선 시장 물가를 조종하여 식민지적 가격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남조선 시장을 독점하였다。

이 소위 『원조』의 대가가 얼마나 고가한 것인가는 一九五四년 七월에 진행된 『한 미 회담』과 동년 一一월에 조인된 『한 미 의사록』이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이 소위 『한 미 의사록』에서 미제는 『원조』의 대가로 유엔을 통하여 미국의 협조 아래서 조선의 통일을 달성하며 괴뢰군의 직접 지휘권을 미군 사령부에 넘겨 주며 미국 독점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할 것 등 六개의

의무를 리승만 도당이 리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리 승만은 이러한 상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一九五四년 말에는 드디여 경제 조항 개헌을 강행하고 다음에는 외국인 영업법안을 제정하고 계속하여 외자 도입법을 준비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침입을 허여하였으며 그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간에 체결한 일련의 『조약』과 협정들에 의하여 오늘까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남조선 경제를 『합법적』으로 략취하여 온 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욱 전면적인 침략과 략탈을 자행할 수 있는 새 계단으로서 금번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미제가 종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은폐된 형태로、즉 한 때에는 『유엔 위원단』의 간판 뒤에 숨어서、혹은 『유엔군』의 기치를 들고、혹은 소위 『전전 복구』와 『원조』 등등의 각종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침략과 략탈을 진행하였다면 오늘에 와서는 이러 저러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로골적으로 후안 무치한 략탈자로서 등장한 리유는 무엇으로서 설명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날로 장성 강화되여 가는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의 가일층의 장성과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격화、아세아 및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전쟁 도발 정책의 패배、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 밑에 남북의 애국적 민주 력량의 평화 통일에 대한 투쟁 력량의 장성 리 승만 『정권』의 정치—경제적 파국 등과 련관되여 있다。이러한 국제 국내 정세는 미제로 하여금 이제는 더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을 수 없게 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그의 주구 리 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한 줌도 못되는 친미 매판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거할 수가 없게 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더욱 발악적으로、로골적으로 공공연한 침략과 략탈의 길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러면 금번 미제와 리 승만 도당간에 체결된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의 기본 목적과 그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

소위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 넘기고 조선 인민을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자는 데 그들의 기본 목적이 놓여 있다。

이 기본 목적은 『조약』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된다。

즉 미국 독점 자본가는 남조선에서 『모든 종류의 상업 및 공업、금융업 및 기타 영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하여 『지점』、『대리점』、『사무소』、『공장』 기타 그의 사업 수행상 적당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를 조직』하고 『자기가 설립』한 또는 취득한 기업을 지배하고 경영하며 투자 대상 기업체 자본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여 있다。

이는 사실상 미제 독점 자본이 남조선의 모든 경제 명맥을 틀어 쥐고 좌우하며 자본의 과반수、즉 거의 전부를 침략자들의 기관에서 장악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거기에는 미국 독점 자본가의 활동을 위하여 『토지』、『건물』、『기타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유』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이 규정되여 있으며 남조선 당국이 이와 같은 미국인들과 그들의 특권과 재산과 모든 기관들을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규정되여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과 미국의 착취 략탈 기관들과 시설들에 대하여는 치외 법권적 특권이 허여되여 있다。

또한 거기에는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남조선에서 범죄적 행위를 강행하여도 남조선 당국은 그들을 처리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서 자유로 세금과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도 없으며 지어는 그들의 정보 활동도 통제할 수도 없게 규정되여 있다。

이 『조약』은 이외에도 미국인들과 그의 기업체들에게는 그들이 남조선 인민들과 경제를 마음대로 착취 략탈하여 갈 수 있으며 미국인들의 이러한 특권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규정되여 있다。

『한 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은 이처럼 철저히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성격을 가진 일방적인 『조약』인 것이다。

미제가 각종 가면을 쓰고 들어와 있을 때에도 미국의 一三〇여 개의 상사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조선에서 략탈적 영업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미제는 『한국 부흥 위원단』을 통하여 남조선의 철도、전기、체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경제를 자기 손에 장악하고、서울、대구、부산、전주、광주、대전 등 중요 도시와 각 작전 지구에 설치한 『유엔 민사처』를 통하여 산업、금융、식량、문화、교육 부문으로부터 피난민의 식사、주민들의 승차권의 발매 허가、려행증、지어는 서울 시내의 장작 반입 허가증의 발급까지 담당하여 나섰거늘 금번 체결될 로골적인 략탈 『조약』이 실현된다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무엇이 차려지리라는 것은 극히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음흉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이 『조약』이 마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적인 것처럼 가식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음폐하기 위하여 서문에 『상호간 유리한』 통상 관계를 조장하며 이를 위하여 『최혜 국민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고 쓰고 있다.

이 미국 전쟁 상인들의 간교한 목소리는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한다.

거부를 이루고 있는 미국 독점가들과 빈약한 남조선 민족 자본가간에 『평등』이 있다고는 누구도 믿을 사람은 없으며 남조선에서조차 대양을 건너 온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 의하여 나날이 파산과 령락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는 빈약한 남조선 자본이 미국 자본과 경쟁을 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문구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원조』의 가면 밑에서 남조선 경제를 략탈하여 오던 미국 독점 자본이 직접 남조선에 침투하여 남조선 경제를 전면적으로, 직접적으로 틀어 쥐고 미국 간판을 공개적으로 표면에 내걸고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략탈하며 정치적으로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려는 로골적인 침략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술책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그의 침략적 성격에 있어서나, 매국적 본질에 있어서나 리조 말기에 매국노들이 조선을 일제에게 팔아 먹은 『조 일 수호 조약』을 릉가하는 저주롭고 치욕적인 매국 배족적 문건으로 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 비로소 조선을 송두리채 삼키려고 기도한 것은 물론 아니였다.

우리 조선 인민은 미제의 조선에 대한 죄악에 찬 침략적 배신적 력사를 잘 기억하고 있다.

미제는 벌써 지난 세기 중엽 一八五一년에 동래 룡당포를 침략하였고 一八六六년 六월과 一八七一년 四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강도적 방법으로 우리 나라의 내해 깊이 침입하여 략탈과 만행을 감행하다가 영웅적인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였었다. 그후 미제는 一八八二년 五월에 일제에 뒤이어 소위 『조 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요하고 조선의 자연 부원을 략탈하였으며 조선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또한 미제는 소위 『조 미 수호 통상 조약』에 의하여 제三국이 체약 량국중 어느 한 나라가 침공 당하였을 때 이를 방조할 의무를 진다는 약속을 헌 신짝같이 버리고 오히려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적극 지지 방조한 배신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후에도 미제는 조선의 신탁 통치와 후견제를 제의하였으며 다음에는 단일한 조선을 분렬시키고 남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단독적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무력 침략의 『북진』 전쟁까지 도발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세기에 걸친 미제의 조선에 대한 죄악에 찬 침략 기도는 조선 인민의 저주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또 다시 리 승만 역적과 꾸미고 있는 흉책을 조선 인민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오늘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획책하는 이 흉모가 어떠한 후과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매국적 『조약』이 무엇보다도 우선 조선 인민이 한결같이 념원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 달성에 거대한 장해물로 된다는 그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달성은 무엇보다도 남북조선에서 외국 군대가 철거하고 남조선에서 주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한 초보적 전제이다. 그런데 이 배족적 『조약』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 『조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초보적 자유까지 말살하고 반동적 팟쇼 통치 제도를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금융 자본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요구하며 식민지 략탈자들은 보다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민 대중의 초보적 자유마저 말살하여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약』에 의하여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더욱 무제한한 권리가 부여되면 남조선 경제는 더욱 혹독하게 략탈될 것이며 민족 자본가들과 중소 기업가들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몰락 파산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이 『조약』이 남조선 근로 인민들을 二중 三중으로 착취 략탈하여 빈궁과 령락에로 몰아 넣으리라는 것도 명백하다.

미국 독점가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독점적 가격으로 팔고 조선 로동자들의 로력과 농민들의 농산물을 략탈적 가격으로 매점할 수 있게 되면 남조선 근로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이『조약』을 매국 배족적인 것으로 규탄하고 있으며 공화국 정부는 지난 一二월 四일부 성명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 정부간에 체결된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그에 의하여 초래되는 후과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과 미국 정부에 있다』고 성명하면서 망국노의 처지를 원하

지 않으며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귀중히 여기는 전체 조선 인민은 그의 사회적 처지와 정치적 및 종교적 신념의 여하를 막론하고 미제의 로골적인 침략 정책과 리 승만의 매국 소행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라고 호소하였다。

三六년간의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전쟁 三년간에 미제의 야만성과 략탈성을 목도한 전체 조선 인민은 어떠한 형태의 매국적 조치와 조선 분렬 정책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 인민은 우리의 선조들이 외래 침략자들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를 고수한 모범을 따라 한결같이 궐기할 것이다。

제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식민주의자들은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매국 역적들은 인민의 원쑤로 처단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공화국 북반부에 강력한 민주 기지가 있으며 전쟁에서 미제와 리 승만을 타승한 영웅적 인민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조선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는 조선 로동당이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달성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촉진시킴으로써 원쑤들의 흉악한 기도를 분쇄할 것이다。

우리의 체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공화국 정부는 조선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다。

전체 조선 인민은 공화국 정부의 기치 밑에 그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인민 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자유롭고 번영하는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과 평화적 통일 위업을 성취함에 온갖 헌신성을 발휘할 것이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의 력사적 의의

리 나 영

우리 당의 전신당을 창건한 초시기인 一九四五년 一二월에 있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는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 력사에 있어서 빛나는 한 페지를 차지하고 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일제의 괴멸과 조선의 해방、쏘련 군대의 직접적 조선 령토에의 진주는 해방 후 조선에서의 혁명 력량의 발현 및 앙양에 가장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지어 주었으며 쏘련 군대와 함께 일제를 격멸한 김 일성 동지와 그의 항일 유격 부대 혁명 투사들의 빛나는 고국 개선은 국내 혁명 세력의 집결 조직 및 성장에 확고한 중심과 정확한 방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八·一五 조선 해방은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적 전진과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 주었다。 해방과 함께 로동 계급을 선두로 전체 인민들은 고도의 정치적 열성을 가지고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건설을 위한 당면 혁명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혁명은 남조선에 미제 침략 군대의 상륙과 그의 침략 행위로 말미암아 장기성과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게 되였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국내의 반동 세력을 규합 조장하며 조선 인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방해하여 나섰다。

이러한 복잡한 정세하에서 조선 혁명의 성과적 추진과 그의 완수를 위해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일체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 력

량이 튼튼히 결속되여야 하며 위대한 쏘련 군대가 진주한 북조선에서 조국 통일 독립의 강력한 물질적 담보인 민주 기지를 창설하여야 할 것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혁명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당이 있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통일적 당을 가지지 못한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 조선 혁명 앞에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해방 후 조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공산당 창건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남북 조선 각지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혁명적 기세가 앙양된 가운데서 공산당 지방 당 단체들이 우후 죽순처럼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의 주도적 역할하에 지방 인민 정권 기관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공산당 단체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아주 높았다。

그러나 초기에 지방 당 단체들은 아직 로동자、농민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대부분 조직 체계가 서지 않고 분산적으로 조직되여 일부 개인 영웅주의자들의 지방 할거주의적 종파 활동에 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것들은 거의 호상 유기적인 조직적 련계를 가지지 못하고 협소한 종파적 지방주의적 대립 속에 있었으며 그 내부에는 사상상 혼란과 불일치、무규률성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들은 자기들의 지방적 성질을 가진 소소한 일상적 활동에만 만족하고 강력한 통일적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거의 망각하고 있었으며 한편 부분적으로는 당시 서울에서 박 헌영을 비롯한 일부 종파 분자들이 당 조직 원칙을 위반하고 만들어 놓은 종파 집단이였던『서울 중앙』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이것에 유혹되여 이것을 바라 보고 있었다。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정세하에서 해방전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이룩한 당 창건의 조직적、사상적 기초에 의거하면서 통일적인 강력한 당을 창건하며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환경과 조건하에서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방전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국내외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고 이를 핵심으로 하여 종파 분자、지방 할거주의자들과의 원칙적、비타협적 투쟁을 통하여 각 지방 당 단체들의 조직적 분산성과 사상적 불통일을 제거하고 맑스주의의 당 조직 원칙에 의거하여 중앙 집권적인 조직체로 당을 통일시켜야 할 것이였다。 그리고 해방후 조성된 복잡한 정세하에서 이같은 당의 창건과 조선 혁명의 승리적 보장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조선 혁명 추진의 강력한 근거지로서의 북조선

민주 기지 창설과 그를 공고화하기 위한 혁명 과업을 정확히 조직 지도할 수 있는 통일적 당 중앙 조직을 북조선에 시급히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통일적 당 창건을 위하여 一九四五년 一〇월에 북조선 五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련합 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의 주요 과업은 분산적인 각 지방 단체들을 통합하여 북조선에 강력한 통일적 당 중앙 기관을 창설하는 문제와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확립하는 문제이였다。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가『당 조직 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해방후 조선 혁명이 처한 국제 국내 정세를 심오하게 분석하고 해방 직후 발로된 조선 혁명 로선을 외곡하는 각종 좌우경적 편향을 비판하고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을 천명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현 계단에 있어서 조선 혁명은 그의 대내외적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급속히 완수하는 데 있으며、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 혁명 과업을 완수할 수 없으며 전력을 다하여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한 광범한 민주주의 통일 전선을 하루 속히 공고히 함으로써 민족적 완전 독립과 근로 인민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 과업 수행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계단의 혁명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는 곧 혁명의 보다 높은 다음 단계로 넘어 갈 것을 강조하면서 해방후 조선 혁명이 인민 민주주의 혁명임을 규정하였다。

당시 김 일성 동지는 혁명의 첫째의 임무를 마치고 우리는 혁명의 둘째 임무 수행에로 곧 들어가야 하며 그 력량을 현 계단에서 준비하여야 하며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력량을 총집결하여 가지고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력량인 로동 계급의 령도적 력량을 공고히 하여 가지고 두번째 혁명 임무 실천에로 들어가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 회의에서 현 계단 조선 혁명의 성격에 립각하여 당의 정치 로선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같은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각 지방 공산당 단체들이 급속히 단결하여 강력한 통일당을 창건하여 로동 계급의 대렬을 통일시키며 광범한 근로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우선 해방후 조선 혁명이 처한 특수한 정세하에서 북조선을 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전변시킴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당 중앙 기관을 북조선에 창설할 것을 대회에 제의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이같은 당 조직 로선은 가장 적절하고 긴급한 조직적 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은 누구에게든지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 헌영의 영향하에 있던 일부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은 뒤에서 은밀히 이를 반대하려고 책동하였다。 당시 이들은 소위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는 간판 뒤에 숨어서 이런 반당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만일 북조선에 당 중앙 기관을 창설한다면 그것은 당을 분렬시키는 것이라고 떠벌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당의 통일을 념원하고 있는 듯이 가장하였다。 그러나 그 실은 당을 四분 五렬시켜 한 지방에서 자기가 『령주』가 되여 독판을 치며 계속 종파 활동을 연장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절대 다수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당원들、그리고 로동 계급을 선두로한 근로 대중들은 김 일성 동지의 당 조직 로선을 적극 지지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종파 분자들은 이번에는 새로 창설될 북조선 당 중앙을 파벌 집단에 불과하였던 소위 『서울 중앙』에 『직속』하고 이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회는 절대 다수 열성 당원들의 지지에 의거하여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당 정치 로선 및 조직 로선을 확인하고 통일적 북조선 중앙 기관으로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대회는 또한 당의 강령、규약 초안을 접수하고 이를 앞으로 열릴 것이 예견되고 있었던 전국 당 대표 대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당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이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상술한 바와 같은 당 창건 행정은 당시 우리 나라의 특수한 정치 정세와 당 창건 투쟁의 특수성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당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창설、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의 수립은 서울과 각 지방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다른 한편 북조선에서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그들은 일치하게 당의 정치、조직 로선을 적극 지지하였고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을 환영하였다。

* * *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당은 비록 창건되였으나 당 내에 조직적 분산성과 사상상 불일치는 계속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강력하고 통일적인 당 건설을 위한 사업에는 아직 막대한 난관들과 복잡성이 가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과거 조선 혁명 운동에서 파벌 투쟁으로 로동 운동을 분렬시켜 조선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이 자기들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에 해방 후 또 다시 우리 당 건설의 옳바른 조직 로선과 조선 혁명 발전의 정확한 정치 로선에서 리탈하여 무원칙한 종파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통일된 당 건설을 저애하고 있는 것이였다。 당시 박 헌영은 『콩크룹』과 종파적으로 결탁한 『화요파』 분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과거 『엠·엘파』에 속하였던 자들은 『엠·엘파』의 변종인 『장안파』와 그후 『대회파』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협소한 종파 투쟁에만 몰두하였다。 이 자들의 안중에는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오직 개인의 『출세』와 『지위』、종파 집단의 리익 밖에 없었으며 소위 『당내 헤게모니야』를 고집하면서 통일되고 단결된 혁명적 당 건설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다。

박 헌영과 기타 종파 분자들은 또한 당의 정치 로선을 혼란、외곡、파탄시키려고 하면서 온갖 좌우경적 편향과 기회주의적 로선을 당 내에 퍼뜨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종파 분자들의 행동은 특히 남조선에서 당 건설 사업에 일대 혼란과 분렬을 일으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조선 당 공작에도 적지 않은 해독적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그것은 둘째로 과거의 조선 공산당이 조직적 력량으로서 계속 존재하여 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당 생활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이 적었으며 당 조직 사업이나 당 사상 사업에 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당 일꾼들이 적은 형편에서 해방 후 당을 건설하기 시작한 데 있었다。

그것은 세째로 과거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 선전이 일제의 야만적 탄압과 혁명적 당의 통일적 지도가 없은 조건 등으로 인하여 미약하였던 데도 있었다。 그리하여 해방후 일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조국의 정치 정세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 및 그의 수행 방도에 대한 정확한 당 정치 로선을 옳게 판단할만한 간부들이 초기에는 많지 못하였다。 또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일부 동지들도 일제 감옥에 오래 동안 투옥되여 있었으므로 국내외 혁명 정세에 밝지 못하였으며 각 지방에서 소규모적인 투쟁을 계속한 일부 동지들도 시야가 협소하고 수공업적인 투쟁에 관습되였고 지방주의적 관념이 농후하여졌던 데서 당 조직 로선과 정치 로선에 대한 파악이 더디였다。

그것은 네째로 조선 로동 계급의 력사가 청소할 뿐만 아니라 조선 로동 계급이 일제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을 장기간 하여 왔으나 대규모적인 혁명 투쟁에서 단련됨이 부족하였고 그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선전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리고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그들의 문화적 수준

이 또한 미약하였다。 이것은 당이 자기의 기본 군중 속에서 핵심 진지를 축성 공고화하는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새 간부의 장성과 대중 속에서의 당 조직 로선과 정치 로선의 침투를 크게 제약하였다。 이것은 또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적지 않은 부분이 당시 종파 이색 분자들의 비당적 행위의 본질을 자각하고 아래로부터 그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만한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 종파 이색 분자들의 영향이 일부 로동자들과 근로 대중에게까지 미치게 되였던 데도 있었다。

그것은 다섯째로 해방 직후 일시적 혼란기에 특히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이 서울과 각 지방에서 독판을 차려 놓고 분렬 행동을 하고 있는 기회를 리용하여 당 단체내에는 계급적 원쑤들과 친일 분자、간첩 등 각종 이색 분자들이 잠입하여 우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당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외곡 파탄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은 것과도 관련되였다。

그것은 여섯째로 미제 침략 군대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하여 우리 조국이 남북 두 부분으로 분리된 조건도 역시 강력한 통일 당 건설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에 과거 통일적인 당이 존속되여 오지 못한 데서 해방후 국내외 여러 지방으로부터 모여 온 간부들로서 통일 당을 새로 건설하게 된 사정에도 일정한 복잡성이 있었다。

해방 직후 당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복잡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던 초기에는 아직 우리 당 내에 엄중한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은 창건되였으나 당내 완전한 통일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내 규률은 계속 해이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그것은 당 중앙 기관을 비롯하여 당 각급 지도 기관과 각급 당부에 많은 자유주의적 경향과 개인 영웅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 사상에 무젖은 이색 분자들이 계속 둥지를 틀고 앉아 제 각기 수령 노릇을 하며 당을 되는대로 롱락하려 하였기 때문이였다。 평양과 각 지방에서 종파 분자들은 당의 통일을 보장하는 투쟁을 전개할 대신에 량면주의적 로선을 취하면서 겉으로는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설치를 찬성하고는 뒤에서는 소위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는 구실하에 계속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지시를 반대하며 서울만 쳐다 보고 앉아서 당 사업을 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들은 당 조직 사업과 당 사상 사업에 대한 초보적 지식과 리해조차 가지지 못하고도 아는척 하고 당 지도 기관에 앉아서 당 사업은 하려 하지 않고 당 기관내에서 서로 자리 다툼으로써 세월을 보냈으며 당내에 우수한 로동 계급 성분의 간부와 진보성

있는 일꾼들을 등용할 대신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것이 친척 관계、동향 관계、종파 관계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당내 분파적 그루빠를 형성하고 계속 당의 통일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당내에 조직 규률이 아직 서지 못하였으며 당의 조직적 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통계와 당 문건 정리와 심지어 입당에 대한 당 규약상 원칙까지도 서 있지 못하였다。

당 세포는 공장、광산、기업소、농촌에 조직될 대신에 아직 사무 기관、가두에 산재하였고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층에서 선진 분자들을 당에 광범히 받아 들이지 않고 당원 구성에서 소부르죠아 인테리、도시 소시민들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당원들은 아직 정상적인 세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더우기 각급 당 지도 기관에 잠입하여 있던 종파、친일、이색 분자들은 당의 정치 로선을 계속 외곡 혼란케 하여 당이 더 광대한 군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는 사업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계속 조선 혁명의 성격을 좌경적으로 외곡하면서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파탄시키려고 하였다。 이들은 각 지방에서 민주당 기타 민주 단체들과 고의적으로 적대 행동을 조장시키려 하였고 또 광범한 근로 청년、학생들을 우리 당 주위에 조직 집결시키기 위하여 공청을 해소하고 민청을 조직하라는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의 결정을 소위 『당의 우경화』、『당의 퇴보』라고 비방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출현하였다。

또 일부 종파、이색 분자들은 직업 동맹에 대한 당의 지도를 거부하였으며 직업 동맹을 국가 관리 기관과 대치시키려고 하였으며 혹은 직업 동맹을 국가 기업소들과의 투쟁 기관으로 악변시키려고까지 하였다。

그 우에 해방 직후 혁명 력량의 결정적 우세의 환경 속에서 공산당 대렬에 들어 온 많은 소부르죠아 인테리 출신의 급진주의적 청년들이 또한 이들의 뒤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고 있은 데서 더욱 당 내에 혼란이 조성되였다。

남조선의 정형은 더욱 그러하였다。 아래로부터 열성 당원들의 압력에 의하여 박 헌영、리 승엽 도당들과 기타 종파 분자들도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 이후 당 조직 로선과 당 정치 로선을 겉으로는 찬성하고 감히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하였으나 역시 리면에서는 계속 무원칙한 종파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은 남반부에서 당 대렬을 분렬시키는 종파 분자들의 종파 행동의 엄중성을 비판하면서 박 헌영、강 진 등 종파 분자들에게 협애한 종파적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면서 당의 통일을 달성하며 당을 통일된 강력한 당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정확한 지시를 주었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은 당의 이 정당한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다. 박 헌영 도당은 뒷고방에서 만들어 낸 자기의 『당 지도부』를 유지하려고 계속 협애한 종파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장안파』, 『대회파』의 종파 분자들도 당의 지시를 실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은 당 정치 로선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미제의 주구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소위 『조선 인민 공화국』의 간판을 계속 추겨들고 이것을 마치 『국내에서 三·一 운동 이래 二○년간의 반일 투쟁의 집중적 정치 표현인 조선 인민 공화국』이라고 높이 찬양하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또 박 헌영 도당은 조선 해방에 있어서의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을 과소 평가하는 한편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친근한 벗』이고 조선 해방에 있어서 그의 『력사적 진보성』을 찬양하여야 한다고 계속 선전하였으며 또 과거 형식상 일제를 반대하였다 하여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과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야 된다고 선전함으로써 인민들로 하여금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미제가 남조선에 오게 된 것을 증오하며 미군의 남조선 주둔을 반대하며 미제의 음흉한 정체를 인식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책동은 당시 북조선에서도 박 헌영의 영향하에 있던 일부 종파 분자들과 친일, 이색 분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창설 초기에 아직 당 내에 남아 있던 이와 같은 부정적 제 현상들은 해방후 조선 혁명의 전진과 우리 당의 강화 발전,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크게 저애하고 있었다.

우리 당은 이러한 현상들을 오래 존속시킬 수 없었으며 조국과 인민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더우기 조선 혁명 발전의 결정적 전략적 대책인 북반부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긴급한 제 혁명 과업들은 우리 당이 하루 속히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강력해 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우리 당은 엄중한 형편에 처한 당을 급속히 건져 내기 위하여 시급히 각급 당 기관들과 당 단체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종파, 이색 분자들의 반당적 행동을 분쇄하고 당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 것이 바로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회의였다.

* * *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는 一九四五년 一二월 一七일—一八일 평양에서 소집되였다.

제三차 확대 위원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가 『북조선 공산당 단체들의 사업에 있어서의 착오와 결점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자기의 보고에서 전기한 바와 같은 당시 공산당 단체내에 아직 남아 있던 엄중한 제 결함들과 오유들, 그중에서도 우리 당을 조직적으로 공고화하는 방면에서의 제 결함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의 비당적 행동을 폭로 분쇄하였다.

그리고 김 일성 동지는 당내 통일과 규률의 강화, 당의 성분 개선, 대중과의 련계 강화, 직업 동맹에 대한 옳바른 지도, 인재 양성과 당 력량 배치 개선, 당중 수여와 당원 통계 사업 정비, 당의 통일 전선 정책 강화, 당 기관지 사업의 확충 개선,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의 강화 문제 기타 당의 조직적 강화와 사상적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제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보고를 전적으로 승인하고 그에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자기 결정에서 우선 종파 분자들과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당 정치 로선의 온갖 좌우경적 외곡을 규탄하고 현 계단 우리 당의 정치적 총 로선은 광범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 강화하여 우리 나라에 통일적·인민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와 북조선에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 기지를 창설하는 데 있다는 당의 정치 로선을 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회의는 자기의 전체 결정을 통해서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자들과 각종 이색 분자들의 자유주의적, 개인 영웅주의적 경향과 종파주의적 행동들을 통렬히 배격하고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조직 체계를 확립할 것과 당내 사상상 및 조직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하며 당 규률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당 장성 사업에서 당의 사회 성분을 개선하며 또한 당이 급속히 로동 계급과 도시와 농촌의 근로 대중의 선진 분자들 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공장 기업소, 농촌에 세포를 광범히 조직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로동자들의 입당 절차를 실정에 맞추어 간편히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당증 수여 사업을 통하여 당내 친일 분자, 이색 분자들을 숙청하고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민 정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인민 정권내 친일 분자들을 숙청하고 인민 정권을 공고히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사회 단체들, 특히 직업 동맹과 민청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 주위에 광

대한 근로 대중을 집결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회의는 자기 결정에서 당 간부들의 선발 배치 및 그 육성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 것과 당 간부들과 당원들의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급 당 학교의 설치、맑스—레닌주의 서적 번역、출판 사업의 강화 등을 강조하였으며 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기관지 『정로』 발간 사업을 확충 개선하며 각 도당 기관지의 발간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회의는、이와 같은 거대한 사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책임 비서로한 강력한 새 중앙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이때로부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한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의 전반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권위있고 강력한 당 중앙 기관으로 발전되였다。

그리하여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계기로 우리 당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즉 이 때로부터 우리 당은 창건 이후 력사적으로 처음되는 당내 일대 혁신을 진행하였다。

중앙을 위시하여 각급 당 지도 기관들에는 당원들의 신임을 받는 새 간부들이 속속 선발 배치되여 집체적으로 사업하게 되였고 과거 종파 사상에 물든 분자들과 또는 지방 할거주의 경향들과 자유주의 경향을 가진 자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중앙으로부터 세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적 당 조직 원칙을 엄격히 수립하였으며 당의 조직적 통일과 사상적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을 완강하게 조직 전개하였다。

전 당을 통하여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원들을 재 심사하며 당증을 수여함으로써 당 단체들의 조직적 정비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결과 당과 인민 정권、사회 단체 내에 잠입하여 당 정책을 외곡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며 당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당원들 사이에 불신의 정신을 조성하며 당의 내부로부터의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던 친일、이색 분자들이 당 대렬로부터 숙청되였다。

또한 이때까지 공중 루각에 떠 있던 우리 당 조직이 이 때로부터 아주 믿음성 있고 튼튼하고 의지할만한 로동 계급과 빈농 속에 깊이 뿌리를 박으며 그들 속에 당 세포를 조직 확대하는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이 때로부터 『정로』를 비롯한 당 기관지들과 각종 출판물들을 통하여 당의 정치 로선과 정책들을 당 내외에 광범히 선전하게 되였으며 각급 당 학교들이 설치되였고 우수한 당원들을 선발 교양하여 많은 새 간부들을 양성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로부터 당내에서 당원들의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인민 정권 및 대중 단체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 이후 처음으로 강력한 당으로 발족하기 시작하였으며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위대한 사업에 착수하게 되였으며 그의 실지 투쟁 속에서 계속 강화 발전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과 강화 발전에 있어서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였다。

그것은 우선 오래 동안 우리 혁명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에 대하여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되는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전 당에 어떠한 것이 종파 행동이며 어떠한 것이 진정한 당적 행동인가에 대하여 명백한 계선을 그어 주었으며 그리하여 전 당의 력량을 단결시키며 당의 통일을 보장하게 한 것이다。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 이후 당은 자기의 과오를 대담하게 청산하고 당적 립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자는 관대하게 당에 포섭하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는 종파적 및 기타 온갖 반당적 경향과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가 당의 통일과 단결에 대하여 특히 강조한 정신은 오늘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 八월 및 九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아직 당내에 종파 잔재가 남아 있으며 그는 항상 당을 파괴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 제三차 당 대회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달성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높은 경각성으로 당의 통일을 와해 약화시키려는 경향과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의 거대한 의의는 또 하나는 항일 혁명 투쟁、행정에서 수립된 전통을 계승하여 당의 군중 로선을 확립하게 한 것이다。 그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당시 당내에 존재하는 엄중한 관료주의 작풍을 비판하고 당의 군중 로선을 다시 천명하시였다。

당은 김 일성 동지가 천명하신 바와 같은、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며 대중에게 성심 성의 복무하면서 대중을 인도하는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당은 자기의 활동에서 항상 대중과 의논하고 대중의 리익에 부합되게 자기의 정책을 작성하며 혁명 과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곤난과 결함을 숨기지 않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해설하여 대중의 창조적 력량에 의거하여 그를 극복하였으며 그리하여 당과 대중과의 불패의 련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된 중대한 과업、특

히 력사적인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대중의 련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당은 당의 군중 로선을 위반하는 관료주의、주관주의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을 전 당에 호소하고 있다。

제三차 확대 집행 위원 회의의 거대한 의의는 이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거대한 의의의 또 하나는 그때부터 당내에 레닌적 당 생활 규범、강철 같은 규률을 확립하게 한 것이다。

당내의 종파적 자유주의적 및 개인 영웅주의적 경향들과 강력히 투쟁함으로써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규률이 강화되였으며 그리하여 정확한 중앙 집권적 지도하에서 진정한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의 집체적 원칙이 실현되게 되였다。 당이 강철같은 규률과 집체적 지도 원칙을 확고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이 지나온 복잡하고 곤난한 매 계단에서 당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인민 대중을 능히 인도하여 모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은 당이 잠시도 해이함이 없이 자기 대렬의 통일과 대중과의 련계를 튼튼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종파적 및 기타 반당적 경향들과 온갖 관료주의 경향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여 당 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

최근 웽그리야 사변의 교훈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제 제국주의 반동들이 공산당 및 로동당들 내의 건전치 못한 요소들과 일부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의 난관들을 리용하여 당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당에 대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괴 분렬 책동이 더욱 악랄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 조건하에서 전체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제一차 五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쏘련을 선두로 한 제 형제 당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굳게 하면서 당의 통일과 당 규률을 일층 공고히 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강력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자료

게·웨·쁠레하노브에게 보낸 웨·이·레닌의 미발표 서한

一九五六년 一二월 一一일은 로씨야 및 국제 혁명 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인 게·웨·쁠레하노브 탄생 一〇〇주년이 되는 날이다。 게·웨·쁠레하노브는 로씨야에서 맑스주의 사상의 탁월한 첫 선전가였으며 로씨야에서 첫 맑스주의 단체인 『로동 해방』단의 창설자였다。 그는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위한 투사였으며 맑스주의 철학의 선전 및 옹호에서와 수정주의자들인 베른슈테인파、신칸트파、통속 유물론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혁혁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게·웨·쁠레하노브는 끝까지 혁명적 맑스주의의 립장에 머물어 있지 못하였다。 제二차 당 대회 이후 그는 멘쉐위즘의 편에로 넘어 갔으며 一九〇五—一九〇七년 제一차 로씨야 혁명 시기에는 멘쉐위크적 립장을 취하였다。 세계 제국주의 전쟁 시기(一九一四—一九一八)에 게·웨·쁠레하노브는 사회 배외주의의 립장에로 전락하여 위대한 一〇월 사회주의 혁명의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다。

게·웨·쁠레하노브의 옳지 못한 정치적 립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제국주의 및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시대인 새 시대의 성격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과의 동맹의 의의 및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을 리해하지 못한 결과였다。 맑스주의를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서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몰랐다는 것은 게·웨·쁠레하노브의 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약점이였다。

새로운 력사적 시대의 제 조건에서 맑스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쏘련 공산당의 위대한 조직자 및 수령이며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창건자인 웨·이·레닌이였다。

다음에 발표하는、게·웨·쁠레하노브에게 보낸 웨·이·레닌의 세 서한은 一九〇〇—一九〇三년 시기에 씌여진 것이다。

一九〇〇—一九〇三년에 게·웨·쁠레하노브는 『이쓰크라』지 편집 위원으로서 웨·이·레닌과 함께 국제 기회주의——베른슈테인주의의 로씨야 변종인 『경제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맑스주의 리론의 선전에、로씨야 로동 운동 앞에 제기된 문제들의 토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쓰크라』지 편집부가 처음에는 뮨헨에 있었고 그후는 론돈으로 이전하였으며 쁠레하노

브는 늘 제네바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기에 『이쓰크라』지 편집부, 주로 레닌과 쁠레하노브 사이에는 서신 왕래가 빈번하였다.

다음 서한들은 『이쓰크라』지 편집부내에서의 웨·이·레닌과 게·웨·쁠레하노브의 공동 활동을 특징지어 준다. 동시에 이 서한들은 일부 편집 위원들이 기회주의 및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이쓰크라』지의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으므로 편집부내에 의견 상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웨·이·레닌의 서한들은 주로 신문 『이쓰크라』와 잡지 『자랴』 다음 호들을 위한 재료 준비에 관한 것들이다.

게·웨·쁠레하노브에게 보낸 一九〇〇년 一一월 九일부 서한은 『이쓰크라』지 첫 호를 위한 재료 준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겸해서 웨·이·레닌은 『경제주의』를 간단히 특징짓고 있다. 八〇—九〇년대의 짜리 제도의 어려운 정세에서 경제주의적 선동에 열중하는 것은 로동 운동 발전의 불가피하고 당연한 수반자였다. 그러나 이 열중은 처음에는 경제주의적 경향에로 장성하였고 다음에는 베른슈테인주의와 같은 종류의 기회주의로 장성하였다. 웨·이·레닌은 이러한 형편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고 지적하고 경제주의자들의 기관지인 『라보차야 미쓸리』를 부단히 공격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공격이 없이는 그들은 시정될 수 없다』고 웨·이·레닌은 쓰고 있다.

一九〇一년 七월 一三일부 서한에서 웨·이·레닌은 『이쓰크라』지 편집 위원들 속에서의 의견 상이에 게·웨·쁠레하노브의 주의를 돌리면서 그에게 쓰투루베를 공명한 뽀뜨레쏘브와 자쑬리츠로부터 그들의 『의견』의 론거를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이는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쓰크라』지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그들의 지향에 타격을 더 잘 주기 위해서였다.

서한은 모두 원고에 의하여 게재되며 첫 두 서한에서 『뻬뜨로브』라는 서명은 웨·이·레닌의 가명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一

一一월 九일(一〇월 二七일)(一九〇〇년 문헌)*

*웨·이·레닌에게 준 게·웨·쁠레하노브의 회답은 레닌 저작집 제 三권 九七—一〇〇페지에 발표되었음——편집부

존경하는 게오르기 왈렌찌노위츠, 오늘 당신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에게 등기 봉합으로 (一)Puttman(1)의 론문 『무슨 일이 생겼는가?』 (二)븨발릐(2)의 론문 및 (三)파리 대회에 관한 데·끌쪼브(3)의 론문을 보냅니다.

이 마지막 론문을 웨라 이와노브나(4)는 도무지 쓸모 없는 것으로 보았으며 나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론문은 흥미 없고 잡지를 위해

서는 전연 부적당하고(밀예란에 관해서는 당신이 쓸 것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5) 신문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길기 때문입니다. 이 론문은 二만 二천 내지 二만 七천자로 되여 있는 데 신문을 위해서는 六—九천자 또는 이를 약간 넘는 정도의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위해서 그러한 정도의 소론문을 집필할 것을 라팝쓰끼에게 부탁하고 끌쪼브의 론문은 거부하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이 론문을 당신에게 보내기로 한 것은 당신이 라팝쓰끼에게 회답을 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끌쪼브의 론문을 거부하고 라팝쓰끼에게 부탁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끌쪼브에게 위임하여 당신의 지도 밑에 론문을 개작 및 축소케 하시든지 가장 적절하게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첫 길을 택하리라고 꼭 생각되는 데 이 경우에 당신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끌쪼브에게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자진도 당신의 회답을 받은 후 곧 그에게 써 보낼 수 있습니다.

븨발릐의 론문은 당신이 예정한 정정 또는 일부 수정을 위하여 보내 드립니다. 물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모든 론문들에 대해서 연필로 직접 원고에 쓰시든지 특별한 용지에 쓰시든지 하여 수정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차후에 이 수정에 관해서 븨발릐와 서신 련락을 할 수 있는 데 아마 그는 고집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대로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하지 말 것인지를 토의하고 그중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하레브(6)의 소책자에 대한 지적을 삭제하자는 당신의 제의에 대해서만은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자에게 있어 지극히 불유쾌할 것이라는 리유에서라기보다는 나도 바하레브의 소책자를 유익한 (그의 결함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체로 그를 옳게 해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븨발릐는 낡은 것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새 것에 관해서도 쓰고 있는 바 만일 七〇년대에는 대혁명가들이 이러한 소책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소책자에 관해서 비판적인 그러나 승인을 얻은 기사를 게재(신문에는 게재될 수 있음, 제一호에는 아니라 하더라도)하려고 꼭 생각하였습니다. 아주 어린 로동자 및 인테리 청년 대중들이 운동에 인입되고 있으며 그들이 옛날에는 사정이 어떠하였는가를 거의 완전히 망각하였거나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로련한』 혁명가들의 조직이 없다는 사실들은 사회주의자들을 위한 행동 원칙에 관한 소책자들을 가지고 출현하는 것을 필요케 합니다. 파란 사람들에게는 바하레브의 소책자보다 훨씬 더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는 소책자(7)가 있습니다. 웨라 이와노브나는 바하레브에 관한 지적을 삭제하지 말

자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와 같은 소책자들의 가능한 의의에 관한 문제를 잡지 지상에서 토의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뵈발릐의 론문을 신문에 게재하려 하지 않고 잡지에 게재하려 합니다. 우리 신문은 그가 고려한 독자들의 수준으로 보아 당신이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계단에로 나아가고 있다고 웨라 이와노브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웨라 이와노브나는 신문에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데 라보체 젤로(8)의 체제보다 좀 더 문학적이고 좀 더 정연하였으면 하고 있습니다……나는 한 론문을 당신에게 발송하여 달라고 빠벨 보리쏘위츠에게 보냈습니다. 카우츠끼의 결정서에 관한 문제를 신문 론설에 알맞게 축소 또는 삭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소론문 또는 기사를 잡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혹은 당신은 매우 조그마한 것에 그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한 기사라 하더라도 약 一〇인쇄 폐지는, 다시 말하면 二만자 정도는 될 것같은 데요?

쏠로비예브(9)에 관해서는 나는 정말이지 기사를 쓰려는 의욕이 당신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Puttman은 말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씨운다 하더라도 저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一二월당원들에 대해서는 웨라 이와노브나가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10) 문제는 자료에 있지 않을까요? 곧 쓰겠는 데 가능한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이 사업을 위하여 무엇이 특히 중요한 것인지를 교시하여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곳에서는 입수할 수 없는 력사 잡지들이 각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레위츠(11)는 잡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불란서 사건에 관한 큰 론문을 쓰고 있으며 신문에 게재하기 위하여 국민 대회에 관한 론문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 대회에 관해서는 골덴다흐(12)나 혹은 나함케쓰(13)가 썼으면 하는 데 쓰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론문 『사회주의와 정치 투쟁』을 제발 보내 주십시요(동기 봉함으로 례만(14)의 바로 그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론문이 동지적 비판 때문에 알렉쎄이(15)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바 그는 기억컨대 나에게 빠벨 보리쏘위츠의 반박이 정당함을 인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쇄 전지 한장(一六페지)마다 번호를 부친다면(번호가 붙여 있지 않은 경우에) 식자공들은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인 바 그것은 그들이 언제나 인쇄 전지 한장씩 취급하고 있기 때문인 데 우리 신문에 대해서도 사정은 같으며 또 이때까지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책임자』(16)에 관한 문제는 아마 래일이나 모래는 해결될 것같은 데 유리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두 동의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것 만큼 래일은 본질

적인 통지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역시 블류멘펠드의 방조 없이는 (적어도 처음에는) 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그를 Dietz는 식자공으로 채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는 우리 사업을 바로 잡게 하며 독일 사람들을 잘 가르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판명되는대로 곧 그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전보를 치겠습니다. 당신의 론문 『또 한 번』 etc (17)은 식자에 곧 회부할만 하므로 될수록 속히 받았으면 합니다.

라보차야 믜쓸리(18)를 반대하여 원래는 단지 『별책 부록』에 게재된 론문 『우리의 현실』을 반대하여 나는 이미 一년전에 론문 『로씨야 사회 민주당에 있어서의 후퇴 경향』(19)을 쓴 것이 있는 데 지금 그것이 이곳 나한테로 와 있으므로 나는 겸사 라보체 젤로도 반대하여 이 론문을 잡지에 게재하려고 개작할가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라보차야 믜쓸리 『마지막 호』는 어느 호인지? 리해하기 곤난합니다. 신문 마지막 호는 제八호였는 데 (『五면부터』는 새 편집부) 이 호에는 우선 『별책 부록』에 수록된 체르늬쉡쓰끼에 관한 론문 끝에 큰 평행선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은 념두에 두고 있는지요?

비록 라보차야 믜쓸리의 『호전성』을 지금 나는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사 『무엇까지 지꺼렸는가?』(20)를 유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 하면 그들 역시 『우리 한테로』(Passez moi le mot) (이 말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시요 ——편집부) 몇 걸음 내 디디려고 하며 또 그들을 verbesserungsfähig (가망 있는 자——편집부)로 간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격은 물론 역시 있어야 하는 바 공격이 없이는 그들은 시정될 수 없습니다. 최근 나는 동맹(21)에서 사권 나의 옛 동무인 웨트린쓰까야(22)와 서신 왕래를 하였는 데 나는 그에게 『나와 당신은 싸와야 할 것이다』라는 알렉쎄이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창피스럽지 않다면 싸우시요——라고 웨트린쓰까야는 알렉쎄이에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조금도 창피스럽지 않다고 써 보냈습니다.

또 알렉쎄이의 경제주의적 경향 및 견해에 관해서 당신과 담화하고 싶었습니다만 이미 퍽 늦었으므로 나는 몇 마디의 말로써 그치려 합니다. 즉 경제주의적 경향은 물론 언제나 오유였으나 그러나 이 경향은 아주 청소한 것이고 『경제주의적』 선동에의 열중은 경향 없이도 있었으며(또 그 어느 곳에 있으며) 또 이 열중은 八〇년대 말엽 또는 九〇년대 초엽에 로씨야에 현존한 정세하의 우리 운동에 있어서 一보 전진의 당연하고 불가피한 수반자였습니다. 이 정세는 당신이 이 정세에서 겨우 빠져 나오다가 다리를 절게 된 사람들을 아마 상상도, 판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였습니다. 이러한 탈출을 위해서는 약간의 협애성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였으나 이 협애성을 리론화하여 베른슈테인주의(23)와 결부시키게 되였을 때는 문제는 물론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경제주의적』 선동에와 『대중』 운동에의 복무에 열중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윌나 경제주의가 이미 à l'ordre du iour (일정에——편집부)올랐고 뻬쩨르부르그 경제주의가 탄생 및 형성되던 一八九六년에 쓴 『새 전군』에서 당신도 인정한 바 입니다.

굳은 악수를 보내면서 또 질서 없는 서한에 대하여 용서를 빌면서

Votre Petroff

1, Puttman——뽀뜨레쏘브 아·엔·의 가명

2, 비발리——로씨야 혁명 운동에 대한 력사가인 보구차르쓰끼(야꼬블레브 웨·야·)의 가명, 잡지『자랴』 제一호에 게재된 그의 론문『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하여』를 두고 말함.

3, 끌쪼브 데·——『로씨야 사회 민주주의자 해외 동맹』의 한 지도자인 긴즈부르그 베·아·(一八六三—一九一九)의 가명, 파리 국제 대회에 관한 그의 론문은 게재되지 않았음.

4, 웨라 이와노브나——자쑬리츠 웨·이·

5, 웨·이·레닌은 여기에서 잡지 『자랴』 제一호에 게재된 게·웨·쁠레하노브의 기사 『최근의 국제 사회주의 파리 대회에 관하여 몇 마디』를 념두에 두고 있음.

6, 바하레브—아끼모브 웨·——『경제주의』의 저명한 대표자이며 멘쉐위크인 마흐노웨츠 웨·뻬·의 가명, 여기에서는 그의 소책자 『신문(訊問)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제네바,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 동맹』 출판사, 一九〇〇년

7, 소책자의 제목은 불분명함.

8, 『라보체 젤로』——『경제주의자들』의 잡지, 『로씨야 사회 민주주의자 해외 동맹』의 비정기적 기관지로서 베·엔·크리체브쓰끼, 아·에쓰·마르띠노브 및 웨·뻬·이완쉰의 편집하에 제네바에서 一八九九년 四월부터 一九〇二년二월까지 발간되였음.

9, 쏠로비에브 웨·에쓰·(一八五三—一九〇〇)——철학가—관념론자, 정론가,

10, 『자랴』지 제一호를 위하여 一二월 당원들에 관한 론문 『一八二五년 一二월 一四일』을 쓴 것은 게·웨·쁠레하노브였음.

11, 구레위츠 에·엘·——사회 민주당원, 멘쉐위크, 그루빠 『바리바』의 창건에와 그 문예 활동에 참가함.

12, 골텐다흐——랴자노브 데·베·

13, 나함케쓰——유·엠·쓰떼클로브, 문예—출판 그루빠 『바리바』에서 사업함.

14, 레만 카·——독일 사회 민주당원, 『이쓰크라』 편집부가 뮨헨에 있었을 때 여에 협조하였음.

15, 알렉쎄이——마르또브 엘·

16, 『책임자』——소위 『자랴』지 책임 편집원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그가 있게 된 것은 독일 출판법에 의한 것이다. 블류멘펠드 이·에쓰·——사회 민주당원, 식자공, 인쇄소를 관리하였고 그후는 『이쓰크라』지의 발송도 관리하였음.

디츠 이·——독일의 저명한 사회·민주당계 출판업자, 슈투트할트에 있는 그의 인쇄소에서 『자랴』지가 인쇄되였음.

17, 『또 한 번 사회주의와 정치 투쟁』

18, 『라보차야 미쓸리』——『경제주의자들』의 신문, 一八九七년 一〇월부터 一九〇二년 一二월까지 一六호가 발간되였음, 까·엠·따흐따레브 및 기타가 편집하였음.

『라보차야 미쓸리』의 『별책 부록』은 一八九九년 九월에 뻬쩨르부르그 『투쟁 동맹』 발행으로 출판되였음.

19, 『로씨야 사회 민주당에 있어서의 후퇴 경향』은 웨·이·레닌의 로작으로서 一八九九년 말에 집필되였음, 一九二四년에 처음으로 인쇄됨, 전집 제四판 제四권 一三四—一六二페지 참조.

20, 기사 『무엇까지 지꺼렸는가?』를 게·웨·쁠레하노브는 집필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예정한 그 기사 내용을 그는 론문 『또 한 번 사회주의와 정치 투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21, 『동맹』——一八九四—一八九五년 겨울에 웨·이·레닌이 창건한 뻬쩨르부르그 『로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

22, 웨트린쓰까야——야꾸보와—따흐따레와 아·아·의 가명, 『투쟁 동맹』의 창건자들인 『로인』 그루빠에 들어 있었고 그후는 따흐따레브 까·엠·과 함께 『라보차야 미쓸리』를 지도 및 발간하였음.

23, 베른슈테인주의——국제 사회 민주주의 내의 한개 조류로서 一九세기 말엽에 독일에서 나타났고 독일 사회 민주당원인 에두와드 베른슈테인의 이름을 딴 것이다. 베른슈테인은 맑스의 혁명적 학설을 부르죠아 자유주의의 정신으로 수정하여 나섰다. 로씨야의 베른슈테인 지지자들은 『합법적 맑스주의자들』, 『경제주의자들』, 분드파들, 멘쉐위크들이였다.

二

一九〇一년 七월 一三일(六월 三〇일)(뮨헨)(1)

——일부 당신의 서한(2)을 받았습니다. 정통파의 P. Scriptum(3)에 관하여 말한다면 오늘 알렉쎄이가 다수파의 의견을 당신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나는 (직접) 특히는 이 P.S.에 대한 또 마치 론문 전체를 채택한 후도 『문필상 결함』을 리유로 하여 이 P.S.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당신의 견해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바와

같은 P.S.의 『구제』는 빠벨 보리쏘위츠의 결정적인 찬•성•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알렉쎄이가 지금은 거의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투표는 절반씩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론쟁』꺼리로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당신은 우리의 Struvefreundliche(4)가 내놓은 의견들의 론거를 직접 알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대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례만한테로 보내는 편지로써 für Meyer 또는 『뿌뜨만을 위하여』라고 써 붙•여•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체로 례만한테로 써 보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들의 견해를 결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례를 들면 에르•엔•에쓰(5)를 반대하는 나의 론문에도 관계됩니다。

체르노브를 반대하는 재료를 보내 주시겠다는 제의에 대하여 큰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바로 그것을 취급하였으므로 나에게는 확실히 불란서와 베르기에 관계되는 것(체르노브가 인용하고 있는、Vandervelde et Destrée «Le socialisme eh Belgique»(6)그리고 Vandevelde의 새 로작(7))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필요치 않거나 또는 당신이 몇 주일간 내놓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내 주십시요。 나에게는 Liebknecht의 저서 «Zur Grund und Bodenfrage»(8)가 몹시 필요한데 나는 그것을 이곳 빠르부스한테서도、도서관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있다면 제발 얼마 동안만 빌려 주십시요。

체르노브는 맑스주의자들과 싸운다고 하는 Gerolamo Gatti의 저서 Le nuovi correnti dell'economia agricola (Milano—palermo, 1900)(9)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물건이며 또 읽을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까? 불란서 번역판은 없는지요? (나는 이태리 말을 모르지만 누이 동생이 도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은 악수를 보내면서、나의 론문(10)에 관해서 써 주십시요

당신의 뻬•뜨•로•브•

1、웨•이•레닌에게 보낸 게•웨•쁠레하노브의 회답은 레닌 저작집 제三권 二〇三—二〇五 및 二三四—二三五페지에 발표되였음——편집부。

2、게•웨•쁠레하노브의 서한은 레닌 저작집 제三권 一九五—一九六페지 참조——편집부

3、정통파의 P. Scriptum——엘•이•아크쎌로드(정통파)의 론문 『왜 우리는 뒤로 가고 싶지 않는가?』의 발문、그는 이것을 자유주의자였다가 후에 반동 분자로 된 베르쟈에브 엔•아•의 론문 『관념론을 위한 투쟁』에 관하여 썼다。 웨•이•레닌과 게•웨•쁠레하노브는 Post Scriptum의 게재를 주장하였으나 편집부의 다수파——마르또브、자쑬리츠、뽀뜨레쏘브——는 발문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론문은 발문 없이 『자랴』지 제二—三호에 발표되였음。

4、Struvefreundliche (partei)——쓰트루베와 친한 당、이렇게 『이쓰크라』 편집부내에서는 웨•이•자쑬리츠와 아•엔•뽀뜨레쏘와가 롱담삼아 불렀음。

5、에르•엔•에쓰 (쓰트루베 뻬•베•)를 반대하는 웨•이•레닌의 론문 『젬쓰뜨보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은 一九〇一년 六월에 집필되여 一九〇一년 『자랴』지 제二—三호에 게재되였음 (전집 제四판 제五권 一九—六五페지)。

6、제스뜨레 제•、완데르웰데 에•『베르기에서의 사회주의』

7、Vandervelde E.«La propriété fonciere en Belgique» (완데르웰데 에•『베르기에서의 토지 소유』)

8、리브크네히트 웨•『농업 문제에 대하여』

9、Gatei G.«Agricoltura e socialismo, Le nuove correnti dell'economia agricola»(하티 『농업 문제와 사회주의、농업 경제학상의 새 조류』)

10、나의 론문——제三번의 주해를 참조。

三

一九〇二년 一二월 一일(一一월一八일)(론돈)

존경하는 게오르기 왈렌찌노위츠! 나는 당신의 서한을 받았을 때 벌써 침묵의 원인에 관하여 당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위임을 리행하겠습니다。

어째서 당신은(一)이쓰크라를 위한 쩨마에 관해서도 (二)따라쏘브에 관한 펠레똔(1)에 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베른에서 보낸 나의 편지를 정말 받지 않았습니까? 이쓰크라를 위하여 그러한 제목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제목으로 사설을 쓰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발 될수록 속히 회답을 주십시요 (될수록 속히 회답을 보내달라는 것은 제二八호가 이미 준비되고 제二九호 편집에 착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제二八호에는 사회 혁명당원들을 바대하는 웨라 이와노브나의 사설이 게재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민의 지파 시대에 정객들 etc.에 대한 모욕이 있었던 듯이 쓰

면서 력사를 외곡하고 있습니다。 표제는 «Le mort saisit le vif» (『송장이 산 사람을 붙잡는다』——편집부)라고 되여 있습니다)。

『블라지미로브』(2)와의 당신의 론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당신의 레페라트는? 랄라얀쯔(3)의 크루쇼크와 기타 크루쇼크는 어떠합니까? 또 『지즈니파들』(4)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악수를 보내면서

당신의 레닌

참、 잊어버릴번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레브는 (원고가 중도에 탈락되어 있음——편집부)

동봉하여 보내주실 편지는 지우편소로 보내주십시요。

1、『따라쏘브에 관한 펠레똔』——까·따라쏘브(엔·에쓰·루싸노브)의 론문 『로씨야 사회주의 사상의 진화』를 분석하려는 자기 의도를 게·웨·쁠레하노브는 『이쓰크라』지를 위하여 수행하지 않고 아·뜬의 저서 『로씨야 혁명 운동사』 一九〇三년판에 대한 자기의 서문에서 수행하였다。

2、블라지미로브 엠·까·——쉐인핀켈 엠·까·(一八七九—一九二五)。一九〇二년에 베른 『이쓰크라』 그루빠에 가입、二월 혁명 후 볼쉐위크들에 가담、우크라이나에서 또 쏘련 최고 인민 경제 회의에서 사업함。

3、랄라얀쯔 이·하·(一八七〇—一九三三)——로씨야에서 혁명 운동에 참가。여러 도시에서 사회 민주주의 사업을 함。一九〇二년에 씨비리로 류배되여 여기서 해외로 도주하여 혁명 사업을 계속하였음。

4、『지즈니파』——제네바에서 문예、과학 및 정치 잡지 『지즈니』를 발간한 사람들의 그루빠。이 시기에 『지즈니』그루빠와 『이쓰크라』 그루빠의 통합에 관한 회담들이 진행되였음。

인민적 주권하에서의 민주주의의 본질

정 진 영

오늘날 민주주의는 한 개의 제도로서、사상으로서 또는 한 개의 정치적 력량으로서 평화 및 사회주의와 긴밀히 결부되여 전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인류를 번영과 행복으로 이끌어 가는 강대한 힘으로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쏘베트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확대 발양을 위하여서와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진 운동을 위하여 실로 거대한 추동을 주었다。

해방후 우리 나라 북반부 민주 기지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 수행으로부터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인민 민주 제도、인민적 민주주의가 발생 발전하여 왔으며 인민적 민주주의에 내포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원칙들은 전체 사회주의 력량의 가일층의 강화와 아울러 날로 공고화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력량의 강화에 더욱 더 초조하고 불안하여진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중상과 비방의 낡은 수법에다 각종 악랄한 새 「방법」을 가미하여 인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기도하고 있는바 그것은 특히 최근 얼마 동안에 제국주의 반동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력량을 반대하여 개시한 악질적 깜빠니야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더욱 로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제 원칙들을 더욱 더 견결히 고수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며 이 원칙들로부터의 이러 저러한 일탈을 마치도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인듯이 생각하는 경향에 대하여 상응한 비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차이、전자에 대한 후자의 무

한한 우월성을 깊이 리해하는 것은 거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 *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가 주권의 한 개 조직 형식, 독재의 실현 방식, 통치 수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성격은 전적으로 그 국가 주권을 장악한 지배 계급이 누구인가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문제는 언제나 반드시 「어느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인가」 이렇게 제기되는 것이다.

부르죠아 국가의 조직 형식, 부르죠아 독재의 실현 방식으로서의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 형식,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실현 방식으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또는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소위 「순수한」 민주주의――누구에게나 다 허용되는 민주주의는 존재한 일이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제국주의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기회주의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민주주의 일반을 문제삼고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를 문제 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 자들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한편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계급적 성격상 차이를 희미하게 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인민들의 지향을 마비시키려 하며 다른 한편 근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립장을 명백하고 당당하게 내여 놓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중상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계급적 견지에서 고찰하는 것은 초보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로 된다.

봉건 제도를 전복한 혁명(부르죠아 혁명)의 결과 발생한 부르죠아 민주주의, 부르죠아 민주 공화국은 봉건적인 국가에 비하여 훨씬 광범한 주민 층들이 국가 관리에 관심을 가질 조건을 지어 주었고 따라서 로동 계급이 그것을 리용하여 혁명 투쟁 대렬을 공공연하게 정비할 수 있게 되였다는 점에서 확실히 력사상 일보 전진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과거의 민주제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기만과 허위의 장막으로 싸여 있다는 것이다.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부르죠아들, 즉 소수 착취자들의 독재를 여러 사람, 인민들의 정치인듯이 음폐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이는 형식 뿐의 민주주의이며 허위적이며 가짜 민주주의다. 바로 이 점에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허위성, 간악성이 있다.

위대한 레닌이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교시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중세기에 비하여서는 거대한 력사적 진보이면서도 언제나 협소하고, 축감된 것, 허위적이고 가면적인 것, 부자에게는 극락이며 피착취자, 빈자에게는

함정이며 기만으로 되여 있으며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이와 같이 「불가피적」으로 내포되여 있는 二중적 성격을 리해하며 그의 력사적 제한성을 리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그의 긍정적 면만을 볼 때 카우츠끼적 반역의 길로 갈 것이며 그의 부정면만을 보고 허무적으로 대할 때 좌경 기회주의로 빠질 것이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피압박 군중들, 특히 로동 계급은 이 제도를 리용하여 부르죠아지와의 정치 경제적 투쟁을 전개하는 행정에서 이 제도의 허위성, 가면성, 나아가서는 혹심한 부패성을 깨닫게 되며 자기들 자신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같은 민주주의는 로동 계급에게 령도되는 인민 주권, 즉 인민 민주 독재, 나아가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혁명을 거침으로써만 실현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과거 인류 력사상에 있었던 모든 형식의 민주주의의 이러저러한 제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력사상 논 긍정적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 긍정면, 례를 들어 의회 제도에서의 대표제와 선거제를 계승 섭취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단순한 계승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레닌은 기회주의자들을 조소하면서 「인류 력사상 가장 심각한 혁명,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수 착취자들로부터 다수 피착취자들에게로의 주권의 이행이…민주주의의 새로운 형식들의 창조 없이, 민주주의 적용의 새로운 조건들을 체현하는 새로운 기관들의 창조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없는 망상일 것이다」(전집 제二八권 四四二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 새로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완벽성과 철저성을 가진 진정한 민주주의로 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력사상 최고의, 그리고 전연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로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최초의 경험은 위대한 레닌에 의하여 지도된 공산당을 선두로 한 쏘련 인민이 창조하고 발전시킨 쏘베트 민주주의다. 그것은 四〇년의 빛나는 력사를 통하여 고귀한 경험을 쌓았으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원칙들과 방식들을 확고히 하였다.

제二차 세계 대전후 조성된 새로운 력사적 조건과 여러 나라들의 혁명에서의 새로운 계급적 력량 관계는 동방과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 인민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각 자기 나라의 민족적 전통, 혁명 투쟁, 특히 민주주의 발전의 력사적 특성 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가

지 가지의 바리안트를 창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四〇년의 간고한 투쟁 력사를 통하여 공고화되고 검열된 쏘베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고전적 원칙들이 응결되여 하나의 완성된 모양(특히 一九三六년 쏘련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민족적、력사적 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쏘베트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본적으로 섭취함이 없이、쏘베트 민주주의가 공고화한 원칙들이나 방식들에서 전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인민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특성의 구실 밑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거부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특징들의 분석을 통한 그 우월성의 제시는 이미 웨・이・레닌의 로작들――『국가와 혁명』、『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배교자 카우츠키』、『콤민테른 제一차 대회에서의 보고』(전집 제二八권 수록)등 기타 일련의 론문、연설들에서 전면적으로 주어졌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리해함에 있어 기초로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이라는 것이며、둘째로 그것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부르죠아 독재의 수단인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의 방법이며 수단이다.

로동 계급은 구사회에서 가장 압박 받던 계급으로서 낡은 사회를 개조하여 사회주의、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반드시 혁명적 독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프로레타리아 독재(인민 민주주의 독재)는 소수 착취자의 독재인 부르죠아 독재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다수 피착취자들의 독재다. 국가 주권을 장악한 로동 계급 및 그에 의하여 령도되는 절대 다수 근로자들은 부르죠아지 기타의 극소수 착취자들과의 계급 투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이 극소수 착취자들을 지배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자비하고 철저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다수 인민의 독재、지배、억압은 레닌이 표현한 바『다수 인민의 전반적 힘』이며 이러한 전반적 강력의 적용은 민주주의의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써는 실현할 수 없다. 부르죠아 독재가 부르죠아 민주 제도를 쓰는 방법과 함께 부르죠아 민주 제도 그것이나마 또 다시 각종 방법으로 말살하는 립헌 군주제 또는 파시쓰트 제도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민주 제도――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제도(쏘베트 민주주의 제도、인민 민주 제도 등 각종 형태는 있지만)로 밖에는 실현될 수 없다. 이렇게 민

주주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그 실현 방법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의 실현 방법이라 함은 풍부한 내용을 가진 규정으로 된다. 이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구체적 표현 측면들을 통하여 고찰되지만 그것은 우선 한편으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시 당하는 계급、즉 억압 받고 지배받는 계급을 위하여서는 아무러한 민주주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편으로는 독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인민 대중을 광범히 동원하고 인민 대중에 의거하며 인민 대중을 위한 시책을 부단히 확대함으로써만 그의 철저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여 로동 계급을 위시한 근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적대 계급、혁명의 원쑤에 대한 독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량면이며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다.

이 문제는 오늘 웽그리야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진지한 교훈을 얻어야 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웽그리야의 구지도자들은 원쑤에 대한 독재 실시에 있어 인민 대중에 철저히 의거하지 않았다. 또한 임레 나지는 벗과 원쑤의 사이에 뚜렷한 계선을 그어 반혁명 분자들을 단호히 진압할 대신에 도리여 그 자들의 반항을 추동하고 드디여 원쑤들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로농 혁명 정부가 군사 행동에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반혁명의 테로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을 때 비로소 사회주의의 전취물은 수호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이같이 불가분적으로 결부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같이 허식하거나 가면을 쓸 줄 모르며 쓸 필요가 없으며 또 써서는 안된다. 원래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소수 부르죠아의 독재를 마치도『전 인민적 국가』인듯이 가장하기 위한 수법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고 가면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착취자들에게 민주와 자유를 약속하지 않으며 도리여 그들을 억압하고 독재를 실시할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독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인민 대중은 허위나 기만으로써가 아니라 진실에 의하여서만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를 두고 따라서 생산 수단에 대한 자본주의 소유에서 리익을 얻는 사람들、즉 부자들 사이에서의 민주주의이며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를 두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서 리익을 얻는 근로자들 사이의 민주주의이며 이 근로자들의 단합된 힘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민주주의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적 생산 수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근로자들이 대규모적인 동지적 협동 로동과 고도의 기술로써 사회의 재부를 생산하며 그 재부를 자기들 자신이 리용하여 생활이 날로 향상되는 그러한 물질적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이 정치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물질 문화적 재부를 자기 손에 쥐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 재생산하는 수백만 수천만 근로 인민이 정치 사상적으로 단합 통일되여 이 웅대한 력량을 가지고 국가 사업과 사회 사업을 자신이 처리하도록 제도화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다。 로동 계급은 바로 이러한 확고한 물질적 기초를 가진 사회 제도 없이는 민주주의에 관한 천만 가지 약속도 모두 공담이라는 것을 부르죠아 민주주의하에서 절실히 체험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 즉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토대로 하고 그 기초 우에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의 힘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실현 과정에서 이러 저러한 곤난과 오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 함이 없이 능히 극복한다는 것을 영웅적 쏘베트 인민들과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명백히 본다。

어떤 사람들은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일정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생각하는 나머지 그것이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변질이나 시킨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개인 숭배가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산물인듯이 생각한다。 그러나 사태는 이와 정 반대로 개인 숭배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는 전연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주권을 자기 손에 쥔 인민들은 결국 이것을 용허하지 않았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를 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위력이 바로 자본주의의 잔재인 개인 숭배를 배격하고 나왔으며 바로 그 제도의 힘으로써 오늘 그 후과를 훌륭하게 청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숭배는 물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량립될 수 없다。그렇다고 하여 개인 숭배와 관련된 이러 저러한 오유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그 어느 한 개의 원칙이라도 혹시 어떻게 변경시켰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못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를 둔 확고한 제도로서 발전하는 한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리여 인민 속에 깊이 뿌리 박고 강대한 생활력을 가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원칙들 자신의 힘──즉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진정한 민주 제도하에서 살고 있는 인민의 력량이 개인의 오유들을 시정하고 그로 인한 진중한 후과까지도 제거하는 힘으로 되고 있다。 오늘 웽그리야 인민들이 반혁명을 타승하고 지난날의 오유의 후과를 청산하는 힘은 바로 이러한 인민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위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덕택으로도 수호되지만 팟쇼 제도하에서도 수호 유지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건설 및 그 성과의 수호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부단히 확장、발전、완성시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건설은 수백만 근로 대중 자신의 사업이며 더 많은 군중을 인입하고 그의 력량을 부단히 장성시키여 그에 의거함이 없이는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적용 정도와 적용 범위의 확장은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이 더욱 더 확장되여 사회의 전체 인민 경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또한 그와 아울러 착취자 계급들의 력량이 더욱 더 약화되는 데 따라서 그 기초 우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그것은 그러한 조건하에서만 더욱 광범한 근로 대중、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단합된 로동 계급과 농민이 더욱 의식적 자각적으로 국가 관리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쏘련에서와 같이 사회주의가 완전히 건설된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더욱 전면적 비약적으로 확장되며 인민 대중이 사회의 모든 부면에서 진정으로 주인답게 생활하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과 정력은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주권을 쥔 인민 대중의 위력으로써 창조된 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부르죠아 민주주의보다 비할 수 없이 풍부한 내용을 가졌으며 사회주의 사회의 력사 발전과 아울러 그 내용이 더욱 더 풍부하여진다。 이같이 풍부한 내용을 가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구체적으로 각종 측면에서 표현되는 바 우리는 그 주요 측면들을 봄으로써 그것의 기본 특성을 리해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이 그 이전의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 비하여 무한한 우월성을 가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ㄱ) 우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계급적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이며 국가 주권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공고화하는 방법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와 중국 기타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력사적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를 찬성하여 따라 오는 비 근로자들을 근로자들과 단합시키는 통일 전선을 보장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아무리 확장해 보더라도 사회의 극소수인 착취자들에게 밖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협애한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비하여 무한히 광범한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가 완전히 건설된 쏘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과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공화국 북반부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그러하다。 이 나라들에서는 광범한

근로 대중、 인민 대중이 자기 력사상에서 생각도 못하던 정도로 높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면서 살아 간다。 그와 동시에 이 나라들에서는 아직 착취자들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반동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민주 제도도 실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로부터 오는 민주주의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는 쏘련에서의 과도기보다 훨씬 유리한 객관적 정세로 인하여 그 제한이 훨씬 적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정을 망각하고 현재의 쏘련과 우리 나라를 기계적으로 대비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자체의 발전 단계를 무시하는 태도로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비방하는 반동 분자들의 꼬임수에 빠지는 길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체 근로자들이 맑스—레닌주의 당을 선두로 하는 로동 계급의 주위에 단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한다。

부르죠아 민주주의하에서는 지배 계급 자체내에서도 각 계층、 각 그루빠가 저마다 제 주장만하고 여러개 정당이(근로자들을 반대하여서는 보조의 일치를 가지면서도) 서로 대립、 반목、 중상하는 것을 보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 제도의 성격 자체로부터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심지어 그들은 의회내에서 정부 당과 반대 당이 공공연한 란투를 하기에까지 이르른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민주주의라고 떠버리면서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 민주 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책동하였으며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로동 계급은 자기의 령도하에 농민 기타 근로자들을 동맹 단결시킴으로써만 주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민주주의의 혜택을 주어 동맹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만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하에 로동 계급과 단결을 강화하고 나아가는 데서만 자유와 행복을 더욱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제도하의 생활에서 실지에 체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정한 부분도 로동 계급에 접근하고 근로자로 개조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혜택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같은 조건에서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존재하는 수개의 정당들은 정부 당과 반대 당의 구별 없이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공산당、 로동당의 령도하에 동맹과 우의를 견고히 하면서 인민 주권을 지지하고 전체 인민을 국가 관리에 인입함에 응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 사회 단체가 공동 후보자들를 세우고 각 당、 각파、 각계 각층이 다같이 이 공동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민주주의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높이 자랑할 수 있다。

(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민주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조직이 인민 대중 자신의 직접적 대중적 정치 조직이라는 중요한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의회를 마치도 민주주의 발전상 다시 없는 최고의 기관인 듯이 선전한다。 물론 의회는 대의 제도와 선거 제도를 일정한 정도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의회는 원래 봉건 통치자들의 창의에 의하여 우로부터、 즉 국왕 또는 령주가 소집하여 그들의 상의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된 신분 대표제 기관으로부터 발달하였고 따라서 그것이 계급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아무리 발전하여도 그 자체로서 인민 대중들과의 일정한 간격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회와는 달리 쏘베트들과 인민 회의들(인민 위원회들)은 처음부터 국가 조직이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대중 자신이 적들과의 투쟁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직접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속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밑으로부터 조직한 직접적 민주주의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에서 인민 대중의 사활적 문제들이 언제나 인민들 자신의 리익에 알맞도록 결정되리라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쏘베트 공화국、 인민 공화국들이 단기간내에 수백만 근로자들을 국가적으로 그렇게도 성과적으로 통일 단결시킨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현명한 판단에 의하여、 이러한 대중적 정치 조직을 통하여 일체 주권을 행사하고 그런 기관을 기초로 하는 국가 조직 체계를 건설한 데 기인된다。

대중의 직접적 정치 조직이 국가 조직 체계의 기초로 됨으로써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그 우월한 조직상、 제도상 표현을 보게 된다。 그 하나는 의회나 관청의 일군들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일군들이 선거받을 때 벌써 인민들의 요구와 위임을 직접 받고 나왔으며 따라서 그들은 인민 대중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기 사업을 총화 보고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의 일상적 검열을 받아야 하며 인민의 신임을 잃은 사람은 선거자들로부터 소환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가 사업의 기본 부분으로 되는 립법 사업과 행정 사업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수행되며 따라서 일체 행정 사업을 주권 기관(대표 기관)이 지도 감독하고 자기 앞에 책임지도록 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진정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제三조)、 대의원의 책임제와 소환제(제五조)、 그리고 최고 및 지방 인민 회의들의 광대한 권한 규정、 내각 및 지방 인민 위원회들이 자기를 선거한 인민 회의 앞에 책임지고 복종하는 제도(제六○조、 제七五조) 등등、 그리고 금번 지방 주권 기관들의 선거와 관련하여 진행된 대의원들의 총결 보고 회의、 립후보자들의 선거자들과의 상봉 등이 얼마나 높은 민

주주의의 표현인가를 다시금 크게 자랑하는 것이다。

근로 인민은 자기 손으로 선거한 쏘베트나 인민 회의와 같은 자기 자신의 조직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피로써 전취한 귀중한 주권이 자기 자신의 손에 튼튼히 쥐여져 있으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모든 국가 조직에서 실현되고 자기 의사를 위임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임한 대로 사업한다는 것을 더욱 더 확신한다。 이것이 바로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ㄷ) 국가 기구와 인민 대중과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가 기관들의 모든 활동에 인민 대중을 일상적으로 부단히、 그리고 더욱 더 광범위로 인입 참가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지도자들의 경험과 지도받는 인민 대중의 경험이 부단히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며 국가 기관들이 인민 대중과 끊임 없는 련결을 가지고 인민 대중의 장성하는 요구와 희망에 의거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모든 사업의 결정、 집행、 나아가서는 그 검열에 더욱 더 광범한 군중을 적극 인입하며 모든 사업을 인민 대중들 자신의 창의 창발과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여 진행하도록 조직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떠한 구실하에서의 관료주의도 용납할 수 없다。

부르죠아 민주주의에 있어 국가 기관들은 수천가지 책략과 흉계로써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서 배제하며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책략과 흉계는 더욱 더 교묘하고 대규모적으로 된다。 이것이 부르죠아 독재를 음폐하는 수단으로서의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본성이다。 따라서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와 결합되는 것이다。 이와 정반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관료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꾸준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완강하게 취함으로써만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다。

인민 대중을 국가 기관들의 사업에 적극 인입하기 위한 제도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국가 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이며 또 하나는 국가 기관들의 협조 조직들、 근로자들의 사회 단체들、 군중의 자발적 협조 사업들의 다방면적인 전개이다。

부르죠아 국가의 관료주의적 중앙 집권이 특권 계층들의 국가 사업 독점을 보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은 민주주의와 결합된 중앙 집권으로서 로동 계급(따라서 그 선봉대인 공산당、 로동당)의 령도의 유일성과 인민 대중의 광범한 국가 사업 참가를 통일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각종 협조 기관들、 사회 단체들、 자발적 조직들의 가일층의 발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력량을 국가

기관 자체의 력량의 수십배로 발휘케 하는 레닌적 방책이다。 오늘날 쏘련에서 깊이 뿌리 박고 우리에게서도 널리 보급된 인민 대중이 국가 관리에 참가하는 훌륭한 방법들、 각종 상설 위원회들의 활동、 생산 직장들에서의 계획 수립、 군중적인 생산 협의회 조직、 각종 생산·문화 일군들의 지방적 또는 전국적 회합、 당과 국가의 호소에 응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건설 로력 동원에의 대중적 궐기 등은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민 대중의 력사 창조의 위력、 즉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위력이다。

(ㄹ)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근로 대중의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의미한다』(레닌 전집、 제二五권 四四三페지)。 평등이 문제되지 않고서는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도 말할 수 없다。그런데 부르죠아 민주주의에서는 봉건 제도의 공공연한 불평등 대신에 형식상의 평등을 선포하였으나 그것은 경제상의 거대한 불평등(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각종 제한이 붙는 것이 필연적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전연 허위일 뿐만 아니라 경제상 불평등、즉 자본의 특권과 만능을 음폐하는 기만 수단으로서 빈곤을 더욱 채찍질하도록 작용한다。

부르죠아 사회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일체 권리의 총화는 그가 가지는 화폐의 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로동자들、 무산자들은 명색 좋은 몇가지 권리를 형식상 선언 받으면서도 사실상은 노예나 농노와 다름 없는 완전 무권리 상태에 빠진다。 하물며 국가 기관이나 공민들에게 다 같이 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부르죠아 민주주의에는 있을 수 없다。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이러한 무서운 불평등을 극복하고 나오는 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거대한 우월성의 한 개 표현이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의 평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폐를 척도로 한 평등 대신에 로동을 척도로 한 평등이다。 즉 모든 근로자들을 착취로부터 평등하게 해방하는 것이며 생산 수단 소유에 대한 전체 근로자들의 평등한 권리이며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두가 다 로동할 평등한 의무를 가지고 로동에서 생산된 일체 물질 문화 재부를 자기 로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 받는 권리로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한 이러한 진정한 평등、 즉 로동을 유일한 척도로 한 평등만이 오로지 법률상 권리와 자유의 평등 원칙——재산 상태、 민족별、 성별、 사회 성분、 신앙、 지식 정도 여하에 관계 없는 권리와 자유의 평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허위적인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달라서 인민 대중과 그 적대 분자 사이에 평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또 그대로 실

시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의 평등은 일정한 력사적 조건에서 로동자들에게 대하여 농민보다 어느 정도의 우월권을 설정하는것(쏘련에서 지난 과도기에 로동 계급의 령도권 보장의 방법으로서)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 반면에 혁명을 반대하지 않는 비근로자들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우리 공화국 기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권리와 자유는 결코 부르죠아 민주주의하에서 선언된 권리와 자유——일반 선거권、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신앙 등에 대한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부르죠아 민주주의가 말로 낼 수 없는 새로운 권리와 자유——로동의 권리、휴식의 권리、사회 보험에 관한 권리、교육의 권리、청원 신소의 권리、 제국주의와 착취 제도를 반대할 자유、 평화를 옹호할 자유 등등 사회 경제 문화의 각 부문에 걸치는 광범한 권리들、즉 인민들이 모든 생활에서 민주주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헌법상 확고히 고착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법률 활동의 중심을 공민들의 일체 권리와 자유를 규정 선언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일상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정치적、경제적 일체 수단을 동원하는 데 중심을 둔다(우리 헌법 제一七조는 그 일례를 규정한 것이다)。 국가 기관과 공무원의 일체 주의력이 공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법률적、정치적、경제적으로 보장하는 데 전면적으로 돌려질 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찬란하게 꽃피여 오른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권리의 평등과 의무의 평등의 결합、통일이 평등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실현된다。 이러한 의무의 평등은 국가 기관、공무원、공민들이 누구나 다 같이 유일한 국가 법령을 엄격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준수할 의무(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실현)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 의무를 규정한 공화국 헌법 제二七조가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현에서 얼마나 귀중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사회주의적 준법성、준법의 의무는 그것이 선언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대책——검사의 감시 활동 강화、당적、국가적 및 사회적 검열의 다양한 결합、대중의 밑으로부터의 비판의 광범한 발동、신소 청원의 성실한 접수 처리 등이 더욱 더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된다는 데 그의 거대한 우월성이 있다。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철저한 실현이 최근 三、四년간 쏘베트 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감동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국제적 측면에서는 평화의 유지 공고화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으로 표현된다。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국내에 있어서 착취와 억압을 각종 방법으로 음폐 기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외에 있어 식민지 략탈과 약소 민족의 예속화를 음폐 기만하는 가면으로 리용된다。 미제의 조선에 대한 침공、영 불의 애급 침략과 같은 로골적인 무력 침략까지가 평화의 가면하에 진행되고 리 승만 도당이 미제와 체결한 매국 배족적 조약들이 특히 최근에 체결된 매국적『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까지도 『공평한 대우』로 분장되고 있다。

국제 시장에서의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는 자본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서로 배타적으로 나아가게 하며 민족과 민족 사이에 반목과 충돌을 부단히 사촉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서 실현된다。 례하면 오늘 미 국회 같은 데서는、『구라파의 공통성』이니 하는 구호가 영국、 불란서같은 오랜 독립 국가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음폐하는 가면으로 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또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 간첩 파괴 분자들을 대량적으로 파견하는 것이 『공동 안전』의 이름 밑에 『합법화』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근로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서 평화를 단순한 구호로서가 아니라 생활적 요구로서 제기한다。 로동 계급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서만 번영과 행복、자유와 민주주의를 얻는 계급이다。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근로자들의 국가 주권——쏘베트 주권이 자기의 첫 법령으로서『평화에 관한 법령』을 발표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이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소한 가능성이라도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리용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정책이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의 교시가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하였다。 사회주의적 국가들과 부르죠아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은 결코 어떠한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력사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된다。 그러나 평화적 공존은 결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부르죠아 민주주의 사이의 근본적 차이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침략 행위에 대한 어떠한 타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사상을 포함한 모든 사회주의 사상의 위대한 힘을 더욱 소리 높이 국제 무대에서 자랑하여야 하며 식민주의와 침략에 대한 무자비한 투쟁——군사적 수단의 사용

까지를 포함한 투쟁을 세계에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애급에 대한 영 불 군대의 침략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군과 해군을 동원할 것을 미국에 제기한 쏘련의 제의가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들의 환호를 받은 것은 그것이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거대한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쏘베트 민주주의가 그 발생에서부터 四〇년의 력사를 통한 찬란한 경험으로써 보여 준 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각 민족의 근로자들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자기 민족의 독자성을 보존하면서 계급적 리익을 공통으로 하는 다른 민족 근로자들과 친선 단결을 공고히 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통일되여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계급적 단결과 단합을 생명으로 하는 로동 계급의 민주주의로서는 이와 달리는 될 수 없다。 더구나 오늘날 사회주의가 세계적 체계로 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 일련의 비사회주의적 평화 애호 국가들이 광대한 「평화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는 평화 력량 강화에 더욱 더 큰 역할을 논다。 적대와 반목이 있을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적 단결의 강화 없이 전체 평화 력량의 강화를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시쓰트 세력을 반대하는 웽그리야 인민을 원조하기 위하여 쏘련 군대가 동원된 것이야 말로 실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표현인 것이다。

* *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적 창조물로서 맑스—레닌주의 당의 현명한 정책들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정비、 강화、 개선、 확장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생활과 감정 속에서 더욱 더 화려하게 꽃피여 가고 있다。 그것은 당에 의하여 향도되는 인민 대중의 력량이 강하여지는 데 따라 그 위력을 더욱 더 높이 발휘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승리적 전진 속에서 우리는 현 시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발광적 책동을 감행하는 팟쇼 악당들이 심지어는 인민들의 정당한 민주주의적 요구까지를 리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믿는 나머지 자만하여 민주주의의 가일층의 발양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데 등한한 것이 얼마나 죄악적인가를 말하여 주며 다른 편으로는 웅당한 조직에서 토론될 민주주의의 확장에 관한 의견을 가두에서 이러쿵 저러쿵 제멋대로 짓거리는 것이 반동 분자들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파괴에 아주 교묘하게 리용된다는 것이다。 웽그리야의 교훈은 우리에

게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무한한 우월성이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멸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더욱 다면적인 리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르죠아 민주주의는 력사적 산물이며 자기의 일정한 력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맑스와 레닌은 그것을 그 력사적 한계에서 최대한으로 리용할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교시하였다。 오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당과 정부들、 그리고 자본주의 나라들의 공산당들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부르죠아 민주주의의 이러저러한 력량들과 협조를 강화 리용하는 형식들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있는 바 그것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위업 달성에 있어서 남반부에 있는 일체 애국적 민주 력량까지 포함하여 광범한 통일 전선을 강화하고 남반부에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각종 형태로 실현하기 위하여、 또한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회의의 소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위력의 명백한 표현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는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이다

고 화 영

현하 국제 정세 발전상의 중요한 특징은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와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를 위한 전체 진보적 인류의 적극적인 투쟁의 강화이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강유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자기의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되였고 일찌기 인류 력사에서 보지 못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를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공고화되여 가는 친선 관계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적 체계로 전환된 력사적 사실과 함께 우리 시대의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그는 평화와 민주、 사회주의와 진보를 위한 위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제국주의 반동은 사회주의 세계의 단결과 그의 제성과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장성、그리고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평화를 반대하고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며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을 반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단결을 중상 비방하여 사회주의 진영내에 불화의 쐐기를 박아 그를 분렬시키려고 하는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설정된 친선 단결과 우의적 협조는 오늘 그의 불패의 위력을 어느 때보다도 더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 * *

사회주의 진영의 출현과 함께 발생 발전해 온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는 지배와 복종、 략탈과 착취

를 일삼는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평등、 독립과 자유의 호상 존중에 기초한 형제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이다。

이 새로운 국제 관계는 그의 사상적 기초를 맑스—레닌주의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두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로동 계급의 이데올로기이며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을 지향하는 계급적 념원의 표현이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과 친선、 그리고 호상 협조의 지향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조건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 속에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의 국제적 통일은 그들의 경제적 조건 및 사회 생산 체계에서의 그들의 위치와 공통적인 계급적 리해 관계에서 나왔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자들의 혁명적 투쟁의 장성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그는 오늘날 이미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 점차 이행하고 있는 쏘련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와 그들 간의 국제 관계에서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되였다。

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는 매개 국가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이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공고히 함에 있어서 강유력한 담보로 되는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가 설정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과 협조는 그 근원을 그들의 이데올로기의 공통성에만 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경제 제도의 동형에도 두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국가 주권이 인민의 수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이며 민족적 압박과 착취의 근절과 민족적 자결권의 존중은 이들 국가간의 관계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정해 준다。 바로 여기에 협조와 친선、 호상 원조의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의 객관적 조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사회주의이야 말로 인민들과 민족들을 접근시킨다고 가르치고 있는 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창설과 사회주의의 기본 경제 법칙의 발생과 작용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를 더욱 두텁게 하였으며 화목스러운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룩케 한다。

위대한 맑스와 엥겔스는 이것을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한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착취가 근절되는 그 정도로 한 민족에 의한 다른 민족의 착취도 근절될 것이다。 민족내에서의 제 계급의 적대가 없어짐과 아울러 민족들 호상간의 적대적 관계도 없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공통적인 사상、 공통적인 형의 사회—경제 제도、 그리고 공통적인 목적에 의하여 설정된 새로운

국제 관계에는 자본주의 세계의 국제 관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상용적 모순이 있을 수 없으며 평등적인 호상 협조와 원조 외의 어떠한 다른 관계도 있을 수 없다。 이 국가들은 모두 자주적인 나라로서 자기 인민의 리익에 복종하는 자주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진영의 리익과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합치되며 오히려 그를 공고하게 한다。

사회주의 진영내 매개 국가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은 그들 간의 밀접한 정치、경제 및 문화적 친선 협조와 긴밀한 련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 매개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발전의 유일한 길에서 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자립성을 보존하지만 이것은 이들 국가들 간의 친선과 협조 및 호상 단결을 전제로 한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밀접한 친선과 협조는 이 국가들이 자기 나라 특성에 알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속한 시일내에、위대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조건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평화 정책의 실시와 침략을 반대하는 사업에서 단합하게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 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유와 호상 존중의 형제적 협조의 원칙에 립각하였으나 이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과 오유들도 없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 관계에는 사상、목적、사회—경제 체계와 리해 관계들이 동일하며 대립될 불상용적 모순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난관들과 오유들이 있다고 해도 호상 리해의 정신 밑에 이를 능히 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 결정은 민족 정책에 있어서의 레닌적 원칙을 준수하며 난점들과 오유들을 결정적으로 시정할 것을 호소하면서 국제주의 사상에 립각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친선 협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一〇월 三〇일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의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대한 쏘련 정부의 선언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국제 관계의 발전상 중요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특히 쏘련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의 쐐기를 박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에 또 하나의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금번 一一월 一五일부터 一八일까지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파란과 쏘련간의 회담과 一一월 二六일부터 一二월 三일까지 진행된 루마니야와 쏘련간의 회담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며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국제 관계 발전상 기본으로 되는 완전한 평등과 호상 원조의 원칙의 새로운 구체적인 표현으로 되며 그의 위력한 시위이다。

쏘련—파란 회담에 관한 성명서는『우리 국가들 간의 관계를 인민들의 평등권에 대한 레닌적 원칙 우에서 설정할 것』과『쏘련과 파란 인민 공화국간의 협조의 원칙의 철저한 실현이 량국간 동맹의 가일층 강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구라파 평화의 공고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리하여 자주적인 대내외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 제국은 동일한 사회주의 진영의 구성 부분으로 합의와 친선의 정신 밑에 단합된 대렬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의 적들에 대치함으로써 전 국제적 생활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위대한 쏘련과 중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치 단결은 세계 평화 사업과 인류 진보의 가장 귀중한 기둥으로 된다。

* * *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그들의 전반적 생활면 즉 경제、정치 및 문화 생활면들을 포괄하는 바 거기에서도 경제적 협조는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국가들과 인민들 간의 호상 관계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사상과 목적의 동일성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경제적 협조가 안받침되여야만 견고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는 사회주의 세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적、정신적 자원들을 보다 훌륭하게 보다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리용하여 매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체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를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는 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주의 세계에서 인민들이 경제적으로 단합하는 경향과 인민들이 자기의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경향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의 민족적 해방과 완전한 평등에 기초한 우의적 친선 협조와의 통일된 한 과정의 량면을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체계에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생산 방식과 인민 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 법칙의 요구에 의하여 형제적 국가들의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균형과 호상 호혜의 원칙에 립각한 사회주의 세계 분업이 있게 된다。 이 사회주의 세계 분업은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협조의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 체계에 속하고 있는 국가들은 사회주의 세계 분업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의 발전 템포를 빠르게 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매개 국

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산에 특별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한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세계 분업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협조와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합의는 경제적으로 락후한 국가들을 선진적 수준에까지 급속히 제고시키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인민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숙청과 후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의 특성은 그의 계획성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하며 그들의 경제적 통일 전선에서의 계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一九四九년에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완전한 평등에 기초한 경제적 호상 원조 위원회가 조직되였다。 이 경제적 호상 원조 위원회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한 합의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계획에 대한 합의와 경제적 협조 및 그 발전의 수단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된 장기적 경제 조약들이다。

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된 경제 조약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된 경제 조약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대 소 민족들 간에 체결된 경제 조약들은 지배와 예속、 침략과 략탈、 기만과 강압에 기초하고 있으며 불평등한 원칙에서 있다。 그의 실례로서는 一九五六년 一一월 二八일에 미국과 리 승만 간에 체결된 매국적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내국민 대우』이니 『최혜 국민 대우』이니 하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강대한 미국 독점 자본가들 일방에게만 완전하고 무제한한 권리를 부여하고 반면에 타방에는 예속과 무권리를 공공연하게 선포하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략적이며 매국 배족적인 『조약』이 전체 조선 인민들의 격분에 찬 반대에 봉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된 경제 조약은 완전한 평등、 호상 호혜와 호상 원조의 원칙 우에서 있다。 一九四九년 三월 一七일에 체결된 우리 공화국과 쏘련간의 경제 협정은 산 실례로 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완전한 평등적 원칙에 립각하여 호상 원조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이러한 대소 국가간에 맺은 평등적인 협정은 우리 조선 력사에서 일찌기 그 례를 보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이 협정의 기초 우에서 쏘련과의 경제 협조를 강화하였고 특히 一〇억 루블리의 무상 원조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三년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였던 산업을 급속한 시일내에 부흥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공장、 탄광、 광산 등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였다。 쏘련은 우리 조선 인민에게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기초를 건설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기계、 기구、 철、 원료들을 제공하여 준다。 이와 동시에 금년 여름에 있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쏘련 방문과 우리 나라에 주는 추가적 쏘련 원조는 량국간의 경제적 협조를 가일층 강화하며 친선을 더욱 두텁게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설정된 옳은 경제 관계에 의하여 매개 사회주의 국가는 생산품의 생산고를 점점 높이며 합리적으로 기계、 기구들을 리용하며 원료와 자재에 대한 경제적인 소비를 기할 수 있는 바 매개 국가들은 서로 원조하면서 자신의 물자와 내부적 요구와 동시에 전 사회주의 시장의 요구를 잘 고려하여 자기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나 첫째가는 형태는 대외 무역이다。 이를 통하여 각국들은 자기 나라에 없거나 부족되는 물품은 수입하고 다른 나라에 필요한 물품은 수출하고 있다。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대외 무역이 왕성하고 확장하여 감은 사회주의 세계 시장이 발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대외 무역은 독점 자본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기 때문에 지배와 예속、 경제적 침략과 략탈의 도구로 되고 있다。 불평등적 교환、 강압과 기만이 자본주의 세계의 대외 무역의 기본으로 되여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계의 대외 무역은 사회주의 국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민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복무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상품 교류가 대단한 속도로 부단히 확장되여 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례컨대 一九四八년으로부터 一九五二년까지의 짧은 기간에만 하여도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상품 교류는 三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상품 교류가 저하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전반적 상품 류통은 二배로 증가되였다。 一九五三년에는 一九五二년에 비하여 약一五% 증가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나라는 선진적 공업을 창설해 놓은 쏘련이다。 一九五六년 초까지의 통계에 의한다면 체결된 협정들에 의하여 쏘련이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三九一개 산업 기업소와 九〇개 이상의 째흐들의 건설에 방조를 주었으며 이 원조의 결과로 一년간에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발전소들은 그 마력을 五四〇만 키로 왓트 이상이나 증가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석유 공장들에서는 四〇〇만톤 이상

의 석유 제품들을 보장할 수 있게 되였으며 강철 기업소들에서는 강철 생산을 九〇〇만톤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대외 무역 총액은 一九五〇년의 一〇六억 루블리로부터 一九五五년에는 一九五억 루블리로 장성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호상간의 차관이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우선 자기의 부원들과 축적들에 의거하면서 차관의 형식으로 쏘련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다. 一九五六년 초까지 쏘련이 가장 호혜로운 조건으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제공한 차관 총액은 二一〇억 루블리나 된다.

최근 파란—쏘련간의 회담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쏘련 정부가 一九五七년도에 一백 四〇만톤의 곡물을 차관에 기초하여 파란에 공급하는 것과 七억 루블리의 장기 차관을 파란에 제공할 데 대한 결정은 파란의 산업 발전과 경제 발전, 그리고 인민 생활 수준 제고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파란과 쏘련과 그리고 사회주의 제국과의 친선 협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주의적 재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적 협조이다.

이 부문에서도 역시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 주는 쏘련의 원조는 크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제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쏘련의 과학—기술적 방조를 받지 않은 부문은 없다. 쏘련의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에서는 전에 없거나 적게 있던 새로운 산업 부문들이 창설되였는 바 례를 든다면 파란에서는 자동차—뜨락또르 생산, 조선업, 기계 공업과 화학 공업이 창설되였으며 볼가리야에서는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기계 공업, 조선업, 화학 공업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알바니야에서는 직조 공업과 사탕 공장을 가지게 되였다.

과학—기술적 협조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一九五六년 三월 모쓰크바에서의 합동적 핵 연구소를 창설할 데 관한 협약 체결이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모든 과학 기술을 다하여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있다. 이것은 또 다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장성하는 협조와 그들의 호상 신임과 형제적 친선을 가일층 강화하려는 지향을 말하여 준다.

* * *

새로운 형의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적 협조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주의적 국가들의 정치적 협조 관계는 자본주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국제 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이다.

사회—경제 제도의 본질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과 대외 관계는 착취 계급에게 복종되고 있으며 제 민족과 인민들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강압과 기만을 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협조는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 그리고 자본 투자권을 위한 신랄한 쟁탈전을 내포하고 있으며 약소 민족들을 각종 방법으로 예속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실시하고 있는 대외 정책과 대외 관계는 그의 사회—경제 제도의 본질에 의하여 전연 새로운 형의 것이며 질적으로 상이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며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근원을 근절하기 때문에 전쟁에 관심을 두거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애쓰는 계급과 구루빠들이 없으며 전쟁에서 폭리를 획득하려는 착취 계급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과 대외 관계는 평화와 친선과 협조의 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이것을 예견하고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광란을 수반하는 낡은 사회와 대립하여 하나의 새 사회가 탄생하면서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회의 국제적 원칙은 평화일 것이다. 왜냐 하면 매개 인민에게 동일한 통치자인 로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맑스 엥겔스 선집, 제一권 제二분책 二三八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새로운 국제 관계는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체결된 제 조약으로써 형성되였으며 공고화되였다. 이 조약들은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의 중요한 한 표현이며 이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제국은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서의 호상 친선 협조를 발전 강화하고 있다.

그의 한 실례로서 一九五五년 五월에 체결된 와르샤와 조약을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실현하며 재무장한 서부 독일을 북대서양 동맹과 『서구라파 동맹』에 인입케 하는 미제를 괴수로한 서구 제국주의 렬강의 침략 정책에 대치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조건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를 회복해 보려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수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와르샤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친선, 동맹 및 호상 원조의 와르샤와 조약은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의 새롭고 빛나는 구현이다. 이 조약에 참가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경제적 문화적 련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친선과 협조의 정신 밑에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였고 독립과 주권을 호상 존중하며 내정에 대한 불간섭의 제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조약은 제국주의적 뿔력과 같은 침략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평화를 애호하며 방위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조약에는 어떠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를 물론하고 그가 진실히 평화를 념원하고 구라파 방위 체계를 창설할 것을 희망하여 가입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져 있으며 또한 만약에 전 구라파적인 공동적 방위 체계가 확립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은 폐기된다는 사실들과 유엔 헌장에 충실하다는 것들은 이 조약이 방위적이고 평화 애호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국제 긴장 상태를 첨예하게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책동과 뿔력 정책과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을 위한 책동들은 와르샤와 조약의 참가국들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는 적합한 방위적인 대책들을 취하게 하였는 바 一九五六년 一월에 쁘라가에서 소집된 와르샤와 참가국 정치 협상 위원회는 참가국들의 합동 사령부에 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고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의 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을 결정하였다. 이는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군사적 협조상 중요한 기본으로 된다.

조약에 근거하여 조약 참가국들은『자국 인민들의 평화적 로동을 보위하며 자국 국경과 령토의 불가침을 보장하며 있을 수 있는 침략으로부터의 방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 국방력을 강화함에 필요한 합의된 조치들』을 강구할 의무를 포함한 해당한 정치 및 군사적 의무들을 졌다.

이 조약과 기타 조약에 충직한 쏘련은 웽그리야, 루마니야, 파란 공화국에 자기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의 호상 안전을 보장하는 통일 전선의 제일선에 나섰던 것이다.

一○월 三○일부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의 발전 및 그 가일층의 강화의 기본에 관한 쏘련 정부의 선언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쏘련 정부는 와르샤와 조약에 참가한 이러 저러한 국가의 군대들이 와르샤와 조약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령토에 주둔하는 것이 그 전체 참가국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그리고 해당 국가의 요청에 따라 그 령토상에 상기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거나 또는 주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동의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일반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 원칙은 웽그리야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표현되였다. 여기에 있어서 쏘련 정부는 자기의 一○월 三○일부 선언에서 그가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주권과 령토 완전을 존경하며

웽그리야 및 다른 국가에 쏘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과 회담을 다시 개시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이는 쏘련이 조금이라도 령토적 야심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여 준다.

또한 와르샤와 조약과 웽그리야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쏘련은 웽그리야 반혁명 분자들과 퐛쇼 도당들의 폭동을 반대하는 웽그리야 인민들에게 형제적 방조를 주었다. 이는 와르샤와 조약의 정신과 쏘련의 이에 대한 충실성을 시위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 국제주의 사상의 훌륭한 실현이며 동시에 새로운 형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협조의 구체적인 모범이다.

이는 곧 웽그리야의 독립과 인민의 장래와 나아가서는 구라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물리쳤기 때문에 웽그리야 국가 주권과 독립의 호위이며 인민들이 一○년간 쟁취해 놓은 사회주의적 성과의 방위이며 퐛쇼 재생과 전쟁 온상을 숙청하는 평화 애호에 대한 훌룽한 행동이다. 이는 사회주의적 전취물에 대한 어떠한 침범적 행위이라도 허용치 않으며 그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과 새로운 국제 관계의 형제적 원조의 위대성을 시위한다.

쏘련, 중국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화적 공존의 레닌적 원칙에 립각한 대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적 립장을 공고히 하며 전 국제 생활에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참말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 협조 관계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 지대의 축성이 가능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은 평화와 안전의 강력한 성새로 될 수 있었다.

쏘련 정부의 평화 정책은 전체 사회주의 제국의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 밑에 현 국제 생활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국제적 과업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논다. 군비 축소를 위한 쏘련의 꾸준한 투쟁을 비롯하여 오지리와의 조약 체결, 쏘련과 유고슬라비야 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의 설정, 제네바 수뇌자 회의에서『제네바 정신』의 확립 및 영 불과의 회담 등은 이를 증명해 주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구라파 안전 사업에 막대한 공훈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화 인민 공화국과 인도 공화국이 선언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평화적 공존에 대한 五개 원칙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열린 반둥 회의는 평화의 공고화 사업과 국제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사회주의 진영의 위업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이 놓고 있는 역할과 공헌이 얼마나 거대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놓고 있는 역할과 그의 장래 발전에 주는 영향은 막대한 바 이들 국가들이 유엔 및 다른 국제 회의에서 또는 다른 국제 기구에서

평화와 국제 긴장 상태 완화를 위한 투쟁은 커다란 자극을 전체 인민들의 국제 생활에 주고 있다.

이 장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끊임 없는 노력에 의하여 최근에는 국제 긴장 상태의 현저한 완화를 보게 되였고 전반적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더욱 유리한 전망이 조성되였다. 그러나 이것을 원치 않으며 국제 긴장 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격화하려는 미、영、불 제국주의 침략층들은 금번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애급 인민을 반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침략자들이 애급을 반대하여 도전한 목적은 첫째로 근동 및 중동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장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둘째로 국제 긴장 상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랭전』 정책에 다시 돌아 가기 위하여서이며、세째로는 세계 대전을 도발하여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적 운동을 제지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타협하거나 묵인할 수는 도저히 없었으며 침략자들을 규탄하는 인민적 반침략 운동과 평화 투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침략과 전쟁 세력을 반대하는 평화 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여러 방면에 걸치는 원조를 애급 인민에게 줌으로써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 전선을 취하였으며 자기들의 단결을 시위하면서 침략자들에게 결정적 반격을 주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향은 二월 八일부 쏘련—파란 회담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도 나타났다. 쌍방은 『애급을 반대하는 침략이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많은 인명의 희생과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 주고 쏘련과 파란을 포함한 국제적 항행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수에즈 운하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며 동시에 근동과 세계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이와 같은 공격을 규탄한다. 량 대표단은 전쟁을 도발한 국가들이 유엔 결정에 립각하여 애급 령토로부터 자기 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성명한다. 쏘련과 파란은 애급의 정당한 요구에 백방으로 지지를 줄 것이다』.

평화 정책은 사회주의 진영의 큰 도덕적 자본인 바 이것은 사회주의 진영이 전쟁 방화자들과 침략자들의 음흉한 획책들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성새라는 사실에서도 설명되였다. 지금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상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대중을 파악하게 된 이 평화 사상은 유력한 물질적 힘으로 전환되였다. 진정한 평화의 달성이야 말로 전체 진보적 인류의 숙망인 것이다.

우리 시대의 대호흡과 합류되여 있는 사회주의 국가

들 간의 새로운 국제 관계는 인민들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단결시키는 담보로 되며 인민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조건하에서 창조적인 로동을 할 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닥쳐왔을 때에는 침략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게끔 준비하게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국제 관계는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확고 부동하며 유력하다.

＊ ＊ ＊

오늘 우리 조선 인민 앞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하며 사회주의 기초를 구축하는 력사적인 과업들이 제기되여 있다. 이러한 력사적 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담보의 하나로 되는 것은 조선 인민들의 창조적 로력과 함께 쏘련、중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이다.

특히 최근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각종 도발 행위와 때를 같이 하여 리 승만 역도들이 미제의 사촉하에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허위적인 비방과 『북진 전쟁』을 발광적으로 고창하고 있는 국제 국내 정세하에서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를 더욱 견실히 고수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최선두에 서 있으며 우리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은인인 위대한 쏘련과 조선 인민과의 확고한 친선 협조 관계는 실 생활 속에서 발전되였으며 강화되였다. 제국주의 반동의 원흉인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 승만 도당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이 위대한 쏘련과 같은 세계 강국을 자기의 동맹자로 가지고 있는 것은 민족적 독립을 고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또한 자기의 운명을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인민들과 밀접히 련결시키고 있는 우리 조선 인민은 그들과의 프로레타리 국제주의 친선 단결이 자기의 정의의 투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믿음직한 담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세계 혁명의 강유력한 근거지인 쏘련과 사회주의 진영을 견결히 지지 옹호하기에 항상 준비되여 있으며 또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류통 부문에서 계획화 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 언 수

우리 나라의 인민 민주주의 경제 체계하에서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소비품의 공급은 주로 상품 류통의 형태로써 실현되고 있다.

상품 류통은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관련하여 장성하는 생산을 주민들의 증대되는 소비와 련결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생산에 대한 부단한 자극을 준다.

생산과 소비의 련결의 실현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상품 류통 사업은 사회 제도의 성격 여하에 따라 그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는 계급적 모순을 내포하는 만큼 그 경제적 련결 형태로서의 상품 류통은 도시 측의 리윤 획득을 위한 착취의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중요 생산 수단이 국가적, 전 인민적 소유로 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는 도시 근로자들과 근로 농민과의 호상 신뢰와 협조에 기초한 경제적 동맹을 표현하는 바 상품 류통은 이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는 八·一五 해방 이후 사회 발전 행정에서 새로 조성된 생산 관계와 경제적 제 조건에 기초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새로운 경제적 련계가 조성되였는 바 도시는 농촌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로동 계급은 농민들의 생산 및 생활에 방조를 주며 농촌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도시에 대한 적대시와 불신임은 사라지고 도시와 농촌간에는 새로운 협조와 우의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각이한 소유 형태가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호상 련계는 상품 생산, 상품 류통을 통한 교환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며 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함으로써만 인민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품 류통 사업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다.

상품 류통 사업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인 판매 사업은 생산과 소비간의 호상 련결을 강화하면서 수요자의 립장을 대표하여 상품 품종의 확대, 상품의 질 제고, 새로운 상품 생산을 추동하는 방향에서 생산에 대한 반작용을 수행하며 생산된 상품을 계획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상품 회전 속도를 제고하며 나아가서는 확대 재생산의 속도를 촉진한다.

이렇듯 상품 류통 사업은 인민 경제 발전 및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품 류통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가 제기한 정치 경제적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기에 소비품 생산 공급을 원활히 보장함으로써 인민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류통 사업의 계획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며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강화하며 인민 생활의 급속한 개선 향상을 보장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상품 류통 계획은 인민 경제 계획의 한 구성 부문으로서 다른 인민 경제 부문, 특히 소비품 생산에 대한 공업 생산 프로그람마와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그리고 농촌 경리 발전 계획, 화물 수송 및 화폐 류통 계획과도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사실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류통의 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화폐 류통 계획은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주민의 구매 폰드의 규모를 규정하는 중요 조건의 하나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 경제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 류통 계획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인민 경제 복구 발전 三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기초하여 전쟁에 의하여 심대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의 생활 형편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후 시기에 중요 생활 필수품의 인구 一인당 공급량이 계속 장성되는 것으로써 표현되고 있다.

중요 생활 필수품 주민一인당 공급량 장성표

품명	一九五四년	一九五五년
식료품		
소금	一〇〇	一二五・九
간장	一〇〇	一四七・一
된장	一〇〇	一六九・三
소채	一〇〇	一八〇・〇
과실	一〇〇	二三〇・〇
수산물	一〇〇	一八二・八
비식료품		
면직물	一〇〇	一一四・三
견직물	一〇〇	一一六・七
양말	一〇〇	一五一・一
고무신	一〇〇	一二四・三
담배	一〇〇	一〇八・三
성냥	一〇〇	一二五・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성과적 수행은 국민 소득의 장성과 아울러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현저히 증대시키고 있는 바 이러한 현실적 조건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보다 다종 다양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적응하게 보다 많은 다양한 식료품들과 공업 상품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상품 생산의 확대는 국내 생산력 발전 수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는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며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적으로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저하된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의 경제 정책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객관적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타산한 기초 우에서 자기의 경제 정책을 수행하면서 인민들의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보다 원만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적 공간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 상업을 리용하며 그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품 류통의 계획화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 생산의 확대와 아울러 류통 부문에서의 계획화 수준의 제고——이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 상업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품 생산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지도하에 전체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급속

히 장성 발전되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 一九五五년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二・三배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一九四九년 수준을 五六%로 릉가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바 평남 관개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의 관개 시설 공사들이 진행됨으로써 一九五四년 및 一九五五년 二년간에 경지 면적은 三만 七천 七백여 정보가 더 확장되였으며 정전후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변으로 되는 농업 협동화 운동이 계속 앙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후 시기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에서 달성한 성과들과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의 경제적 원조와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에 의하여 상품 생산이 현저히 확대되고 근로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바 一九五五년도 국민 소득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六〇%、전쟁전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一一一%로 장성되였다。

전후 시기에 五차에 걸쳐 실시된 대중 소비품에 대한 물가 인하로 말미암아 一九五五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물가 수준은 一九五三년에 비하여 四〇%나 저하되였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얻은 리득은 거액에 달하고 있다。

물가 인하와 아울러 공화국 내각에서는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과 군무자、내무원들의 현행 기본 임금(一九五四년 내각 결정 제三一호에 의한 가급금 포함)을 一九五六년 一一월 一일부터 평균 三五%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로동자、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현저히 장성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서도 적지 않은 배려를 돌려 왔다。

전후 시기에만 하여도 당과 정부는 농민들에게 六三만 五천 여 톤의 현물세와 대여곡의 미납량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一八만 五천 여 톤의 식량、종곡의 대여、거액의 융자적 방조 등 물질적 방조를 주었으며 현물세 비률을 현저히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시종 일관한 시책에 의하여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는 계속 장성됨으로써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소매 상품 류통액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一九五五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소매 상품 류통액은 一九四九년에 비하여 一七〇%、一九五三년에 비하여 一二七%로 장성되였으며 一九五六년 상반년에는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비하여 一一六%로 장성되였다。

소매 상품 류통에 있어서 중요 식료품 및 비식료품의 류통량의 장성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품 명	一九五三년	一九五四년	一九五五년
간 장	一〇〇%	二一四%	三〇一%

된장	一〇〇	一八九	五二八
수산물	一〇〇	二七八	四二一
소채	一〇〇	一九六	四〇二
소금	一〇〇	一〇四	一四四
면직물	一〇〇	一五〇	一八五
견직물	一〇〇	一〇〇	一五七
내의류	一〇〇	一〇〇	一二〇
신발류	一〇〇	一〇七	一八七

그리고 一九五六년 상반년의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망에서 판매된 중요 품종 및 그 판매량의 장성을 보면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비하여 백미는 一九%、잡곡은 一六%、 면직물은 一九%、견직물은 九〇%、 내의류 二七%、양말 三九%、문방구 九八%가 각각 장성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상품 류통이 확대되고 인민들의 구매력이 장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상품 류통은 이와 같이 전후 인민 경제 전 령역에서 달성된 성과와 특히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성분이 장성 공고화됨에 따라 더욱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시장에서 조직 시장은 결정적 역할을 놓고 있으며 그것은 총 상품 류통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一九四九년도에 우리 나라 총·상품 류통액 중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소매 상품 류통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五六·五%였다면 一九五五년에 그의 비중은 八四·六%로 장성되였다。

이제 그의 년도별 변동 정형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표	一九四九	一九五三	一九五四	一九五五
총액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一〇〇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	五六·五	六七·五	七一·九	八四·六
그중 국영 상업	二七·九	三二·〇	三九·一	五〇·六
협동 단체 상업	二八·六	三五·五	三二·八	三四·〇
개인 상업	四三·五	三二·五	二八·一	一五·四

우리 나라 상업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과 정부의 옳바른 령도하에 비조직 시장에 대한 상업적 활동을 통하여 그를 리용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속 강화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는 물가 인하、 로임 인상 등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품 생산을 더욱 확대하며 그를 원만히 공급 보장하기 위한 상품 류통 사업을 개선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다종 다양한 상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생산물의 확대 재생산을 촉진시켜야 하는 바 그의 물질적 기초는 오직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이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강력한 중공업을 창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 및 농촌 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인민 생활 필수품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제三차 대회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면서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화의 제一단계를 완성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고히 축성하며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완성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는 바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면서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선 및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농업 및 경공업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계속 제고시킬 광활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중공업은 인민 경제의 기간으로서 그의 발전이 없이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는 제一차 五개년 계획 기간에 금속 기계、 전기、 석탄、 화학、 건재 공업 등 중요 부문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그의 생산을 확장하며 공작 기계를 비롯한 광산 기계、 건설 기계、 농기계、 선박들의 생산과 그의 품종을 현저히 확장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경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격한 장성을 예견하고 있는 바 一九六一년에 가서는 一九五六년에 비하여 각종 직물류 생산은 一·五배～二배、 각종 신발류는 공화국 북반부 주민 一인당 약 二·四족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보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을 현저히 증대시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 생산과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현물 및 화페 수입이 현저히 장성될 것이며 국영 소매 가격의 계통적인 인하 정책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과 근로 농민들의 실질 수입은 현저히 증가될 것인 바 이것은 상품 류통을 현저히 장성시켜야 할 과업을 우리 앞에 제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공업 상품과 식료품에 대한 배급제를 철페하기 위한 제 조건을 조성하며

로동 공급 사업과 사회 급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 수행을 위하여서는 식료품, 진발류, 직물류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의 생산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품 류통량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는 바 여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상품 류통의 계획화 수준을 가일층 제고하는 문제이다. 상품 류통 계획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상업의 역할을 제고하며 주민들의 지불·능력 있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킴으로써 인민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류통 부문의 계획 사업은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 가능성들과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기호와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의 품종과 질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류통 부문 사업에 존재하는 기본적 결함은 무엇보다도 계획을 지역별로 또 지표별로 균형성 있게 원만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에서의 문화성과 주민들에 대한 봉사성이 아직도 불만족한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상품 류통을 량적으로만 장성시키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과 정부의 상업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방법을 확립하며 류통 부문의 계획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상업망들을 주민들에 접근시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상점에 상비시키며 중요 생활 필수품들의 품절, 체화, 편재 현상들이 없도록 사업에서의 결함을 제때에 퇴치 시정하도록 사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질 좋은 상품을 제때에 인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상업에서의 문화성과 보다 높은 봉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류통 부문에서의 계획화 사업은 이러한 것을 고려에 두어야 하며 그의 동원적 역할을 충분히 발양할 수 있도록 예견성 있게 수립되여야 한다.

류통 부문에서 계획 사업이 정확히 추진됨으로써만 우리는 상품의 공급 체계를 통하여 상품의 정확한 공급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과의 유기적 련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상업 활동을 기동성있게 조직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로동자 지구에서의 상업 활동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상품 류통 계획 사업을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점차로 배급 제도의 폐지를 예견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직장 상점의 역할을

현저히 제고시켜 근로자들의 생활상 필요한 일체 상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직장 상점에 질이 좋고 값이 저렴한 상품들을 더 많이 상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사회 급양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당을 문화적으로 대중화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류통 부문 일꾼들은 근로자들이 자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노력이 덜 들고 값이 눅은 음식물을 구비함으로써 그들이 광범히 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식당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식당망의 확장, 기존 식당의 문화 위생적 설비의 확장, 식사 료리의 질 제고, 원자재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급 제도의 확립 등 식당 경영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식사 료리의 원가를 결정적으로 저하시켜야 할 것이다.

이외에 우리 상업 앞에는 당의 상업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여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정확히 계산하여 상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한 온갖 대책을 강구하며 상품의 정확한 배정, 상업망의 전문화, 개인 상공업에 대한 정확한 지도 대책, 상품 소매 가격의 정확한 제정 등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 과업들이 나서고 있다.

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류통 부문에서 정확한 계획화가 보장되여야 한다.

류통 부문에서의 계획을 정확히 수립한다는 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혁명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인민 생활의 개선 향상을 위한 소비품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상품 류통 계획에 과학적으로 정확히 반영시키는 문제는 당의 경제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대한 과학적 예견——이것은 류통 부문 계획화에서의 중심 고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 경제 법칙들을 인식한 기초 우에서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성숙된 요구와 경제적 제 조건을 옳게 타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민 경제 계획화의 유기적 구성 부분으로서의 상업 계획 작성 사업에는 지난 기간에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이 존재하였었다.

류통 부문의 일부 계획 일꾼들은 주민들의 정확한 지불 능력 있는 수요, 지역별 자연 지리적 조건, 공업과 농업 생산의 실태, 정확한 주민 수와 그의 구성 등 상품 류통 계획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계통적으로 정확하게 체계화하지 못하였으며 계획 작성을 주민들의 정확한 구매 폰드에 의거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과거의 불합리한 실적이나 경험에 매달려 하부 실정을 조사 연구하지 않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관료주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결과에 상업 기관별 또는 지역간에 있어서 계획 수행상 심한 불균형성을 조성하게 되였다.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상품 교류를 도시에 편중시킴으로써 계획 실행에서 도시 주민 一인당 판매 실적과 농촌 주민 一인당 판매 실적간의 관계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불균형을 보여 주었다.

여기에 있어서 도시의 상품 류통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농촌 구매력이 도시에로 이동되여 상품 류통 실적에 반영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 상품 류통의 기본 과업은 주민들에게 인민 소비품을 기동성있게 균형적으로 제때에 원만히 공급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한편으로는 공업 및 농업 생산 계획 또는 수송 계획과도 련결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구매 폰드와 밀접히 련결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소매 상품 류통은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과 개인 상업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은 국가의 유일적 인민 경제 계획에 의하여 조직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인 상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비조직 시장을 여루고 였으다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가고 있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은 우리 나라 시장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민 경제 계획화에서의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별, 도별로 작성되여 내각 비준하에 실시된다.

그러므로 류통 부문 계획에서 기본적인 것은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이며 여기에서 전국적 소매 상품 류통 총 규모와 상업 기관별, 지역별(도별)로 그의 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품 류통 규모의 정확성은 주민의 구매 폰드, 즉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정확한 타산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폰드의 정확한 타산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주민의 구매 폰드는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의 하나이다. 주민의 구매 폰드를 정확히 계산하는 문제는 상품 류통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민의 구매 폰드 범위는 구매자들의 화폐 수지 발란스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는 로동력 발란스, 현물 발란스 및 가치 발란스의 중요 내용으로 구성된 인민 경제 발란스의 한 부분을 이룬다.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는 국가의 종합적 재정 계

획중에서 현금 실현 부문만을 계산하는 가치 발란스이다.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는 해당 계획 기간에 있어서 인민 경제 계획 및 국가 예산의 제 지표들과 일련의 경제적 계산들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그루빠별 수입의 원천, 주민의 총 화폐 수입과 주민의 총 화폐 지출을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 수지 발란스의 정확한 작성은 주민의 구매력을 정확히 타산함으로써 화폐 류통의 계획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자료를 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상품 류통 계획을 정확히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렇듯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는 상품 류통 계획 작성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기초 자료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화폐 수지 발란스 작성 사업에는 적지 않은 부족점들과 응당 타산되여야 할 많은 점들이 타산되지 못하였었다. 그것은 우선 지난 기간 주민의 그루빠별 화폐 수지에 대한 세밀한 계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부터 출발하여 도시와 농촌의 구매력 타산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또 도시와 농촌별 상품 류통 계획 작성에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계획 실행에서의 지역별 불균형성과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극심한 불균형성을 초래케 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농촌 지대에 응당 배정되여야 할 상품이 도시에 집중됨으로써 농촌 구매력이 도시에서 실현된 사실이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농민들은 자기들의 협동 기관인 소비 조합 상업을 리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자기들의 생활 필수품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주민의 구매 폰드를 계산함에 있어서 긴급히 시정하여야 할 문제는 과거의 국가 및 협동 단체 기관으로부터의 화폐 수입과 지출만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현상을 퇴치하고 주민 호상간의 상품 매매 및 주민의 한 그루빠로부터 다른 그루빠간에 이루어지는 우수루가의 댓가로서의 화폐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을 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계비를 세밀히 조사하는 문제이다.

국영 상업 및 소비 조합 기관이 농민으로부터 그들의 상품 생산량의 전량을 수매하여 도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현 조건하에서 생산 지대와 비생산 지대간의 주민 호상간의 상품 매매가 실현되며 따라서 화폐가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또 도시로부터 농촌에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구매 폰드 규정에서 비조직 시장에서의 상품 매매 관계와 로동자, 사무원 및 농민들의 생계비 조사 자료들을 더욱 광범히 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현재 상품 류통 계획 작성에서 주민의 화폐 수입 및 지출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화폐 수입(국가 및 협동 단체 기관으로부터)

一、로임 二、농산물 판매 수입、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 기관에 대한 판매、수매 량정 기관에 대한 판매 수입 三、비 농산물 판매 수입 四、년금 및 보조금 五、장학금 六、려비 七、재정 체계로부터의 수입 (저금 인출、은행 대부금 등) 八、송금에 의한 수입 九、기타 수입

주민의 화폐 지출 (국영 및 협동 단체 기관에 대한 것)

一、세금 및 수수료 二、사회 봉사료 지출 (운수、체신、관람、리용 시설、보건 기관 등) 三、정당、사회 단체에 대한 납부 四、재정 체계에 대한 지출 (저금、은행 대부금 반환 등) 五、송금 지출 六、기타 지출

이상은 제一그루빠에 속한 부문이며 제二그루빠에 대한 것은 거의 나 계산하지 않고 화폐 증가 또는 화폐 감소라는 항목으로 추상적 계산 방법에 의하여 규정 짓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속한 시일내에 이 부문 사업을 우리 나라 현실에 적응하게 리론적、실무적으로 명확히 규정지음으로써 주민들의 구매 폰드 계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 폰드의 계획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구매 폰드가 정확히 규정된 다음에는 이에 해당한 상품 보장의·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주민의 구매 폰드가 규정되여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폰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류통 계획은 실현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상업 활동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주민들의 구매 폰드와 함께 상품 폰드의 보장 가능성이 타산된 기초 우에서만 현실적인 정확한 류통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상품 폰드 계산은 발란스적 방법에 의하여 실지 상품 소요량을 산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폰드를 계획화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폰드품과 비폰드품의 구분、또 자체 수매、리용 생산 등 광범한 상품 원천을 동원 리용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수요 구조에 적응하도록 품종별로 광범한 상품을 망라시켜 주민들의 상품적 수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도록 세밀한 타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례를 들면 도시(로동자구 포함) 주민과 농촌 주민별로 또 지역별로까지 개별적 수요를 타산하여 상품 폰드가 계산되여야 한다. 만일 상품 폰드를 있는대로 합산하여 기계적으로 상품 원천 총액을 주민의 구매 폰드와 합치시킨다면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실현성이 박약하며 계획 실행에서 극심한 불균형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년도별 주민들의 상품 수요 구조의 변

동에 대하여 심중한 고려를 돌려야 한다. 식료품과 비식료품 비중의 변화、식료품 내부에 있어서의 주식물과 부식물과의 관계、품종별 수요 구조의 변화를 깊이 분석하고 그것들의 앞으로의 변화를 예견한 기초 우에서 상품 품종의 비중을 타산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상품 수요 구조는 점차 변동될 것이다. 즉 면직물로부터 고급 견직물에로、고무신으로부터 포화 또는 구두에로 수요 구조가 변경되며 기성복、내의류、문화용품의 수요가 점차 장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의 구체적 례를 들면 면직물은 一九五五년 상반년에 비하여 一九五六년 상반년에는 一一二・四%로 장성한데 대하여 견직물은 동기간에 一八一・二%로 현저히 장성하였으며 고무신은 七九・二%로 저하된 반면에 포화류는 一三八・七%로 급격한 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민들의 개별적 상품 수요 구조의 변동 정형은 상품 보장 계획 작성에서 심중히 타산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개별적 상품 그루빠별 소매 상품 류통의 동태와 변동에 대한 자료들이 충분히 리용되여야 하며 상업 기관별、상품 그루빠별 계획 실행에서의 불균형성과 편중성 및 최근 년도의 동태와 분기별 계획 실행 정형을 심중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품 재고와 품종별 회전률들을 계획과 대비하여 회전률이 계획보다 굼뜬 상품들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체화된 상품이 질 불량으로 인한 것인가、고가 상품、계절 상품、다량 상품인가를 분별하여 내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상품 주문서와 상품 보장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품 보장 계획에서 이러한 점을 타산하지 않는다면 생산과 소비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시기의 상품 주문에는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수요와 상품 원천을 충분히 타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냥이 체화되리라 하여 주문과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생산을 일시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얼마 안되여 성냥이 품절된다고 하여 그의 생산을 조급하게 서둘으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 밖에 고무신 또는 견직물을 주문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결함들을 반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폰드 계산에 있어서 그루빠별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적 상품 범위와 개별적 지표에 대한 생산 조직의 변경의 필요성、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광범히 참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상품 폰드 계획의 정확 여부는 상품 류통 계획 실행을 물질적으로 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

되여 있다。 만일에 상품 폰드 계획화가 부정확하게 수립된다면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산과 소비간、도시와 농촌간의 상품 류통과 경제적 련계를 약화시킴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상품 폰드의 계획화 사업에서 우리가 특히 류의하여야 할 것은 상품 원천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상품을 량적으로 또 품종별로 계속 확대시키는 문제이다。 류통 부문 일꾼들은 수입품과 국가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상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 원료에 기초한 도영 및 생산 협동 조합 생산품의 질 제고와 량적 증대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면서 특히 다양한 품종 확대를 위한 가능성과 제 예비를 동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자체 수매 상품을 광범히 상품 폰드에 인입시키는 문제는 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자체 수매에 망라되는 품종은 농 수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판매、구매 협동 단체로서의 소비 조합의 역할을 제고하며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수매 방법、수매 체계、수매 가격 제정 등 농산물 수매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협동 조합 및 개인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 수산물들을 다량 수매함으로써 상품 폰드에 광범히 인입할 수 있으며 농민들의 화폐 수입을 높여 줌으로써 농촌에서의 상품 류통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농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당 정책의 중요 측면의 하나이다。

농산물 수매 사업의 개선 강화는 도시 주민들의 식료품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오늘 상업 기관 자체에서 실현되는 농산물의 수매 품종、수량은 계속 장성되고 있다。 수매 품종에는 시장용 폰드에 인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외국 수출품용、공업 원료 등으로 공급될 수 있는 것들이 현저히 늘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상업 기관의 자체 수매에 의한 농산물들을 도시에로、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 제품들을 농촌에로 상품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 기초인 로동자와 농민간의 동맹을 공고화하는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농산물 수매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다。

상품 폰드 중에서 자체 수매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자체 수매량은 매년 장성되고 있으며 품종에

있어서도 다양한 품종을 포괄하고 있다。

량곡、소채、과실、수산물、육류、저류、건채류、산과 및 산채、조미료 등 자체 수매품이 상품 폰드 계획에 인입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공업 기업소들이 적지 않게 파괴되고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인민들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다양한 품종들、례를 들면 두부、콩나물、오이 저름、고추장、각종 식료 가공품들과 기성복、내의、와이샤쯔、부인복、아동복、모자 등 직물 가공품 등 다양한 보충적 상품 원천들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 상업 기관 자체 리용 생산을 계속 강화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즉 구매 폰드에 상응한 상품 폰드를 예견함으로써 상품 류통 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시기에 지역별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결함을 발로하였다。

그것은 지역별 경제 발전에서와 그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구성 정형을 충분히 타산하지 못하고 다만 계획을 과거의 부정확한 실적에 치중하여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지역별 상품 류통의 심한 불균형성을 조성시킨 그것이다。 류통 부문의 일부 일꾼들은 정치적、경제적 타산이 미약한 데로부터 우리 당의 상업 정책에 튼튼히 의거하지 못하고 쉬운 방법으로 계획을 분할 부과하는 현상을 적지 않게 발로시켰으며 일부 도들에서는 자기 맡은 계획을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시 및 기타 장소들에만 계획을 높여 주고 산간 농촌 지대에는 계획을 적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좋은 상품은 계획 규모 비중에 의하여 집중 배정함으로써 계획 실행을 금액상으로만 초과하게 하였으며 로동자구의 직장 상점에는 로임 폰드의 절반도 안되는 계획을 줌으로써 질 좋은 상품이나 다양한 상품을 배정하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직장 상점은 상품을 구비하지 못한 배급품 전달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되여 있었다。

무원칙한 계획 분할의 결과에 일부 지방 상업 관리소는 상품 류통 계획의 과중으로 인하여 타지방에까지 이동 판매를 하거나 또는 모리간상의 손에 상품을 도매하는 현상까지 발로하였다。

지난 시기에 함남도에서는 지역별 상품 류통 계획을 배정함에 있어서 홍남 지구 상업 관리소에는 로임 폰드의 六〇%에 해당하는 적은 계획을 주었다면 영흥 상업 관리소에는 타지방으로 이동 판매까지 하지 않으면 안될 높은 계획을 규정하여 주었다。 이러한 실례는 비단 함남도의 류통 부문 계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들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 작성 및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결함을 시급히 퇴치 시정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의 상업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한 기초 우에서 계획 작성에서의 주관주의적 욕망과 기관 본위주의적 사업 작풍들을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별 상품 류통 계획 작성시에는 당과 정부가 제기한 정치 경제적 제 과업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一、계획 수립시에 해당 지역에 있어서 로동자 수의 장성과 로임 폰드의 장성、농산물 생산의 장성에 따르는 농민들의 화폐 수입의 장성、기타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장성 전망과 주민의 개별적 그루빠들의 생계비 구조의 변동에 대한 조사 자료、

二、지역별로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품 생산 장성과 농산물 생산의 장성 전망을 타산한 자료

三、해당 지역에서의 산업 배치의 변화 전망 (기업소、공장의 신설、지질 탐사 사업의 개시、새로운 건설 사업 등등)

四、주민 구성의 변화(농촌 지대로부터 로동자구로) 등 그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매개 지역 주민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매 상품 류통 규모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기년도 계획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전 인민적 사업이다。

제一차 五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에 기초한 류통 부문의 정확한 계획 수립은 우리 당의 상업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인민 경제 전 령역에 걸쳐 정확한 통계 조사 자료들과 대중의 경험과 집체적인 창발성에 기초하여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다。

三개년 계획에 비하여 五개년 계획은 더욱 방대한 규모의 상품 류통을 예견하는 만큼 우리는 금후 계획 작성에 있어서 지난 기간에 범한 오유와 결함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부문내 당 단체들은 우선 공명심에 사로 잡혀 주객관적 조건도 타산함이 없이 계획 숫자를 무근거하게 높이려는 경향과 계획을 안일하고 손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 숫자를 적게 규정하려는 소극적 경향들과 결렬히 투쟁하는 한편 계획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범 판매 일꾼、관리 일꾼 또 과학계의 전문가들과의 광범한 토의를 거쳐 계획 작성의 리론적 및 실무적 문제들을 세심히 검토한 기초 우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류통 부문내 일꾼들은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확한 계획 작성 및 그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남김 없이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강연 선전의 개선 강화를 위한 당면 문제들

추 창 춘

강연 선전——이것은 우리 당 사상 사업의 제 형식 중에서 유력한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 대중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창조적 열성을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에 있어서 강연 선전이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사상 사업 분야에 존재하던 일련의 결함들、특히는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력사적 제三차 대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 강연 선전 사업은 적지 않은 개선을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강연 선전 사업이 우선 우리 나라의 현실과 인민 대중의 요구에 더 접근하였으며 청중들의 정서、문화의 식 수준、그리고 강연 선전에 대한 반영을 고려하면서 더욱 더 풍부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과 형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긍정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였으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강연 선전은 지난날 당의 사상 사업 방향으로부터 뒤떨어져 시기성을 상실하며 산만하게 조직되던 것과 같은 결함들을 점차 시정하면서 부단히 변천하는 현실과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엄격히 립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며 주체를 확립하기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불만족한 것이지만 강연 선전 분야에서 쟁취한 성과인데 이는 최근에 우리가 정치 및 경제 사업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의 요인들 중의 하나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급적 각성과 애국

적 열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당 정책과 당면 과업의 실행에로 고무 추동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강연 선전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부절한 대책들을 취하고 있다。

* * *

강연 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되는 문제는 그의 사상—리론적 내용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력사적 및 경제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리론과 정책、리론과 실천을 밀접히 결부시킨 잘 준비된 강연 선전은 언제나 군중을 전취할 수 있으며 군중의 생산적 및 혁명적 실천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대중의 혁명적 실천 활동、그들의 현실적 요구와 결부시킴이 없이 교조주의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강연 선전은 군중의 전진 운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당면 더욱 훌륭한 사상—리론적 내용을 가진 강연 선전에 대한 기본적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민 대중의 생산적 및 혁명적 활동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의 정책、즉 대내적으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혁명적 민주 기지를 정치、경제、문화、군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외적으로는 세계 평화의 고수、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제국가 인민들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동맹、친선 및 협조、상이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 등의 정책들을 창조적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토대 우에서 대중 속에 부단히 해석 침투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 과학과 우리 조국의 구체적 조건에 기초하여 작성된 당의 총 로선과 대내외 정책을 떠나서 훌륭한 사상—리론적 내용을 가진 강연 선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대내외 정책을 부단히 연구하며 그것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며 해석 침투시키는 사업은 모든 강사—선전원들、당원들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최근 당 사상 사업 분야에서 공작하는 강사—선전원들과 당 열성자들은 인민 대중 앞에서 풍부한 사상—리론적 내용으로써 강연 선전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렇치 못한 현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며 강연 선전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로、우리의 사상 사업에 해독을 끼쳤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부문에 존속되고 있는 교조주의적 방법을 퇴치하고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데 있다。

교조주의는 우선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성격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초래되는 것인데 이에 사로잡힌 적지 않은 강사들은 력사적 시기의 변천과 장소와 조건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계적 전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청중들에게 문제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

강연 선전에서 교조주의적 방법들은 특히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는 당원들을 위한 보충적 리론 강연들과 당의 정책을 해석 선전하는 강연들에서 흔히 표현되고 있다。

례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당의 경제 정책을 연구할 목적으로 취급한 『쏘련에서 평화적 건설、과도기에로의 이행과 신 경제 정책』이란 강연을 진행함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의 신 경제 정책의 본질을 비롯하여 그의 형태와 방도들에 대하여는 훌륭하게 해석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현실과는 결부시키지 않으며、그의 우리 당의 경제 정책과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본질의 공통성、그의 형태와 방도의 특이성들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이는 청중들로 하여금 쏘련에서의 신 경제 정책 자체를 리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고 그와 우리 당 경제 정책과의 공통성、차이에 대해서는 리해할 수 없게 할 것이다。이와 같은 강연 선전은 청중들의 흥미를 끌 수 없으며 당 정책 수행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성과 있게 방조할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어떤 강사는 쏘련 공산당 제二〇차 대회가 재 확인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레닌의 리론을 강연함에 있어서 그의 원칙적 명제들을 훌륭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과 결부시킨다 하여 조국의 일시적 분렬을 인용하면서 남북 조선간의 상이한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이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을 리해하지 못하고、조국과 민족은 하나이며 반동의 여하한 흉책으로서도 남북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역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데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이와 같은 교조적 설명의 방법이 사상 사업에 얼마나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어떤 강사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하여 강연 선전함에 있어서 현 국제 정세 발전에서의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과 련결시키기에 많은 노력을 한다。그러나 때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정한 력사적 조건에서는 평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레닌적 명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맑스주의적 리해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평화적』이행이란 어구에 구애되여 력사의 쓰레기 통에 파묻혀 버린 제二국제당의 기회주의적 견해와 혼동하면서 그의 본질적 차이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청중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성격을 리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또 어떤 강사는 동해안 농민들 속에서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을 강연 선전함에 있어서 거듭되는 랭해로 인한 자연 피해가 혹심한 동해안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그의 극복을 위한 기술적 방책들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출판물에 있는 것이라 하여, 평야 지대에서 재배하고 있는 벼의 다수확종을 일률적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조주의적 방법이 맑스—레닌주의의 연구 사업에 심한 부정적 작용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보는 바와 같이 교조주의는 사상 사업에 엄중한 해독밖에 가져다 줄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강연 선전에서 교조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하며 뿌리채 없애 버려야 한다.

최근 로동당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개된 요강식 강연 재료에 대하여 간단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재료들은 아직도 허다한 부족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그것에 비하여 하부의 반영이 좋으며 강연 선전 사업 개선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강연 재료들을 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알기 쉽고 리용하기에 편리하게 서술되였다 하여 대상, 조건의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 일률적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면 결국 교조주의에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례하면 평안남도 증산군 룡정리를 비롯한 몇몇 리들에서와 같이 식량을 자급 자족하고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군내에서 아직도 전쟁 피해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채 곤난한 처지에 놓여 있는 지역들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상부로부터 제공된 강연 자료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모든 부락들에서 일률식 방법에 의하여 강연 선전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대상에 따라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신 해방 지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보다 더 자체의 실정을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상부로부터 하달된 강연 재료라 하여 대상에 부합되던 말던 간에 모든 제목들을 모든 대상에게 일률적으로 『내려 먹이』려고 한다거나 해당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함이 없이 전달 받은 제강을 기계적으로 『내려 먹이』는 교조주의적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에 평안남도 룡강군 당 직의 강사가 대안 전기 공장에서 진행한 강연 선전 『설비

리용률의 제고를 위하여』는 경험적이였다.

강사는 우선 해당 강연 자료와 기타 기술, 경제 서적들을 연구한 기초 우에 군당 위원회가 조직한 쎄미나르에 참가하였으며, 제강을 보지 않고도 대중 앞에 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 기초 우에 동 공장의 간부들, 기술자들, 핵심 로동자들과의 담화를 통하여 공장 실정과 그들의 의견을 료해하고 공구 직장, 회전기 직장 등에서 설비 리용률이 낮은 원인을 구명하여 제강에 삽입하였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이지만 강연 선전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취급되는 실례들이 해당 청중들의 실 생활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실제적이며 더욱 효과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연 선전의 긍정적 영향은 그후 대안 전기 공장 로동자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 속에서 물질적 힘으로 표현되였던 것이다.

교조주의를 근절하고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이것은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내용을 풍부히 함에 있어서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되였으며 되고 있다.

둘째로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내용을 풍부히 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산 그리고 현실 생활과 결부된 보다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본질적 문제들을 정확히 포착하여 해명해 주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은 그의 모든 측면이 모든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동일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기의 력사 발전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맑스—레닌주의의 이러 저러한 측면이 전면에 나설 수도 있으며, 리면으로 물러 설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적 범위로 보아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우리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특히 당, 주권, 로동 계급 령도하의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에 관한 문제는 사상 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가장 주되며 원칙적 문제들인 당, 주권, 로동 계급 령도하의 로농 동맹을 백방으로 공고 발전시키며 근로자들, 특히는 로동 계급 속에서 계급적 각성을 제고하며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관철시키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전체 인민 대중을 단합시키는 문제는 강연 선전의 중심 내용의 하나로 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혁명의 기본적 동력은 로동 계급이다. 조국의 운명은 혁명의 령도 계급인 로동 계급이 얼마나 각성되였으며, 어떻게 주인답게 령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혁명의 기본 문제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의 주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국내의 광범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력량을 집결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 립각한 인민 정권으로서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기능을 수행』(김 일성)한다。 이 주권만이 영원히 우리 조국의 무한한 번영과 우리 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인민 주권이다。

전후 인민 경제의 방대한 복구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있는 우리 나라의 현 조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경제학적 측면이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경제 제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강연 선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우리는 우선 근로자들의 요구에 더욱 접근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이나 농촌에서 건설 사업과 생산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로자 대중은 지금 경제 문제의 『일반론』이 아니라 자기들의 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는 구체적 방법 문제와 선진적 기술의 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강사—선전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강연 선전이 이러한 의미에서 군중의 요구에 원만히 수응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혹 경우에는 멀리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례하면 어떤 강사는 생산 직장 로동자들 속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대하여』를 강연 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및 기술、경제적 지식이 박약하였던 탓으로 로동 생산 능률 제고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불충분하게 해석하면서 비본질적 문제들을 라렬하는 데 그쳤으며、해당 직장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책들과 로동자들의 실천적 과업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제기하지 않았다。 청중들 속에서 『밤낮 들어야 그 소리』라는 반영이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강연 선전이 근로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회수를 채우고 책임이나 면하기 위하여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반적 상식적 문제들을 지루하게 라렬하는 것으로서 강연 선전을 대치시키던 시기는 벌써 지나간지 오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 제 문제를 해석 선전함에 있어서 근로자들 속에 더 깊이 들어 가며 현실과 선진 경험과 기술에 더욱 더 접근하여야 한다。

얼마전에 평양시 내 간부들과 농산 부문 일꾼들 앞에 출연한 쏘련 학자 뻬·예·라단의 강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의 목축업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는 우리들에게 교훈적이였다。

이 강연은 우리 나라의 농업 문제、특히는 목축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요한 기술 경제적 문제들을 주로 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는 데 이는 우리의 농촌 경리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로동 신문』 一九五六년 一一월 三〇일부 뻬·예·라단의 론문 『조선에서의 축산업 발전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참고할 것)。

이 강연은 대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당의 경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도 실지적 방조로 되였다。

우리는 오늘 강연 선전에서 과학、경제、기술 등 문제들을 미약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겉을 어르만지는 형편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경제 문제들에 대한 강연을 더 많이 하며 더욱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취급하는 것—이것도 강연 선전의 내용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째로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내용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사상—리론적 오유와 외곡、사상 사업에서 자유주의적 태도를 배격하며 적대적 반동 사상—리론을 폭로 분쇄하며、그의 침입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다。

이 문제는 오늘 리론적 의의 뿐만 아니라 막대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 대렬 내의 몇몇 견실치 못한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외곡 수정하며、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선 위대한 로씨야 혁명의 기본적 특성들이 력사적인 불가피성으로 국제적 규모에서 반드시 반복될 것이므로 로씨야 혁명의 경험에서 나온 원칙적인 문제들은 모든 나라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 레닌의 교시를 망각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는 혁명의 기본적 특징이 아니라 『가장 주되지 않는 것에만 관계되는』(레닌) 각이한 길과 각이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한 레닌의 교시를 외곡하면서 자기들의 원칙적 문제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리탈되는 견해까지도 이행의 『특수성』으로서 묘사하려고 시도한다。

이와 같은 견해들이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력량의 단결을 방해하며、제국주의 반동들의 『반 공산주의』 선전 깜빠니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견실치 못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음폐하여 오던 종파적 본성을 공공연히 들어 내놓으면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외곡하며 수정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一九五六년 八월 및 九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된 바와 같이 몇몇 반당적 종파 분자들은 대중을 기만하는 방법으로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한 당의 정책을 외곡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자기의 종파적 활동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종파의 유익설』을 제창하면서, 당내에 자유주의적 무정부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반당적 견해들은 이미 당 중앙 위원회와 그의 주위에 단합된 백만 당원들의 통일된 력량과 인민 대중 앞에서 여지 없이 폭로 분쇄되였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강연 선전에서 사상—리론적 오유와 외곡을 허용하며 자유주의적 태도를 묵과하며 적대적 반동 사상—리론의 침입을 묵인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후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더우기 남반부에는 제국주의 세력과 그의 반동적 주구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들이 모든 선전 선동 수단들을 통하여 남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북반부 인민들에게까지 반동적 독소를 주입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는 사실만 참작하더라도 그의 의의를 리해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강연 선전에서 사상—리론적 오유, 외곡, 자유주의적 태도, 적대 사상과의 투쟁——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당성을 고수하기 위한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강연 선전의 사상—리론적 내용에서 제기되는 주되는 몇가지 문제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주로 당 단체들의 집체적 지도 기관이 조직적 대책을 여하히 강구하며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돌리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강연 선전의 내용을 개선함에 있어서 주요한 조직적 대책의 하나는 제강에 대한 집체 토의이다. 강연 제강의 집체 토의에는 당 위원회의 책임적 지도 간부들과 해당 문제의 권위자들과 기타 전문 일꾼들이 광범히 참가하도록 하며,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강연 선전의 내용을 개선함에 있어서 군중 앞에 출연하는 사람, 즉 강사—선전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는 당 단체들이 강구해야 할 주요한 조직적 대책의 하나이다.

강연회가 있다면 누구든지 우선 『강사가 누구인가?』고 묻는다. 정치, 리론적 수준에 있어서나 실무적 경험에 있어서나 잘 준비된 강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강연 선전은 항상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온갖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연의 사상—정치적 방향이다. 무엇이 이 방향을 결정하는가? 전적으로 강사들의 구성이 이를 결정한다』고.

그러므로 강사—선전원들을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동무들로서 선발 배치하며 자기 위치에 고착시키며, 계통적으로 교양 훈련하며, 양성하는 사업은 강연 선전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강연 선전——이것은 국한된 수의 전임 강사—선전원들 만의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적 지도 일꾼들의 사업이며 광범한 당 열성자들의 사업이다. 때문에 당, 국가, 경제 및 문화 기타 모든 분야에서 공작하고 있는 광범한 당 열성자들 중에서 직외 강사를 구성하고 그들에게 당의 전임 일꾼들과 동일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

강연 선전에 있어 또한 주요한 문제는 군중 앞에 직접 출연하여 강연 선전을 진행하는 수법에 관한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은 부르죠아 교양에 비하여 그의 내용과 과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방법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강사가 직접 청중을 대하여 어떠한 수법으로서 강연 선전을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의 성과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풍부하고 잘 준비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의 수법 여하에 따라서는 청중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청강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강연 선전에서 수법에 관한 문제는 일시적 모방에 의하여 일조 일석에 단순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강사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와 장기간의 숙련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강연 선전에서 수법상 문제는 강사 자신 뿐만 아니라 강연 선전을 청취하는 대상과도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강사가 사용하는 꼭 같은 언어와 같은 태도가 대상에 따라서는 흥미 있는 것으로서 표현될 수도 있으며, 그와 다른 대상일 때에는 거만한 태도로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들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이것은 강연 선전의 수법상 문제가 청강 대상자들을 정확히 연구 료해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 당 제三차 대회가 있은 이후 사상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 행정에서 많은 강사들이 강연에 앞서 청중의 구체적 실정을 료해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중의 요구에 접근하면서 있다.

一、강사의 언어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있어서 이겨 낼 수 없는 론중의 힘과 설복력은 구체적 대상에 부합되는 용어, 즉

인민 대중의 정치 사상적 의식 수준、문화적 수준 및 그들의 지식 수준과 밀접히 련결된 언어、알아 듣기 쉽고 평이하고 흥미 있고 명백하고 문화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주관주의에 사로 잡힌 일부 강사들은 대상을 료해 연구 분석함이 없이 강연 선전을 진행함으로써 대중 속에서 싫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동무들은 대상이야 알아 듣든 못듣든 간에 『소 귀에 경 읽는다』는 격으로 암송해 두었던 명제들을 독경식으로 인용하기를 즐겨하며 무미 건조하고、힘들고、딱딱하고、까다로운 술어들을 아무 주석도 없이 라렬함으로써 『유식』을 자랑하기를 좋아 한다。

이러한 강연 선전이 어떻게 군중을 전취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당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고 과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민 대중의 언어로서、그들이 리해할 수 있도록 해석 론중하지 않는다면、그것은 대중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당과 대중에게는 이와 같이 『유식』한 선전원은 요구되지 않는다。이것은 물론 대상의 문화 의식 수준이 어린 경우에는 리론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상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욱 명백하고 더욱 정연한 론리와 리론이 요구된다는 것은 론쟁할 여지조차 없다。

국제 공산당 제七차 대회의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당신들은 글을 쓸때나 말을 할때나 언제나 일반 로동자들이 모두 알아 보도록 하며、당신들의 호소를 믿도록 하며、당신들의 뒤를 따를 결심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당신들이 결국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글을 쓰며、어떤 사람에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과업은 모든 강사—선전원들이 철두 철미 인민 대중의 언어를 배우며 그를 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데 있다。

二、강연 선전의 강력한 힘은 진실성에 있다。

맑스—레닌주의 교양에 있어서 이겨 낼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설복력은 또한 그 내용의 진실성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자기의 정책 수립에서 자연과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엄격히 의존하며 과학에 의존한다。맑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예리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엄숙하고 전투적인 과학적 태도이다。

우리의 사상 사업 경험은 사실의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일시적 충동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성실하고 과학적일 때에는 청중들에게 매우 깊은 감명을 줄 수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반대로 선전 공작에서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며 진실치 못할 때에는 청중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준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전후 인민 경제를 복구 건설하는 투쟁에서 근로자들이 발휘한 애국적 정열과 창조적 로력의 열매를 평가함에 있어서、유감스럽게도 어떤 강사들은 전쟁의 혹심한 상처로 인하여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 분야에 현존하는 난관과 애로들을 밝히지 않으며 그것을 극복 타개하기 위하여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굴의 의지에 대하여 적게 말하며、광범한 중산 경쟁 운동에서와 생산 선구자들의 선진 경험、우리 당의 조직자적 역할 등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총화 분석하는 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근로자들의 로력적 성과를 지적함에 있어서 허다한 숫자적 자료들만을 복잡하게 라렬하며 수식사와 형용사를 람용한다。

이와 같은 강연 선전은 진리를 반영하기는 고사하고 우리 당 사상 사업에 저해를 줄 뿐이다。

과업은 강연 선전에서 맑스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실의 지나친 과장과 언사를 제거하고 철두철미 과학적인 태도와 방법을 적용하여 진실을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三、강연 제강의 체계

강연 제강을 작성함에 있어서 내부적 련관 속에서 문제를 관찰、제기、분석하며、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체계를 설정하고 분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왜냐 하면 그의 내용에 있어서 체계 정연하게 명확히 서술된 강연 선전은 청중들에게 심오하게 사색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주의를 집중케 하며 흥미를 일으키며 실지 사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복잡하게 분류하여 잡화상과 같이 만들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떤 동무들은 강연 선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一、二、三…、그중의 1、2、3…또 그중의 ㄱ、ㄴ、ㄷ…또 그중의 (1)、(2)、(3)식으로 강사·자신까지도 순서를 혼동할 정도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 방법은 청중들로 하여금、순서를 맞추기에 급급하게 하며 혼란을 야기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게 한다。

과업은 아무런 론리적 체계도 없이 산만하게 진행되는 강연 선전을 배격하고 론리적이며 체계 정연한 분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四、랑독식 강연과 담화·해석식 강연

이 두 가지 방법은 대상과 경우에 따라 각각 일장 일단이 있을 수 있다。

경험에 의한다면 인민 대중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랑독식 강연에 흥미를 갖지 않으며、담화 해

석식 강연 선전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로동자, 농민들 앞에서 강연 선전을 함에 있어서 대체로 필기 전달 받은채 완전히 자기 지식으로 소화하지 못한 제강을 들고 출연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훌륭하게 준비된 제강에 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랑독식 방법에 의한 강연 선전을 진행한 강사들은 강연 도중에 청중들이 잠자거나 돌아가는 현상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랑독식 강연은 아니였으나, 아직도 익숙치 못한 제강에 매달려 거기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며 청중을 앞에 놓고도 그들의 동태를 감촉하지 못하는 강사들도 이와 류사한 결과를 체험하였을 것이다.

과업은 모든 강사—선전원들이 중의 념불과 같은 랑독식 강연 선전을 배격하며, 청중의 정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담화 해석식으로 강연을 평이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상에서 지적한 강연 선전의 방법상 몇가지 문제들은 모두 다 강사—선전원들의 군중 관점, 그들의 군중 사업 작풍과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군중 관점이 확립되고 옳은 군중적 작풍을 소유한 강사—선전원이 출연하는 강연 선전은 불가피적으로 군중의 호흡에 맞을 것이며, 그들과 혼연 일체로 될 것이며, 그들을 당의 부름에로 고무 추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하고 아직도 낡은 작풍을 청산하지 못한 강사—선전원이 출연하는 강연은 대중을 장악할 수 없다.

강사—선전원들은 『선전 공작 작풍에 있어서 군중화할 작풍을 견립하여야 한다』(김 일성).

* * *

강연 선전에서 또한 주요한 문제는 강연 선전 조직 사업이다.

강연 선전 조직 사업은 강연 선전 체계의 확립과 그의 운영을 위한 계획 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조직 집행 및 총화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범위에 걸쳐 많은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사업을 빈틈 없이 잘 조직 집행하는 문제는 사상 사업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강연 선전 조직 사업에서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제목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강연 선전 제목은 해당 강연의 내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강연 선전 제목은 당의 사상 사업 방향과 리탈될 수 없으며 항상 거기에 립각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일부 당 단체들에서 강연 제목 설정 사업을 어떤 일꾼들에게 일임한채 방임해 둠으로써 터무니 없는 제목들이 설정되거나 또는 깜빠니야 사업

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번잡한 제목을 설정하여 혼란을 초래하던 것과 같은 현상들은 시정되여 가면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강연 선전 제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류의하여야 할 점은 당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에 엄격히 립각하여 설정하는 문제이다. 이에 있어서 현행 정치 및 경제 등 당의 대내외 정책을 비롯하여 당 력사 및 당 건설, 현정세,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주와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모든 부문을 포괄하면서도 주되는 것과 부차적인 것, 많이 할 것과 적게 할 것들을 적절히 타산하여 제목 설정의 복잡성을 피하는 데 있다. 현행 정치 및 경제, 현 정세와 같이 시기성을 요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년간 계획을 예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있어서 해당 당 단체들의 지도 기관에서 집체적 토의를 거치는 것은 강연 선전 제목 설정에서 우연성과 복잡성을 피하며, 당 사상 사업의 기본 방향을 고수함에 있어서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강연 선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대상자들을 루락시킴이 없이 계통적으로 망라시키는 문제는 강연 조직 사업의 주요한 부분으로 되고 있다.

아직도 강연 선전 대상에 대한 분석 사업의 결여로 말미암아 생산 직장에서의 교대별과 리 소재지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부락들과 산간 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이 강연 선전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생산 직장과 농촌의 초급 당 단체들의 직외 강사들의 조직 운영 사업에서 일정한 경험과 결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 *

강연 선전은 당 사상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강력한 선전 수단의 하나이다.

강연 선전에 대한 당의 요구는 우리 혁명의 임무와 함께, 제기되는 당면 과업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만큼 더욱 커가고 있다.

명확한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대상의 구체적 실정을 참작하여 잘 조직되고 훌륭히 준비된 강연 선전은 모든 당원들과 인민 대중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과 정치적 단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근로 대중의 창발성과 애국적 정열과, 정치적 각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커다란 방조를 줄 것이다.

오늘 강연 선전에 대한 일상적 지도를 강화하며,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은 모든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의 중요 과업이다.

당 생활

집체적 지도 원칙의 정확한 관철을 위한 몇가지 문제

허 일 훈

당적 지도의 집체성에 관한 레닌적 규범은 맑스—레닌주의당의 지도적 활동에서 언제나 변함 없는 최고 원칙으로 되여 있다. 그러므로 당 사업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부단한 배려는 당 건설 및 당 생활 분야에서 가장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당과 인민 대중의 역할을 제고하며 그의 창조적 력량을 가장 완전하게 전면적으로 계발 동원할 풍부한 가능성을 주는 이 생기 발발한 지도 원칙은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이 발전됨에 따라 더욱 더 그의 심오한 창조적 성격과 무진장한 생활력을 증시하고 있다. 특히 쏘련 공산당 二〇차 대회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一九五六년 六월 三〇일 결정 『개인 숭배와 그 후과들을 극복할 데 관하여』의 발표, 그리고 력사적인 이 결정들을 실행하는 행정에서 쏘련 공산당이 체험한 고귀한 경험들은 전 세계의 맑스—레닌주의자들에게 당 생활에 관한, 특히는 집체적 지도에 관한 레닌적 규범이 가지는 심오한 진리를 더욱 넓고 깊게 리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열어 주었다.

쏘련 공산당의 이 력사적 경험은 우리 당 생활과 우리 나라의 전반적 사회—정치 생활에도 커다란 긍정적, 고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것은 응당한 일이다.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레닌적 당 건설 및 당 생활 규범에 립각하여 창건되고 장성 강화된 우리 당은 창건 첫 날부터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우리 당이 창건된 력사로 보아 아직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복잡하고 곤난한 임무들을 과오 없이 해결하면서 인민 대중을 혁명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정확히 조직 령도할 수 있은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가 당 생활의 초석인 집체적 지도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였으며 이 원칙으로부터의 온갖 리탈과 위반, 각종 외곡과 비속화를 반대하여 견결한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한 데 있다.

우리 당이 체험한 력사적 경험은 집체성의 원칙으로부터의 리탈과 이 원칙의 위반이 보통 평범한 과오인 것이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조장된다면 당의 운명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당과 조선 혁명 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친 박 헌영, 리승엽 종파, 간첩 도당들과 기타 일련의 종파 분자들이 감행한 죄악적 행동은 례외 없이 당의 집체적 지도에 대한 도발적이며 배신적인 유린과 파괴적인 분렬 행동이였다. 그들은 모두 다 당 조직 앞에서는 당의 정치 로선과 정책들을 지지 찬동하는체 하면서 배후에서는 그를 비방 외곡 중상하였으며 반대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당적 신임에 대한 이러한 배반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당 조직과 인연을 끊고 당에 대립하며 도전하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숭배 사상을 조장시키며, 불평 분자, 아첨 분자들을 규합하여 당 정책의 정확한 실현을 방해하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등 허용할 수 없는 해독적 결과들을 초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며 당의 집체적 력량을 혁명 사업에 총 동원하는 것을 저애하는 종파적 행동과 그의 사상 요소들을 극복 퇴치하고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반석같이 공고히 하며 각급 당 단체들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데 대하여 계속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이에 있어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三차 대회와 당 중앙 위원회 八월 및 九월 전원 회의들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三차 대회는 전 당 앞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당 단체들은 그의 일체 활동에서 집체적 지도 원칙을 확고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숭배 사상을 반대하며, 사업에서의 개인 독단과 일면성과 우연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당원들과 인민 대중의 집체적 지혜를 최대한으로 발휘케 할 것이다』.

우리 당 단체들에서 이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당 사업의 전반적 령역에 관계되는 것이다.

당적 지도 일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첫째로 당 기관들이 옳은 결정을 채택하며, 둘째로 채택된 결정에 대한 실행을 면밀히 조직하며, 세째로 결정 실행에 대한 검열을 제때에 실시하되 이 모든 사업들은 례외 없이 대중의 지지와 협력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당적 지도의 최고 원칙인 집체적 지도는 문제의 집체적 협의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집체적 지도는 당내 민주주의의 광범한 발양과 엄격한 중앙 집권제의 결합, 당 사업에 대한 당원 대중의 자각적 태도와 강철같은 당 규률의 결합, 문제 토의에 있어서 광범한 협의제와 토의 결정된 과업 실천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제의 결합의 견지에서 리해하여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당 생활의 각이한 측면이면서 동시에 호상 련관되고 호상 작용하며 침투하는 통일적인 련쇄 관계를 이루고 있다.

당의 중앙 집권제와 당적 규률은 그것이 당에 대한 당원들의 자각성과 충실성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확립될 수 없으며 당원들의 자각성은 자연 발생적으로가 아니라 당 내에 엄격한 규률과 질서, 일상적인 당적 통제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만 높이 발양될 수 있다. 이러한 척도와 기준이 없이는 당원들의 활동에 대한 옳은 평가조차 내릴 수 없다.

또한 문제의 집체적 협의는 협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을 공고화하며 혁명 사업을 발전시키며 대중의 리익

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와 그에 기초한 당적 규률과 당원들의 자각성、광범한 협의제와 개인적 책임성을 떠나서는 집체적 지도 원칙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이 원칙을 실생활에 똑바로 구현시키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집체적인 지도라는 것은 지도자의 경험과 대중의 경험을 결합시키며 대중으로부터의 비판과 건설적 의견들을 소중히 취급하며 사업 행정에서 개별적 일군들의 책임성과 그들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서슴치 않으며 일체 무질서와 규률의 해이성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당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바로 그러한 지도를 의미한다.

* * *

지도의 집체성이란 당 및 국가적 활동에서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재능에 의거하며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최대한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지도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당원들과 비당원 대중의 지식과 경험、그들의 건설적 의견에 의거함으로써만 사업 행정에서 우연성과 일면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대중 운동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들을 충분히 참작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브·이·레닌은 가르치기를 『…수천만 창조자들의 지혜는 가장 위대한 천재적인 예견보다 비할바 없이 더 고상한 그 무엇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지도의 집체성은 력사에서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과 리론에서 출발된 지도적 결론이다.

이러한 기본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우선 집체적 지도 원칙의 철저한 준수 정도는 당 단체들이 자기의 활동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는 론리적 결론에 도달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중 로선은 당이 자기의 정치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거나 당 기관들에서 모든 결정들을 채택함에 있어서 객관적 현실、인민 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립각하며、이 정책과 결정들을 인민 대중이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고 내심적으로 접수케 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자원적으로 동원되게끔 참을성 있게 설복 교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중 로선은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는 당적 지도의 기본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전 당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원칙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당이 제기한 어떠한 과업이든지 그는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는 것이며、인민의 지지를 예견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대책이든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반드시 대중과 충분히 토의하며、그들과 협의하며、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구호를 인식케 하며、그 구호들의 실천을 위하여 대중 자신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집체적 지도 원칙의 철저한 실현 자체도 공담으로 끝날 수 있다.

군중 로선을 관철시키자면 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

이 매개 당 일군들과 당원들로 하여금 인민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즉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케 하며、당 및 국가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주관주의적 착오를 극복하도록 사상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직 인민 대중의 단결된 힘과 지혜를 믿고 그에 의거할 줄 알며 대중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의사를 존중히 할 줄 아는 그러한 일군들만이 군중 로선에 관한、집체적 지도에 관한 본질적 의의를 철저히 리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체적 지도 원칙을 정확、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 단체들의 상시적이며 일관한 임무의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강화 발전시키며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의 발현을 반대하여 예리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발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결함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적지 않은 당 기관들과 당 일군들은 매개 당원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와 조건을 지어 주기에 노력하지 않으며 그들의 건설적이며 비판적인 제의들에 대하여 신중히 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당 기관들과 당원들과의 관계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결함으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당 기관들과 당원들과의 호상 관계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에 립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개 당원은 자기의 일체 활동에서 당 조직 앞에 책임을 지며、당 기관들은 당원들의 신임에 의하여 선거된 집체적 지도 기관인 것 만큼 자기의 활동에서 당원 대중 앞에서 지도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군중 로선이 당 내에서 작용함을 의미하는 바 이 호상 관계가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유지 발전되지 않고서는 당내 민주주의도、중앙 집권제도 원만히 보장될 수 없으며、집체적 지도가 철저히 실현될 수 없다.

당 기관들은 당원들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장악 통제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목의 초점에 언제나 개별적 당원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 기관들은 매개 당원들의 사상 동태를 항상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하며 그에 기초하여 당 생활 규범의 옳은 준수에로 그들을 정확히 향도해 나가야 한다.

당원들의 사상 동태는 당 정책과 당 결정에 대한 그들의 태도、당적 위임과 사업 분공에 대한 책임성、당내 사상 투쟁에 참가하는 태도와 열성、그들의 정치적 각오와 조직적 관념、동지 간의 호상 관계와 인민 대중과의 련계 관계 등에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당원들의 당성과 사업 작풍、그들의 정치 실무적 능력、개인적 품성、취미、성격、대중 속에서의 신망 여부는 실천적 투쟁 마당에서、산 생활 속에서、공개적인 비판과 론쟁 과정에서 표현되는 것이므로 구태여 정담식 방법으로 뒤를 파는 식으로 그들을 료해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당 기관들이 당원들의 실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개성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연구 파악하며、그들의 요구와 제의들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며、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긍정적인 품성과 소질 및 재능상 특성을 적극 발전시키며、결점들을 점차 시정하도록 세밀히 지도 방조하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은 자기의 활동에

서 첫째가는 임무가 개별적 당원들에 대한 산 구체적 지도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인식하고 그들의 의사와 당적 권리를 존중히 하며 밑으로부터의 비판을 적극 지지 발전시키며 당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일체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경험이 말해 주는 바와 같이 당원들의 의견과 비판을 묵살, 억제하는 경향과 형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기간 일부 기관 내에서 종파 분자, 관료주의 분자들은 행정적인 직권을 악용하여 당원들의 의사를 억압 구속하며 『간부들에 대하여 비판할 수 없다』는 부당한 론거를 납득시키려고 압력을 가하며, 자기 의사에 거슬리는 당원들을 각종 구실로서 철직, 강직, 조동시키며, 자기들의 명령에 추종하는 일부 아첨 분자들을 사촉하여 건실한 당원들을 공격하며, 당원들 간에 리간과 알륵을 조성하는 등 야비하고 비렬한 행위들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엄중하고도 로골적인 종파적, 관료주의적 행위들이 있는가 하면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건전한 발양을 저애하는 은근한 형태도 있는 바 즉 쉽게 발로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하여서도 신중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례하면 일부 당 및 행정 지도 일꾼들은 하부 일꾼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에 대하여 그것을 끝까지 친절하게 청취하고 깊이 분석한 다음 정확한 평가를 내릴 대신에 채 들어도 보기 전에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꺾어 버리며 『들을 것이 없다』는 듯이 겸손치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일꾼들은 하부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기되면 웃는 낯으로 『옳소』, 『거 좋은 의견이요』, 『왜 벌써 말하지 않았소』 하면서 선듯 접수하며 방금 해결할 듯한 태도를 취하나 결국에는 『좋소, 연구해 봅시다』, 『두고 가시요』해 놓고는 그의 해결을 차일 피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써 사실상 그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하부 일꾼들로 하여금 다시 의견을 제기할 의욕을 상실케 한다.

동지적 비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불성실성을 종종 볼 수 있는 바 일부 일꾼들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한다』고 서론적으로 말해 놓고는 자기의 결함에 대하여 장황하게 『해명』하거나 변명, 합리화함으로써 본질상 그 비판을 접수치 않으며 하부로부터의 비판을 은근히 억제하고 있다.

당적 비판에 대한 복수적 태도도 역시 로골적인 형태가 아니라 실지 사업을 처리 집행하는 행정에서 암암리에 압력을 가하면서 랭대하며 된 것도 『굴렀다』고 공걸음시키며, 문서 결재에서 비본질적인 문구를 따지는 방법으로 괴롭히며 가치 있는 창발적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적 감정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등 기타 각종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리하여 옳은 의견을 제기하며, 속대 바른 말들을 서슴치 않는 그러한 당원들이 『말 공부쟁이』나 『말성 꾸러기』로 몰리우며 그의 적은 과오는 과장되고 사업상 긍정적인 역할은 삭감되여 의기를 저상시킬 뿐만 아니라 당원들 간의 혁명적 단결을 약화시키는 유해한 결과까지 초래한다.

우리는 당 사업이나 행정 사업, 경제 문화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당적 량심으로부터 출발된 의견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옳고 그르든지를 불문하고 일단 신중히 접수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의견 제기와 비판 및 론쟁을 저애하는 어떠한 경향에 대해서도 그와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공개적인 의견 교환과 론쟁은 당 정책에 대한 각이한 해석과 상이한 사상 관점들을 극복하고 사상상 유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인 것

만큼 동지들 간에는 비록 정확치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흥분하여 공박할 것이 아니라 론증하며 해석하여 사리를 구명하는 방법으로 의견 차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와 비판과 자기 비판의 활발한 발양을 제약하는 요인은 다만 당 기관들과 지도 간부들의 사업상 결함으로써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정치적 각오 정도와 당 생활에 대한 그들의 적극성 여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정치적 단련과 리론적 준비가 미약함으로써 사물에 직면하여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관별하지 못하며, 낡은 사상 관점으로 인하여 그릇된 현상들과 대담하게 투쟁하지 못하고 무비판적, 보신적 태도를 취하며, 정치 실무적 수준이 낮으므로 해서 문제 토의에 자주적으로 적극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당원들은 당 조직에서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의할 때에는 품고 있던 자기의 소견을 분명히 말하지 않고 비조직적으로 이렇구 저렇구 시비하는 유해한 자유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로동당원들에게는 당과 혁명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으며 그들의 일체 언행은 거기에 복종하고 있는 것 만큼 당 조직과 동지들의 배후에서 횡설 수설할 일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이런 행동은 오직 혁명 리익 이 외의 그 어떤 딴 목적과 딴 리익을 추구하는 불평 분자, 종파 분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타기할 현상이다.

또한 일부 당원들은 당 생활 행정에서 당성을 고수하며, 옳다고 확신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호도 주저하거나 동요함이 없이 끝까지 그를 관철시킬 대신에 『눈치』를 보아 가면서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굽혀 버리고 맹종 추미함으로써 사실상 그릇된 현상들과 융화 타협하며, 그를 조장하며 방임하는 행동으로 나가고 있다. 로동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자적 자주성과 독자성,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생기발발한 기질은 당원에게 고유한 고상한 품성이다. 그러므로 남의 의견에 피동적으로 추종하거나 『권위』 앞에 맹종하는 등 행동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종파적 습성을 버리지 않고 뒷고방 놓음을 계속하는 자들에게 리용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당내 민주주의와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결정적 조건의 하나는 당 지도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 데 있다.

당적 지도라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집체적 지도이다. 그러므로 당 지도 기관의 선두에는 개별적 인물들이 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집체적인 협의 기관들(당 위원회, 집행 위원회 등)이 서 있다.

때문에 당 위원회 전원 회의, 집행 위원회들을 당 규약상 요구에 근거하여 충분한 준비 밑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각급 당 단체들에서 당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할 데 대한 당 규약상 요구의 기본 정신은 그를 통하여 당의 정책을 관철시키며 당원들의 사상적 교양과 정치적 훈련을 강화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 단체들 앞에 나선 모든 문제 해결에서 집체적 지혜와 력량에 의거하며 개인적 독단과 그로부터 출발되는 우연성과 일면성을 극복하며 주관주의적 오유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당 기관들의 과업은 우선 집체적 협의를 통하여 토

의해결하여야 할 가장 초미의 문제들을 발견하여 제때에 당회의에 제기하는 데 있다。 이것은 당일꾼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 기관들이 하부 실정을 계통적으로 료해 장악한 여부에 의하여서만 옳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체계적인 하부 지도 사업과 하부 실정에 대한 조사 연구 사업이 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꾸며낸 일반적 문제를 가지고 당 회의에서 피상적으로 토의하는 달갑지 않은 사실들에 부닥치게 된다。 또한 비록 문제를 옳게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치 있는 대책적 의견들을 제기할 수 있는 온갖 가능한 예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깊이 연구하며, 당원 및 비당원 대중과 더불어 충분히 토의할 실제적 조건을 지어 주기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위원들과 당원들의 건설적 의견들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회의 조직자들이 미리 설정한 기성 방침들을 그대로 고집하는 부자연한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 기관들에서는 문제의 집체적 토의가 위원들의 주인다운 참가하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미 마련된 결정서 초안을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는 무미 건조한 사무적 회합으로 끝나며 심지어 이것이 습관화되여 회의 과정에서 많은 긍정적 의견들이 제기되였으나 그것을 전혀 참작하지 않고, 초안을 그대로 랑독 통과시키는 사실까지 드물지 않다。

당 지도 기관 회의들에서의 진지한 집체적 토의가 없다면 집체적 지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 전원 회의, 집행 위원회들과 당원 총회, 당 열성자 회의들이 당적 비판과 당 사업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연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당 회의의 준비에 책임 일꾼들이 직접 참가하며 당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에 대하여 크나 적으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 기관들의 활동에서 신중히 참작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 *

『지도의 집체성은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실천되도록 일꾼들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규률과 질서를 강화할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는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중앙 집권제의 의의를 약화시키며 혁명적 규률과 위임된 사업에 대한 개인적 책임성을 부인하여 사업 행정에 대한 자연 생장적 방임 상태를 조성하려는 소부르죠아적 무정부주의적 편향의 발현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의 중앙 집권제는 당의 유일한 정치 로선을 관철시키며 전 당의 행동상 일치성과 확고한 목적 지향성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유일한 규약, 유일한 규률, 유일한 중앙에 의한 중앙 집권적 지도가 정확히 보장됨이 없이는 비록 군중 로선에 립각한 옳은 정치 로선과 정책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실현을 확실하게 보장해 낼 수가 없다。

우리 당이 지난 시기에 달성한 그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체 당원들의 절대한 신임을 토대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활동과 그의 모든 결정 지시들이 전체 당 단체들에게 있어서 엄격한 법령으로 전투적인 행동 강령으로 관철되여 一〇〇만 당원들이 한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인 유일 지도가 보장된 때문이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총 로선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의 강력한 중앙 집권적 지도의 의의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외래 제국주의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 세력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자면 당 대렬은 더욱 공고해야 하며, 로동당원들을 선두로 한 우리 인민의 보조는 보다 일치되여야 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복잡한 환절들이 쉴새 없이 순조롭게 움직이도록 정확한 지도를 보장하자면 당의 정책과 결정 지시들에 대하여 전체 당원들이 일치하게 파악하며, 견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당 정책을 옹호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계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당 결정을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며 어떤 곤난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그를 실속 있게 집행하도록 중앙 집권적인 당 사업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비상히 중요하다。

당 및 국가 사업의 모든 고리들을 장악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간부들은 혁명 사업의 지휘자이며 모든 사업의 성과 여부는 당과 인민에 대한 그들의 높은 책임성과 충실성 및 조직자적 재능에 달려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개인 숭배를 견결히 반대하는 동시에 혁명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도 역시 허용할 수 없는 유해한 경향으로 규탄한다。 이것은 대중을 령도 없이 방임하려는 것이며, 당과 인민을 지휘부가 없는 군대와 같은 처지에 몰아 넣으려는 무정부주의적 반맑스주의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브·이·레닌은 혁명에서 인민 대중과 당 및 지도자들의 의의와 그들 호상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대중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것, 그리고 제 계급은 적어도 현대 문명국들에 있어서는 보통 다수 경우에 있어서 제 정당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 정당은 통례로서 가장 권위 있고 유력하고 경험 있고 가장 책임 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로 되는 다소간 고정된 그루빠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것——이 모든 것은 일반이 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초보적이다。 이 모든 것은 간단 명료한 것이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三七페지)。 또 『력사에서 어떠한 한 개의 계급도 그가 운동을 조직하며 령도할 능력을 가진 자기의 정치적 수령들과 자기의 선진적 대표자들을 내놓지 않고서는 지배를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전집 조선문판 四권(二二四六—二四七페지)。

우리 당이 지난 기간에 조선 혁명의 모든 중하를 감당하고 그를 과오 없이 수행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열렬한 사랑과 허무릴 수 없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은 당과 인민의 선두에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진정한 혁명가들이 서 있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의 임무는 앞으로도 계속 전 당과 전체 인민들을 김 일성 동지를 위수로 한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튼튼히 결속시키며 당 대렬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과 인민 대중의 정치 도덕적 통일을 견결히 보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 당 내에 강력한 중앙 집권제적 규률과 사업 체제를 확립하며 사업 행정에서의 개인적 책임제를 강화하는 데 많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당 생활과 당 사업 지도에서 개인적 책임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매개 당 일꾼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일상적 활동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며, 당의 통일과 단

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당 사업 토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당 결정 실행에서 고도의 창발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인민 대중 속에서의 실천적 모범과 조직자적、교양자적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는 등을 의미한다。

당 앞에서의 당원들의 책임이란 정치적 책임이며、당성과 당적 량심 앞에서의 책임이며、인민 대중에게 더 잘 복무하려는 충실성、즉 혁명적 군중 관점에 대한 자각적인 책임이다。그렇기 때문에 매개 당원들과 당 일꾼들로 하여금 사업의 경중을 막론하고 어떤 사소한 사업이든지 그것이 혁명적 위업의 일부분을 감당 해결한다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정치적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그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당 사업에서의 집체적 지도 원칙과 집체적 협의제는 결코 개인적인 창발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전제로 한다。

당 회의에서 문제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거나 토의 결정된 과업들을 실천에 옮기거나를 막론하고 이 행정은 례외 없이 사람들에 의하여、즉 당 일꾼들과 당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 만큼 그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당 사업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결정적인 관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집체적 협의의 준비와 그 과정 및 당 결정 실행을 위한 이 모든 행정에서 당 일꾼들과 당원들의 높은 창발성과 책임성、그리고 능숙한 조직자적 능력을 발휘케 하는 것은 실로 막대한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체적 협의제를 강화하는 행정에서 개인적 책임 회피를 조장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구실로 하여 당적 원칙에서 리탈된 『자유 행동』을 감행하거나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성과 당적 통제의 강화를 『관료주의』로 묘사하거나 지도 간부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개인 숭배』로 시비하는 등 각종 편향들을 제때에 비판 시정하고 당 생활에 대한 제 규범들을 전 당에 더욱 정확히 관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지도적 기관내 당 단체들을 위시한 매개 초급 당 단체들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강화하며 당원들의 당 조직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특히 당 단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당 결정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은 그의 공로와 직위에 관계 없이 전체 당원들에게 의무적이여야 한다는 레닌적 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당、국가 기관、경제、문화、과학 기관의 매개 단위들에서 일군들 간의 혁명적、동지적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 간에 호상 협조하며 호상 교양하며 호상 비판하는 건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철같은 규률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적 규률——이것은 당원들의 정치적 자각과 당성에 기초한 혁명적 규률이다。 당적 규률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강압적 방법으로 규률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거나 반면에 당적 규률이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하여 규률 위반 현상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는 등 편향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흔히 규률을 위반하고 과오를 범한 동지들에 대하여 친절한 교양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를 랭대하며 경원하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오를 범한 당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무시하고 결함만을 일방적으로 그리고 과장하여 한 바탕 때리는 격으로 비판하며 과오의 본질과 과

오를 범하게 된 환경 조건들을 충분히 분석함이 없이 무슨 『주의』니 무슨 『경향』이니 하는 정치적 결론부터 성급히 내림으로써 과오를 범한 당원으로 하여금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여 사실상 그가 오유를 시정하는 데 산 방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당적 비판의 진정한 목적은 동지를 도와 결함을 시정하려는 데 있는 것 만큼 초래된 오유에 대한 본질과 그것이 초래된 환경、그 과오에 대한 당원의 반성 정도들을 객관적 립장에서 정확히 분석 연구하고 시정할 방도들을 탐구하여 그것으로써 과오를 범한 동지를 성심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일부 당원들은 당 회의에서 비판을 받은 지도 간부에 대하여 행정 집무 수행 행정에서 그를 경솔히 대하며 그의 위신을 존중치 않으며 행정 유일 관리제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극히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당 회의에서는 행정적 직위 여하에 관계 없이 평등한 동지적 립장에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또한 리유와 근거가 있다면 응당 비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행정 집무 처리에까지 연장시켜서는 안된다。 비판을 받은 당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더 잘 처리하도록 방조를 주며 행정적 질서와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과오를 범한 일부 당원들에게서도 당적 립장에서 정확히 행동하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바 비판을 받고 위축되여 활기를 잃고 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포기하거나 당적 비판을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그를 시정할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등은 이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동지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한 비판과 충고는 원칙적인 단결을 도모하는 중요한 무기이며 방법이다。 그러므로 동지들을 배후에서 비방하며 동지간의 알륵과 리간을 조성하며 근거 없이 중상 모욕하는 등 극히 유해한 현상들을 견결히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집체적 지도는 당의 통일과 단결의 토대 우에서만 원만히 실현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원칙의 정확한 준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힘차게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당 생활 규범을 가장 란포하게 위반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 파괴하는 종파적 사상 경향과의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는 것은 집체적 지도 원칙을 옹호하며 그를 정확히 준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교시、즉 종파주의는 실지로 협동 활동의 약화에로、또 정권 당인 때문에 덤벼들어 온 적들의 다음과 같은 기도、즉 분렬(당의)을 깊이 넓게 하며 이것을 반혁명의 목적에 리용하려는 집요한 기도에로 이끌어가는 것이며 말로는 당의 통일을 유지하자고 하면서 비밀리에 한 모퉁이에서 독 있는 칼로써 당을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교시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종파주의는 지난 기간에 계속 엄격한 타격을 받았으나 당 내에 아직 남아 있는 소부르죠아 사상 요소를 온상으로 하여 아직도 당의 공고화를 위한 사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응당 종파주의적 사상 요소와의 투쟁을 견결히 계속하여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집체적 지도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당 일꾼들과 당원들의 정치적 자각과 숙련 및 풍부한 경

험을 요구하며 반관료주의 투쟁, 반종파 투쟁들이 철저하게 전개될 것을 요구하며 당 생활의 모든 규범들이 정확하게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 요구에 만족히 수응함으로써 당을 조직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三차 당 대회가 전 당에 제기한 로선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각급 당 단체들과 당 기관들과 당원들의 조직적, 동원적 역할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의 창조적 학습

박 도 수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많이 읽으며 또 구두상으로는 암송을 잘 하고 있으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이 확고하지 못한 일부 동무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무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구체적 정형과 특성을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원칙으로 분석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 당의 정치 경제적 임무와 정책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교조주의적으로 학습하며 맑스—레닌주의의 고전 학습의 목적 및 그 방법이 정당치 못한 데서 산생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의 목적은 두 개의 측면이 호상 배합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주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것과 다른 한 측면으로는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것이다. 한 방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사고 방법을 개조하며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맑스주의 세계관을 확립하고 당성을 단련함으로써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계급 투쟁 법칙과 사회 발전 법칙의 지식으로 무장하며 현실 문제를 리론적으로 해명하여 당의 방침과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의 두 측면은 호상 작용하고 호상 결합되여 있으며 어느 한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호상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상의 두 측면들은 호상 결합되여 결국 혁명 승리를 위해 복무하는 한 가지 목적에 귀착된다.

혁명의 요구에 복무하는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선결 조건은 립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즉 로동 계급의 립장, 계급 투쟁의 립장에 섬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의 본질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실천과의 련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립장, 계급 투쟁의 립장에 확고히 서지 못할 때에는 계급과 계급 투쟁의 리론을 생동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킬 수 없으며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서 일부 동무들은 맑스—레닌주의를 혁명 사업 실천의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공론으로 간주하며 진정한 혁명가로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학습하는 것이 못되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지어는 많이 『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습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맑스주의의 진리

는 리론적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 문제이며 맑스주의가 그 이전의 리론과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은 바로 그의 혁명성과 과학성에 있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세계관이며 자연과 사회의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에 관한 과학이며 전 세계적 체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이다。 이 리론은 근로 인민들의 리익과 전 세계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념원의 과학적 표현이다。 동시에 이 리론은 실제와 리탈되고 근로 대중과 리탈된 부르죠아 사상과는 적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립장에서 리탈되여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리해할 수 없으며 비록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도 없으며 자체의 사상 개조、계급 의식을 강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는 당 생활에서 엄중한 결함을 면치 못하게 되며 개인의 리익을 당과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지 못하며 당적、계급적 립장에 서지 못하고 심지어 종파 행동에까지 이르며 당내 민주주의를『종파의 자유』로 끌고 가며 종파의『유익성』까지도 말하는 반당적 립장에 전락 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체계적이며 중점이 있으며 목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체계적이라 함은 량적인 또는 형식적인 면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맑스、엥겔스、레닌의 저작집을 첫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내려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체계적 학습이라 함은 학습 내용에 있어서、과학적 내용에 있어서 순차성과 련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례하면 자본주의 사회를 잘 리해하려며는 전 자본주의 경제를 리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령 우리들이 프로레타리아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에 있어서는『공산당 선언』을 비롯하여 특히 맑스의 로작『불란서에 있어서의 계급 투쟁』、『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류메르 一八일』、『불란서에 있어서의 국내 전쟁』、『고타 강령 비판』등을 학습하여야 하며 또 이상에서 언급한 고전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학설의 심오한 연구를 위해서 우리들은『공산당 선언』발표 이전의 맑스와 엥겔스의 로작들『도이체 이테올로기』、엥겔스의『영국 로동 계급의 상태』、맑스와 엥겔스의『신성 가족』을 비롯한 일련의 고전들에서의 그의 경제적 및 사상적 기초를 련결시켜 학습하여야 하며 또 맑스—엥겔스의 프로레타리아 혁명 및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학설을 계속 발전시킨 레닌의 일련의 고전들을 반드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이와 같이 체계적인 동시에 중점과 목적이 확고하여야 한다。 중점과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학습 시간에 대한 고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맑스—레닌주의 고전에서 무엇을 왜 배우려고 하는가 하는 원칙적 립장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고전 중에서 어떠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 설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당면한 혁명 실천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나라의 력사에 관한、경제에 관한、정치에 관한、기타 등등의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해명을 요하는 많은 문제들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동지들은 이러한 당면한 많은 문제들 중 그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막연하게 맑스주의 고전을 이것 저것 체계없이 학습한다。

혁명 실천의 일정한 과업을 해결하는 확고한 목적 없이 진행하는 학습은 해당 고전에 서술된 리론 및 명제를 심각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파악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으며 잘되는 경우에 개별적 명제와 문구를 암송하며 학습의 량만 추구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쩨마의 학습에서 곧 흥미를 상실하고 一년에도 수차씩 이것 저것 학습 쩨마를 변경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많은 노력을 랑비하고 아무 것도 소득하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레닌주의 고전의 이러 저러한 쩨마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것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일정한 목적 밑에 선택한 고전들 중에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 고전에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을 소유하자는 것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하여 말씀하면서『그것은 맑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당원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관점、그의 방법 및 혁명적 실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선진 혁명당들의 경험들을 소유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할 줄 알게』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을 인간 사유와 사회 현상에 적용하여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과학에서 혁명을 수행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인간 사유와 사회 현상、사회 력사에 적용한 철학적 유물론적 립장、유물 변증법적 방법 및 력사적 유물론적 관점들을 심오하게 체득하는 것은 고전 학습의 중심 문제로 된다。 물질의 선차성을 인정하며 객관적 사실로부터 출발하며 주관을 객관에 일치시키며 새로운 투쟁 경험으로써 부단히 인식을 제고시키는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적 관점을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서 어떻게 적용하였으며 진리에 도달하였는가를 리해하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을 리해하는 것은 현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발전시키는 기본 립장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사물과 현상들을 어떠한 련계로서、어떠한 관계로서 관찰하였는가를 인식함으로써 모순의 대립과 투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현실을 연구 분석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관점들、례하면 계급 투쟁의 관점、생산의 관점、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관점、군중 관점 등 맑스—레닌주의의 중요한 관점을 비롯하여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정치 경제학、사회주의 리론 기타 구체적 사물과 현상들을 연구 분석한 구체적인 관점들과 그 결론들을 리해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며 이를 우리 나라 혁명 실천에 적용하여 연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특성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임무가 우리 앞에 부단히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교조주의、형식주의를 퇴치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의 심오한 리해를 위해서는 고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리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물 변증법의 정수이다。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에는 력사적 서술과 론리적 서술이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여 있으며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이 통일되여 있다。 이것은 바로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을 그 리론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과 결부

시켜 학습할 것을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결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진리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의 진리성을 정확히 리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항상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에 있어서 그 리론적 원리들을 그의 유래한 력사적 조건들과 결부시켜 학습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리론적 원리가 유래한 력사적 조건을 홀시함으로써 생생한 원리를 고립적인 공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다른 편향으로써 력사적 사실과 조건에만 치중하여 목적성이 명확하지 못하고 력사적 조건과 그 리론적 원리를 분리시키는 태도 역시 반대 극복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적 원리들을 그의 유래한 구체적 력사적 조건들과 결부시켜 학습하는 것은혁명적 실천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맑스—레닌주의의 개별적 낡은 결론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발전시키며 그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새로운 력사적 정형에 근거하여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습의 전형을 우리는 레닌에게서 보고 있다. 일례로서 맑스—엥겔스의 『동시 혁명론』을 제국주의 시기에서 발전시킨 레닌은 한 나라 혹은 수개국에서의 혁명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을 내 놓았으며 오늘 더욱 더 큰 생활력을 가지고 그 정당성이 실증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고전에서 습득한 리론과 방법에 의하여 우리 혁명 발전의 당면한 구체적 정형과 그의 특성들을 분석하며 이 기초 우에서 취해진 당의 정책을 리해하며 그의 관철을 보장하는 것이 고전 학습의 필수적인 요구로 된다. 즉 오늘 당면한 혁명 운동의 특성은 어떠한 것이며 그 속에서는 무엇이 변화 발전되고 있으며 어떠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 운동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즉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건설의 실제, 계급 투쟁의 실제, 과도기의 제반 문제 등과 련결시키며 당 건설의 경험과 전략 전술 연구에 적용하며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 연구에 적용하며 전쟁 방화자 및 로동 운동을 분렬시키려는 반역 도당들을 폭로하는 데 적용하며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개변, 계급 의식 제고를 위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 문제의 이러한 능숙한 해결은 맑스—레닌주의의 리론 지식, 현실 생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이 결핍되고 현실에 대한 리론적 분석이 미약한 경우에는 우리 당의 정책을 높은 리론적 수준에서 리해하지 못하며 우리 당의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원칙성의 일치성을 잘 리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실천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또 그 학습은 현실 생활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밀접히 련결되여야 한다. 그렇치 않은 경우의 고전 학습은 대체로 교조주의의 위험성 혹은 빈 말공부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고전 학습과 현실 연구와의 련계 문제에 있어서 부정확한 리해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고전을 리론으로만 통독하면서 우리 나라 현실에 무관심한 표현도 나타나며 때로는 조급성을 발휘하여 리론의 본질도, 현실에 대한 재료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닥치는 대로 문제를 세워 공담을 하는 현상들도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극복되여야 한다. 또 다른 그릇된 태도로서는 현실 문제를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

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대비 류추하거나 지어는 우리 현실을 가지고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적 원리를 설명하려 하며 또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으로써 우리 혁명의 실천적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고 사회의 실천적 문제 대신에 일상생활에서의 말초적인 현상에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맑스—레닌주의를 비속화하는 현상도 있으며 또는 현실 결부라 하여 문구마다에서 조선 현실을 렬거하는 등 중점이 없고 심중치 못한 표현들도 있다. 이러한 일체 부정확하고 옳치 않은 인식과 태도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본질을 리해함에 지장을 주는 것이며 그 리론의 현실에의 창조적 적용에 장애로 되는 것이다.

현실과 련결된 맑스—레닌주의 학습은 고전 학습과 더불어 현실에 대한 풍부한 투쟁 경험과 동시에 현실적 투쟁에 대한 감성적인 인식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풍부한 재료들을 소유함이 필요하며 우리 당 대회 문헌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학습함이 필요하다.

엥겔스는 『공산주의는 공론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개의 운동인 바 그것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였다. 현실에 대한 풍부한 재료는 고전 학습의 성과를 위하여 필요 불가결의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사회 실천에서 제기되는 현실과 련결시켜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사람 자체의 사상 개조와 결합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근거하여 자기의 프로레타리아트 세계관, 사고 방법을 확립하며 투쟁 방법, 사업 방법, 사업 작풍을 검토하며 사상을 개조하고 계급 의식을 강화하며 당성을 단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맑스주의 고전, 맑스주의 사상을 학습하면서 동지들 간에 혹은 자기 자신의 사상 의식에 남아 있으며 작용하는 온갖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경향과 강력한 투쟁을 요구한다.

맑스—레닌주의는 부르죠아 사상 및 일체 비맑스주의적 사상과의 비타협적 투쟁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전투성이며 당성이다.

맑스—레닌주의 고전은 이 당성으로 충만되여 있다. 이것은 고전 학습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이 어떻게 비맑스주의적 사상과 투쟁하였는가 하는 것을 배우며 이를 실천 속에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 학습에서 이 측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고전 학습이 자체의 계급 의식, 정치 수준의 제고를 위한 진정한 사상 투쟁과 분리되여 진행되는 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결과 맑스—레닌주의의 학습을 많이 했다는 동무들 중에서도 당성이 미약하여 초보적인 당 생활 규범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지어는 도덕적으로 부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상실하는 엄중한 현상이 발로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의 주요 방법이며 기본 방법은 자립적 학습이다. 자립적 학습이란 자립적 사고가 적극적으로 발동됨을 의미한다. 학습에서 가장 유해로운 교조주의, 독경주의, 인용주의는 자립적 사고가 부족한 데서도 기인되는 것이다. 자립적 사고가 없는 학습은 교조주의를 발생하기 쉽다. 맑스—레닌주의의 여러 가지 관점을 적용한 자립적 사고의 결과들을 가지고 집체적으로 토의하며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된다. 우리들의 개인의 인식은 완전성을 기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부동한 관점으로 사색된

여러 사람의 토론을 거쳐 그 내용을 보다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고전을 보다 훌륭하게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집체적 토론 과정에서는 제기된 문제를 해명함에 아무런 리익도 없는 빈말공부만 하는 경향은 반드시 비판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은 신중하고 복잡한 사업이며 이에는 완강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초학자들에게는 처음 학습할수록 더 많은 곤난에 부닥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동지들은 맑스—레닌주의 고전에 대한 통속적인 해설서, 참고서들을 많이 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맑스는 과학에는 평탄한 대로가 없으며 오직 난관을 극복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만이 과학의 절정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사상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극복하며 우리의 혁명 과업을 더 빨리, 더 잘 추진시킬 수 있도록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창조적으로 학습하기 위하여 완강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 발전 법칙, 계급 투쟁 법칙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연구를 경시하며 실제 정형에 대한 조사 연구를 홀시하며 당면한 계급 투쟁의 실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교조주의, 형식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진지하고 창조적인 맑스—레닌주의 고전 학습을 가일층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 특히 간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당적 의무의 하나이다.

끈쏠따찌야

세계는 물질성에서 통일되여 있다

송 택 영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주장은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의 하나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문제는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첫째는 세계의 근본은 물질이라는 세계의 물질성에 대한 주장이다.

세계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활 과정에서 조우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들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유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가 리론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첫날부터 문제로 되여 왔다. 오늘날 전하여지고 있는 신화나 락후한 종족들에 대한 연구들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시 사회의 인간들은 그들의 자연에 대한 무력성과 무식에서부터 이 세상의 기초에 초자연적인 힘——신의 주재(主宰)를 인정하고 그의 조화에 의하여 만물이 발생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례를 들어서 옛날 바빌로니야 사람들은 농경신 마루두크가 괴물 찌아마르(혼돈과 물의 힘의 권화)와 싸워서 이기고 두 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을 우으로 올려 보냈는 데 그것은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피와 진흙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생산이 발전되고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노예 사회에 들어 오면서 사람들은 물질 세계 밖의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연 그 자체로부터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례를 들어서 고대 중국의 『역경(易經)』에는 모든 사물은 『기(氣)』라는 시원 물질의 몽롱한 덩어리로부터 발생하였는 바 기는 양기(陽氣)와 음기(陰氣)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양기는 하늘에 집중되였고 음기는 땅에 집중되였는 바 양기와 음기의 결합과 상호 작용의 결과에 만물이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씌여 있다.

이 사상은 비록 소박하고 유치하지마는 세계의 기원과 그 변화의 원인을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그의 물질성으로부터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그 점에 있어서 유물론적이며 원시적인 환상적 세계관에 비할 때 거대한 전진이며 비약이다。

『역경』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유물론자들은 그 리론적인 수준과 심도에 차이는 있지마는 근본적인 립장에서는 다 같이 세계의 물질성을 승인하고 만물을 물질의 각이한 존재 형태로 보았다。

모든 유물론과 함께 맑스—레닌주의 철학도 세계의 근본을 물질로 보며 모든 사물을 그 물질의 각이한 존재 형태라고 보는 세계의 물질성의 승인의 립장에서부터 출발한다。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근본 명제의 다른 한 측면은 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유물론적 리해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세계의 물질성과 함께 그 통일성의 인정、다시 말하여 세계에 있어서 사물과 현상의 운동과 변화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사실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과학적 인식의 성과들은 세계가 우연과 혼돈의 집적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단순한 실례로서 언제나 어느 때나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물은 낮은 곳을 따라서 흐르며 해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지 여름 다음에 봄이 오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저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의식적으로 반성만 한다면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표현하여 오다싶이 세계에는 리치(理致)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옛날 희랍 사람은 이러한 세계의 통일성을 『로고스』(합법칙성)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세계의 통일성은 과학이 아주 잘 보여 주고 있다。 과학의 법칙들은 그 작용의 범위가 넓고 좁은 차이는 있지마는 모두 다 일정한 사물과 현상들에 공통적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세계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례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모든 三각형의 내각의 총화는 오직 二직각이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三각형이 라는 공간의 통일성을 보여 주고 있다。 물리학에 있어서 물론 력학의 제三법칙은 두 물체가 상호 작용할 때 이 물체들은 서로 크기에 있어서 같으며 방향에 있어서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모든 물체들의 력학적인 상호 작용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보편적인 질서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정치 경제학은 례하면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하된 사

회적 로동 시간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사회의 경제적 현상인 상품 교환도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칙적인 통일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과학의 성과는 이러 저러한 현상 령역에서 통일적인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그 현상들의 통일성을 증시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공통성、세계의 모든 현상들에 작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의 총체적인 통일성도 보여 주고 있다。

례를 들어서 현대의 천문학은 광대한 천체 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발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펙토르 분석이라든가 기타의 현대적인 연구 방법들을 리용하여 각이한 천체들의 화학적 구성의 통일성도 밝혀 내였다。

실험적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 원소들은 일정한 전자파의 그루빠를 방출하면서 분광기에 독특한 스펙토르、즉 일정한 질서에 의하여 배렬된 색선(色線)을 나타 낸다。 그런데 스펙토르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우주의 어떠한 천체에도 우리 지구상에 없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 다른 천체로부터 지구 우에 떨어지는 운석의 구성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철로 구성되여 있고 그외의 원소들도 지구상에 없는 원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은 화학 원소의 원자들은 상호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화학 원소 주기 법칙은 여러 가지 화학 원소들이 통일적인 법칙에 의하여 상호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의 모든 현상 령역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고 있는 에네르기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은 세계에 있는 질적으로 다른 현상들、례하면 력학적인 운동、열、전기 등이 상호 전화되며(그들의 상호 전화는 가령 두 손을 마찰하면 더워지는 경우에도 표현된다) 이 전화가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세계의 총체적인 통일성을 명백히 증시하여 주고 있다。이 법칙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운동 형태들——력학적인 운동、열 운동、전기 운동 등은 상호 전화하면서、즉 력학적인 운동은 열 운동으로、열 운동은 력학적 운동으로 전화하면서 이 전화는 반드시 운동의 용량이 그대로 보존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운동은 이 세계에 없다。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 대한 연구——례하면 심리학、론리학 등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도 무질서한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로써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 사람들이 서로 리해하며 사상적인 교

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심리적 활동의 통일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적 세계의 통일성은 결국 물질 세계의 통일성의 반영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모든 성과는 전체 세계가 작은 소립자(素粒子)에서부터 거대한 별의 천체에 이르기까지 무생명 물질에서부터 생명 유기체、인간과 그의 심리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무질서한 과정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는 합법칙적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 통일성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적 객체들의 구조들이 상호 련관되여 있다는 것、그들이 상호 전화한다는 것 및 그들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법칙들이 있다는 것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형태로 과학의 성과들이 보여 주고 있는 이러한 세계의 통일성을 관념론자들은 정신적인 시원、례하면 『신』、『리념』、『초월적 인격』、사유 등으로부터 설명한다.

종교적 세계관、례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세계와 인간의 운명과 그 질서를 『신』의 『섭리(攝理)』의 결과에 귀착시킨다. 현대 미 영 부르죠아 철학의 소위 『인격주의』자들은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창조자는 신적인 『인격』이며 사물의 변화와 그 변화의 합법칙성은 신적 『인격』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한다.

일찌기 칸트는 세계에 있어서 사물과 현상들의 통일성의 기초를 인간 사유의 『선천적』인 형식에서 찾았다. 칸트는 그의 저서 『쁘롤레고메나(철학 서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성(사유라는 뜻 ── 필자)은 그의 (선천적인) 법칙을 자연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것을 자연에 규정하는 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주관적 관념론자들도 기본적으로 칸트적 방향에서 세계의 통일성을 설명한다. 그들에 의하면 과학의 법칙이 보여 주는 세계의 통일성은 객관적인 물질 세계의 통일성이 아니라 인간 사유의 주관적 구성의 산물이다. 례를 들어서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에서 창조된 현실은 물론 왕년의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모든 물리학적 리론의 목적은 이전과 동일하다. 물리학적 리론의 도움으로 우리들은 발견된 사실들의 미로(迷路)를 뚫고 나가면서 우리의 감성적 지각의 세계를 질서지우고 포착하려고 시도한다』(『물리학의 진화』 一九四八년 모쓰크바판 二六三페지). 즉 아인슈타인의 의견에 의하면 물리학의 리론은 어느 때나 물리적 객체의 운동의 합법칙적 통일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감성적 지각에 론리적인 사고의 힘으로 일정한 질서를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념론자들은 세계의 통일성을 초자연적인 『신』의 조화로부터 설명하거나(종교、혹은 객관적 관념론) 인간 의식 자체에서 설명한다(주관적 관념론).

이와 같은 관념론과는 반대로 유물론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물질성、즉 세계에 있어서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통일적 기초는 물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의 통일성을 그 물질성으로부터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의 여러가지 사물과 현상의 기본은 물질이며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들은 물질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하여、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합법칙성에 의하여 통일되여 있다고 간주한다.

맑스─레닌주의 철학도 세계의 물질성과 물질성에 있어서의 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이와 같은 유물론적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철학에 있어서의 『세계의 물질성과 물질성에 있어서의 세계의 통일성』에 대한 리해는 과학적인 깊이와 철저성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전의 모든 유물론자들의 리해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이 문제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리해의 특징은 우선 그가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유물론의 명제를 철저하게 사회 생활의 령역에까지 관철시킨 데 있다.

맑스 이전 유물론자들도 자연 현상에 대하여서는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관한 유물론적 견해를 고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전부가 다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개인들 특히 걸출한 개인들의 욕망、사상 등을 발전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회 생활의 물질적 통일성의 리해 즉 력사적 유물론적 리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들도 유물론자인 만큼 력사 발전이 『신』이나 『조물주』의 『섭리』와 『조화(造化)』에 의하여 결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여 싸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생산적─경제적 생활이 사회 생활의 기초이며 정치적、사상적 생활은 그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과 생산적─경제적 생활에는 어떠한 걸출한 사람의 의사로써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회적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었다.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유물론의 명제는 오직 맑스─레닌주의 철학에 의하여서만 철저하게 사회 생활의 령역에까지 확장되였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자연의 물질적 통일성에 관한 유물론적 명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력사적 유물론의 발견에 의하여、즉 사회의 물질적 생활에 의하여 정치적、정신적 생활이 규정되며 물질적 생활에는 그

자체의 객관적인 발전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함으로써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관한 유물론의 명제를 모든 령역에 철저하게 관철시켰다.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해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 유물론적 명제를 최신 과학 발전의 성과를 일반화한 토대 우에서 변증법적인 발전관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 이로써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유물론적 명제는 보다 심각한 내용으로 풍부한 사상으로 발전되였다. 다음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로 하자.

맑스—레닌주의적 물질관

물질은 세계의 근본적인 실재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물질을 모든 변화의 주체, 혹은 인간의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라고 정의한다.

물질의 가장 중요한 본성의 하나는 사람이 그것을 새로 만들어 낼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데 있다. 물질은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에로 상대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지마는 절대적으로 새로 창조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례를 들어서 우리들은 물을 수증기로 혹은 얼음으로 전화시킬 수는 있지만 물을 무(無)로 만들어 버릴 수는 절대로 없다. 비록 물질은 이 사물로부터 저 사물에로 부단히 전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질은 영원히 보존된다.

『물질 보존의 법칙』은 자연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법칙이다.

이와 같은 물질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리해는 관념론적 물질관이나 형이상학적 물질관에 정면으로 대립된다.

관념론자들은 물질의 객관성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초자연적인 정신적 존재』나 주관적 의식의 산물 이라고 주장한다. 례를 들어서 현대 부르죠아 철학의 이름난 대표자의 한 사람인 영국의 베•랏셀은 물질의 객관적인 실재성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은 붉다」고 말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붉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붉은 질을 가진 개인적 감각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론리적 구성——여게는 붉다는 것만을 의미한다』(『정신의 분석』).

즉 베•랏셀의 주장에 의하면 물질은 객관적인 실재나 그가 말하는 소위 『감각』이 아니라 판단의 주사 『이것』으로 표현되는 『론리적 구성』의 산물에 불과하다.

또한 일련의 부르죠아 물리학자들은 현대의 원자 및 핵 물리학에서 얻어진 성과가 『물질의 소멸』을 의미하고 있는 것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물질의 객관적인 실재성을 부인하는 부르죠아 관념론자들의 주장의 허위성은 전혀 명백하다. 왜냐 하

면 물질은 소위 『론리적 구성』이 있기 전에, 인간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무한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또 물질은 결코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의 부르죠아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운동에 있어서의 에네르기와 질량의 상호 련관의 법칙을 『질량의 에네르기에로의 전화』 및 『물질의 소멸』의 증거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립자의 운동에 있어서 에네르기와 질량의 상호 련관, 즉 에네르기가 커지면 질량도 커지고 반대로 질량이 크면 에네르기도 커지는 사실은 결코 질량의 에네르기에로의 전화나 더우기 『물질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립자의 운동에서 『물질의 소멸』을 론거지우려고 하는 부르죠아들의 주장은 질량을 물질과 동일시하며 에네르기의 변화와 질량의 변화가 일정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을 상호 전환으로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질량은 물질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속성의 하나이며 에네르기와 질량의 상호 련관의 법칙은 소립자들의 운동에 있어서 에네르기와 질량의 변화의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맑스—레닌주의적 물질 개념은 물질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관념론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대립될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물질관과도 대립된다. 형이상학자들은 물질을 물질의 일정한 종류, 일정한 운동 형태와 동일시한다. 례를 들어서 一七—一八세기 영국의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뉴톤은 자기의 력학적 표상에서부터 물질을 질량과 동일시하였으며 一八세기 불란서 유물론자들은, 물질은 불변의 동일한 립자들로 구성되여 있다고 보면서 력학적 운동의 표상에만 관련시켰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적 물질 개념은 물질을 일정한 사물, 일정한 운동 형태에 귀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발견하고 인식한 물질의 일정한 종류 혹은 운동 형태들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보아서 무궁 무진한 물질의 존재 형태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으로써 물질의 전 본질을 절대로 규정해 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적 물질관과 변증법적 물질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의 구성 및 그의 속성에 관한 온갖 과학적 명제가 근사적이며 상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연에는 절대적 한계는 없다는 것, 운동하는 물질은 한 상태에서 다른——우리의 보통의 견지에서 보면 일견 이전의 상태와 불상용적인 것같은——상태로 전화한다는 것 등을 주장한다』(전집 一四권 二四八페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적 물질 개념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인식의 력사의 총화이며 따라

서 이개념에는 물질의 본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반영되여 있다。 맑스—레닌주의적 물질 개념의 깊이와 그 변증법적 의의를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에 관한 철학적 개념과 물질의 일정한 존재 형태에 관한 개별 과학적 표상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개별 과학들——례하면 물리학、화학、생물학、경제학 등은 물질 존재의 일정한 형태들의 구조와 운동 법칙들을 연구한다。 력사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물질의 구조와 운동 법칙에 대한 개별 과학적 지식은 력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발전되여 왔다。 과학 발전의 총 력사는 례를 들어 우리가 물리학사(史)、생물학사(史) 하나 하나를 들고 볼 때 일정한 물질의 구조와 운동 법칙에 대한 인류의 인식의 심화를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도 인류는 계속하여 물질 세계의 보다 깊은 구조와 운동 법칙들을 발견하여 갈 것이며 여기에는 완성과 정지가 없을 것인 바 왜냐 하면 물질 세계는 무궁 무진하며 또한 물질 세계는 부단히 변화 발전하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물질 세계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와 그 운동 법칙을 연구한다。 례를 들어서 기하학은 구체적인 공간 형식들——삼각형、원(圓) 등의 구조와 그 합법칙성들을 연구한다。 그러나 철학은 공간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특성들을 문제로 삼는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질의 맑스—레닌주의적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물질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물과 구별되는 물질 일반의 개념은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여러 자지 사물들을 그 일반적인 특징에 따라 요약한 략칭이라고 에프·엥겔스는 썼다(「자연 변증법」一九五三년판 一八七페지)。

그러나 물질 세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물질의 철학적 개념은 그 일반적 성격에 있어서 일정한 물질 형태와 운동 법칙에 관한 개별 과학적 표상과 구별되지마는 물질 일반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물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만큼 물질의 철학적 개념은 개별 과학적 표상과 불가분적 련계에 놓여져 있다。 즉 물질의 철학적 개념은 일정한 물질 구조와 운동 형태에 관한 개별 과학적 연구의 총화이면서 반대로 물질의 일정한 존재 형태、운동 형태들을 연구하는 개별 과학들은 물질의 철학적 개념을 자기의 연구 대상에 대한 리해에 있어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의 맑스—레닌주의적 개념을 관찰할 때 그것은 물질 세계에 대한 인류의 전 인식사(史)의 총화이면서 그것은 물질 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물질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그 객관적 실재성이다。 물질은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의식 밖에 또는 의식이 없을 때에

도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관념론을 반대하면서 물질의 객관성에 대한 유물론적 명제를 고수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물질을 물질의 일정한 종류、운동 형태와만 관련시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왜냐 하면 물질의 세계는 무궁 무진하여 물질 세계에 대하여 현재 도달된 일정한 관념들은 결코 물질의 본성을 남김 없이 해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례를 들어서 물리학의 발전은 인류가 물질 세계의 물체적 구조와 그 운동 법칙의 해명에 깊이 침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질의 물체적 구조에 관한 추측은 이미 고대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례를 들어서 고대 희랍의 원자론자들은 여러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우리가 눈 앞에 보고 있는 물체들은 어떤 극소한 립자——원자로 구성된 것이며 이들 원자의 다양한 결합과 련결의 다양성에 따라 사물들의 다양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견해는 아주 천재적인 추측이였지만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아니였다。

그후 과학적 원자론은 一八세기 이후에 급속히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 엠·웨·로모노쏘브는 분자에 대한 과학적인 규정을 주고 분자와 원자의 질적인 차이에 관한 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는 원자를 분할할 수 없는 물질의 립자로 보고 분자는 약간의 원자의 결합으로 보았다。

물질의 원자—분자적 구조에 관한 리론은 과학의 그후 발전에 의하여 심화되였다。 원자들은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공고한 구조를 가진 분자로 되여 있다는 것이 확정되였으며 아·엠·부뜰레로브는 복잡한 분자의 화학적 구조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였다。

그후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 데·이·멘제례예브의 화학 원소 주기 법칙의 발견은 과학적 원자론의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다。 그의 화학 원소 주기률표는 화학적 원소들의 속성과 그 원자량과의 련관의 주기적 성격을 통일적인 체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후 물리학과 화학의 가일층의 발전은 원소의 성질들이 원자핵의 충전량에 주기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원소의 원자들의 질적 차이는 그 핵의 충전의 량적 차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였다。 례를 들어서 멘제례예브의 주기률표의 九二번에 위치하고 있던 우란의 핵의 충전은 九二단위이다。

데·이·멘제례예브에 의하여 발견된 주기 법칙은 화학적 원소의 상호 전화의 인정에로 과학을 이끌어 갔으며 현대 물리학이 원자 내부 구조의 해명에 침투하는 기초로 되였다。

과학적 원자론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단계를 이루

는 것은 一九세기 말과 二〇세기 초엽에 있어서의 현대 물리학의 발견들이다. 이제까지 과학자들은 원자를 물질의 최소 립자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一八九五년에 렌트겐선이 발견되고 一八九六년에 방사능 현상이 발견되였다. 一八九七년에는 새로운 립자——전자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확증되였다.

방사능 현상에 대한 연구는 방사능 원소들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의 방출이 최초의 방사능 원소가 다른 방사능 원소로 전화하는 결과로 새로운 원소가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되여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 실험적 및 리론적 연구의 토대 우에서 점차 원자 구조에 관한 리론이 완성되기 시작하였는 바 오래 동안 원자는 두 종류의 소립자——양자와 전자로써 구성되여 있다고 생각되여 왔다. 또한 초기에는 원자핵은 양자와 일부 전자로 구성되여 있으며 그 밖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생각되였다.

그러나 一九三二년에 중성자라는 양자의 질량의 크기에 가깝고 대전하지 않은 새로운 소립자가 발견되였으며 一九三七년에는 메존 립자가 발견되였다.

그리하여 원자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였으며 그것들은 특별한 핵력에 의하여 련결되여 있는 바 여기서 메존은 중요한 역할을 논다.

그런데 핵의 베타—붕괴시에 전자가 분리되는 데 핵의 양자—중성자적 구성에 관한 표상에 의하면 핵내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베타—붕괴시의 전자 방출은 마치 빛의 방출 과정에서 포톤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대전하지 않은 극히 적은 질량을 가진 립자 뉴트리노를 발견하였다.

一九三二년에 또한 포지트론이라는 새로운 립자가 발견되였다. 이 립자는 방사능 원소의 원자에서 방출될 수 있다. 베타—붕괴시에 포지트론의 발생은 원자핵 안에서 양자가 중성자로 전화하는 결과에 발생하며 전자의 발생은 그 반대 과정인 중성자의 양자에로의 전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이리하여 현대 과학은 원자 구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즉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여 있으며 핵으로부터 비교적 큰 거리를 두고 핵 안의 양자와 동수의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핵 안에는 양자와 중성자를 련결시키는 특별한 핵력이 있다. 핵 안의 립자들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메존은 특수한 역할을 논다. 핵의 전화 과정에서 일련의 소립자들——전자、포지트론、뉴트리노 및 포톤이 발생한다.

이들 소립자들 중에서 양자、중성자、전자、포지트론、메존、뉴트리노는 물체적 립자에 속하며 「정지 질량」을 가지고 있다. 다른 립자들 례하면 포톤은 마당 립자에 속하는 바、그것은 물체적 립자와 질적으로

다르며 「정지 질량」은 없고 다른 성질의 질량을 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빛의 속도)로만 운동한다.

이와 같은 소립자 들의 운동은 종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특수한 량자적 합법칙성에 복종되고 있다.

물론 현대 과학이 해명한 원자 구조가 물체의 최후적 구조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소립자들도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과학은 앞으로 그들의 구조도 또한 해명하고야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달성된 물질의 일정한 종류、운동 형태에 관한 과학적 표상으로써 물질의 철학적 개념을 규정할 수 없다.

물질의 철학적 개념은 물질 세계가 무궁 무진하며 그에 따라서 물질 세계에 대한 일정한 과학적 표상도 가변적이라는 것을 념두에 두면서 물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인간의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실체)라는 규정을 준다.

물질의 근본적인 존재 형식은 운동、공간、시간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물질을 인간 의식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운동을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으로 보면서 물질과 운동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때로는 운동으로써 물질을 규정하면서 『물질은 모든 운동의 주체』(맑스)라고도 말하였다.

운동은 물질과 상호 분리시킬 수 없는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며 그 존재 형식이다. 이 세상에는 운동 없는 물질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물론 우리들은 일정한 정지 상태——례하면 책상이 그대로 자기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든가 혹은 일정한 기간 동일한 책상으로 남아 있다는 상대적 정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지는 어디까지나 운동의 한 모멘트로서의 상대적인 정지에 지나지 않으며 절대적 정지는 있을 수 없다. 책상의 정지 상태도 운동하는 지구 우에서의 상대적인 정지이며 일정한 사물、례를 들어서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일정한 력사적인 기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남아 있는 것도 그 안에 부단한 변화를 내포하며 또한 앞으로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로의 이행을 예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지 즉 운동 없는 상태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운동 없는 물질은 있을 수 없다.

물질을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절대적인 물질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정지를 절대화하는 때에는 불가피적으로 형이상학에 떨어진다.

생물계에 있어서 생물 유기체가 생활 환경과의 상호 작용하에서 획득한 일정한 특성을 보존하며 다음 세

대에 유전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성은 생물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여 자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변이성의 토대 우에서 발생하며 생물 유기체의 부단한 변화의 한 모멘트、결절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형이상학자들인 멘델—모르간주의자들은 생물 유기체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적 정지의 표현인 유전성을 절대화하면서 생물계의 발전을 부정한다。

다른 방면으로 운동을 물질로부터 분리시켜서도 안된다。 물질로부터의 운동의 분리는 불가피적으로 관념론으로 이끌어 간다。 왜냐 하면 「물질은 모든 변화의 주체」이며 운동은 바로 물질적 주체의 존재 형식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물질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경향은 현대부르죠아 학자들의 「에네르기론」에도 표현되여 있다。 그들은 물질 운동의 척도이며 한 운동 형태의 다른 운동 형태에로의 전화를 특징지우는 에네르기를 실체시하면서 물질은 소멸하고 에네르기만이 남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그 자연 과학적 근거를 『에네르기와 질량의 상호 련관의 법칙』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례를 들어서 현대 『물리학적 관념론』자인 까•체이즈는 『현대 물리학의 혁명』에서 『에네르기와 질량의 상호 련관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엄격히 말하면 현재에 있어서는 물질은 에네르기의 형태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관념론이며 마치 공기 없는 바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도 같다。

이와 같은 관념론적 기도를 반대하면서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운동을 물질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동시에 물질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운동은 운동의 주체인 물질을 소멸시키거나 창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소멸시킬 수도 없으며 창조할 수도 없다。 이 세계에 있어서 물질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면서도 소멸되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운동도 비록 여러 가지로 변화는 하지만 그대로 보존된다。

이 사실의 자연 과학적 확증은 자연의 절대적 법칙인 「에네르기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다。

일찌기 一七四八년에 로씨야의 위대한 학자 엠•웨•로모노쏘브는 『물질 보존의 법칙』과 긴밀한 련관하에서 운동 보존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다。 이 사상은 一九세기 四〇년대에 발견된 『에네르기 보존 및 전환의 법칙』에서 가일층의 발전을 보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물리—화학적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운동——력학적、열적、전자기적 운동 등이 있다。 이런 운동 형태들은 상호 전환할 수 있는 바『에네르기 보존 및 전환의 법칙』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이들 운동 형태의 상호 전환은 반드시 운동의 량적 보존의

조건하에서 표현된다。 이 법칙은 자연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바 그것은 운동의 불멸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명제의 자연 과학적 확증으로 되고 있다。

운동과 함께 시간과 공간도 물질의 근본적인 존재 형식이다。 시간과 공간、물질과 운동과의 상호 관계를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으며 운동하는 물질은 공간과 시간 밖에서는 운동할 수 없다」(전집 一四권 一六二페지)。

이와 같은 맑스—레닌주의적 시—공간관은 관념론적 및 형이상학적 시—공간관과 근저에 있어서 대립된다。

관념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물질의 객관적인 존재 형식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인식의 주관적 형식으로 생각한다。

일찌기 칸트는 시—공간을 인간의 감성적 직관의 선천적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현대 부르죠아 사상가들도 시간과 공간의 객관성을 극력 부정하려고 시도한다。 례를 들어서 부르죠아 물리학자 보어와 하이젠베르그는 소립자들의 운동은 시—공간에서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념론적 시—공간관과 달리 맑스—레닌주의는 시—공간의 객관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시—공간의 객관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주장을 형이상학적 시—공간관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력사가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시—공간의 객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시—공간을 운동하는 물질에서 분리시키는 형이상학적 견해들이 있었다。 례를 들어서 뉴톤은 물질과 분리된 「절대 공간」、「절대 시간」을 표상하였다。

그는 공간은 마치 물체를 담은 용기와 같이 물질적 객체에 의존하지 않으며、언제나 어데서나 동일하며 시간은 물질 운동으로부터 독립되여 있는 균등하게 흐르는 지속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절대적」 시—공간관은 유물론적이지만 형이상학적이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시—공간을 물질 운동과 분리시켜 보았으며 고정 불변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발전은 「절대적」 공간 및 시간에 관한 뉴톤적 형이상학적 시—공간관을 반박하면서 시—공간은 물질 운동에서 분리시킬 수 없으며 그것들은 운동하는 물질적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그 속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시—공간을 운동하는 물질의 존재 형식이라고 주장하는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명제를 확증하고 있다。

시간은 물질적 과정의 계속성과 계기성을 특징지우며 물질 운동의 객관적인 련결을 표현하는 물질의 존재 형식이다。 이런 객관적인 시간을 인간은 상대적으

로 일정한 물체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시간의 특수성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며 뒤로 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공간은 물질적 대상의 연장성을 표현하는 물질의 존재 형식이다. 공간의 특성은 그의 三차원성에 즉 공간의 매개 점을 통하여 오직 세 개의 상호 수직되는 직선만을 그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우리들은 수학이나 물리학 등에서 三차원 이상의 「다 차원 공간」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三차원 공간 외에 시간 혹은 운동량 등 물체 운동의 다른 속성들을 표현하기 위하여서이다. 실재적 공간은 오직 三차원이다.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은 물질을 떠나서 물체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물질 자체의 존재 형식이다. 운동하는 물질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다는 사실은 물질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속성의 의존성에서 표현되여 있다.

현대 물리학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고속도 운동에 있어서는 시간의 길이는 외적 조건과 특히 그 립자의 속도에 따라 변화된다. 또한 일정한 물리적 조건 즉 그 운동 속도를 떠나서 일정한 립자의 절대적인 크기를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 주고 있다.

공간의 물질적 객체에 대한 의존성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구별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로바쳅쓰끼의 기하학의 출현이 아주 잘 보여 주고 있다.

기하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부 세계의 공간적 속성을 연구한다. 이 기하학은 옛날 아렉산드리아의 수학자 유클리드에 의하여 그 과학적 기초가 주어진 후 부단히 발전되여 왔는 바 기하학에 있어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로바쳅쓰끼 기하학은 아주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평행선의 공리』 즉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을 통과하는 평행선은 동일한 평면에서는 오직 하나만을 그을 수 있다는 공리가 있다.

그런데 로바쳅쓰끼는 이와 달리 소여의 점을 통과하는 평행선은 동일한 평면에서 적어도 두 개를 그을 수 있다는 립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아주 다른 기하학의 체계를 수립하였는 바 례하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어서는 三각형의 내각의 총화가 二직각이라면 로바쳅쓰끼 기하학의 체계에서는 三각형의 내각의 총화는 二직각보다 적다.

기하학이 현실적인 공간적 관계의 반영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아주 다른 공간의 성질을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기하학의 체계의 발생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이 기하학의 적용 범위를 보면 명백히 된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지구상의 보통 조건하에 적용될 수 있는 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지구상의 보통 조

건의 공간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로바쳅쓰끼 기하학은 특히 큰 우주적 규모의 공간과 원자내 규모의 공간 조건에 적용되는 바 그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특수한 경우로 포함하면서 아주 큰 규모의 공간과 미시 세계 과정의 공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간의 성질이 운동하는 물질적 객체의 상태와 밀접하게 련관되여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공간과 시간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그 무한성에 있다. 공간의 무한성은 물질 세계가 각 방향으로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며 시간에 있어서의 무한성은 물질 세계에 시초와 종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과학의 성과는 물질 세계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례하면 현재 연구된 우주 령역의 규모의 크기만 하여도 항성계의 먼 별로부터 광선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一○○만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표현되여 있다. 그 밖에도 무한한 우주가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질 운동 형태의 질적 다양성과 그 발전 법칙의 객관성

이와 같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서 운동하고 있는 물질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바 물질 세계에 있어서 사물과 현상들의 운동 형태는 다양하다.

례를 들어서 자연계에는 력학적 운동 즉 공간에 있어서 물체의 장소 이동도 있고 물리—화학적 변화도 있고 또 생물 유기체들의 생존 활동도 있다. 력학적 운동, 물리 화학적 운동에도 다양한 운동 형태들이 있다. 례를 들어서 력학적 운동도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 포물선 운동 등 각이한 것이 있다. 물리적 운동에도 열 과정, 전자기적 과정 등 다양하다.

화학적 운동에는 원자의 결합과 분해의 각종 과정들이 있으며 생물계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의 각양한 생활 형태들이 있다. 사회 생활에도 인간의 생산 활동에서부터 사유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동 형태들이 있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물질 세계의 이런 다양한 운동 형태들을 개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 형태들을 구별한다. 즉 력학적 운동, 물리적 운동, 화학적 운동, 생물학적 운동 및 사회적 운동이 그것이다. 이외에 최근에 소립자들의 운동을 운동의 기본 형태의 하나로 보자는 의견도 있다.

이런 운동 형태들에는 각각 독특한 운동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 력학적 운동에는 력학의 법칙들이, 생물계에는 생물학이 밝히고 있는 그런 법칙들——례하면 변이성의 법칙, 계단 발전의 법칙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보다 고급한 운동 형태들——례하면 물리 화학적 과정은 력학적 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과정은

물리 화학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보다 고급한 운동 형태를 낮은 운동 형태에 귀착시킬 수는 없는 바 그것은 보다 고급한 운동 형태는 낮은 운동을 포함하면서도 그 운동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고유한 운동 법칙에 종속되기 때문이다。례하면 물리 화학적 변화는 생물 유기체 내에서도 부단히 진행된다。그러나 생물 유기체의 운동을 물리 화학적 과정에 귀착시킬 수 없으며 이 과정에는 그의 구조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생활 환경과의 물질 대사가 고유하며 거기에는 그 과정을 규정하는 독특한 생물학적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운동의 여러 형태들은 물질 세계의 통일성의 기초 우에서 상호 련관되여 있지만 높은 운동 형태는 낮은 운동과 질적으로 구별된다。

법칙이란 이와 같이 다양한 물질 운동의 내적 메하니즘과 련관을 가르쳐 말한다。례를 들어서 잉여 가치의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 활동 과정에서 그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자본가와 로동자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법칙이다。

법칙의 특성은 그런 관계가 일정한 운동 형태에서 반복되여 그런 형식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잉여 가치의 법칙이 작용하며 거기에서는 반드시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의 잉여 로동을 착취한다。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에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생산물의 분배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이 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일반적인 필연적 법칙이다。

이와 같은 법칙들은 객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그것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물질 세계의 관계이다。법칙들은 그것이 물질 세계의 본성 자체의 표현인 만큼 사람들이 마음대로 창조할 수도 없으며 소멸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하여 일정한 과정을 촉진 혹은 지연시키며 그 작용 범위를 국한시킬 수는 있다。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그에 기초한 맑스—레닌주의 당의 정당한 정책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그러나 만일 당의 중요한 정책상의 오유들이 있을 때에는 이 과정이 비상히 지연될 수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일정한 사회적 법칙들, 례하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작용하고 있는 잉여 가치 법칙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자본가적 소유의 페절을 통하여 그 작용이 소멸되는 만큼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로 객관적 법칙의 작용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물론 사회주의 혁명에 따르는 잉여 가치 법칙의 작용의 소멸은 사람들의 혁명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회적 법칙의 어떤 것들을 소멸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사회적 법칙을 고찰하여 보면 거기에는 사회 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작용하는 법칙——례하면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같은 것도 있고 비교적 짧은 기간、례하면 잉여 가치 법칙과 같이 한 생산 방식의 기초 우에서만 작용하고 있는 법칙도 있다。

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이 인류 사회의 전 기간에 걸쳐서 작용하며 인류가 그 작용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법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작용하는 경제 법칙이며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그 작용이 소멸되는 바 그러나 로동 계급은 이 법칙을 마음대로 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회학적 법칙——생산력의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필수적 적응의 법칙、계급 투쟁의 법칙의 작용에 기초하여 잉여 가치 법칙의 작용 조건을 청산함으로써 그 작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의 철학은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과 그 발전 법칙의 객관성을 주장한다。이 맑스—레닌주의적 명제는 현대 과학의 제 자료에 의하여 인류의 진보적 실천의 경험에 의하여 그 진리성의 확증을 받고 있다。

이 맑스—레닌주의 철학의 기본 명제는 과학적 연구와 실천적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물질성에 관한 명제는 우리들을 관념론에 대한 비판과 과학적인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준다。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사상적 기초로 된다。

세계의 물질성에 대한 명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학적 연구와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주관주의를 경계하게 하여 준다。왜냐하면 물질 세계——자연과 사회에 있어서 사물과 현상들이 객관적인 과정인 만큼 우리들은 그것을 임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과정을 충실히 사물 자체에 따라서 연구하고 그로부터 결론을 짓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물질과 운동의 불가분리성에 관한 명제는 우리 당이 현재 절실히 그에 대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준다。물질과 운동이 불과분적으로 련관되여 있는 만큼 우리는 일정한 운동을 그 물질적 주체로부터 분리하여 고찰하여서는 안된다。만일 그런 때에는 반드시 교조주의에 떨어 진다。례를 들어서 사회주의에로의 전진 운동——이것은 현 시기에 있어서 인류 사회의 필연적 과정이다。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에로의 이 운동을 반드시 그 물질적 주체인 해당 사회의 구체적 조건과 결부시켜 고찰하여야 한다。우리 나라에 있어서

도 다른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같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지만 우리 혁명의 주객관적 조건과 형제 나라들의 그것과는 결코 동일할 수는 없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적인 공통성들이 있다. 그러나 상호 개별적인 특수성들이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사회 발전의 특성들을 깊이 연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 경험들을 부단히 배우면서 그 경험과 일반적 결론들을 우리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물질과 운동의 불가분적 련관에 관한 명제는 다른 측면으로 물질을 운동 밖에서 보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나라 현실을 고정 불변한 것으로 보지 말며 일상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한 부단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운동 형태의 질적 다양성에 관한 명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학적 연구나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문제의 처리 방식들을 가르쳐 준다. 비근하게 실례를 들어서 우리들이 자기의 결함을 분석할 때에도 자기의 자연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소질상의 결함과 사상—정치적 의식 수준의 준비 정도의 부족에서 오는 결함의 측면을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세계의 물질적 통일성의 명제는 세계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특히 우리들에게 경험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가르쳐 준다. 왜냐 하면 세계는 통일되여 있으며 매개 사물과 현상에는 세계의 통일적 과정의 한 결절점으로서 객관적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론 없이 깊은 연구 없이 행동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리론에 의해서 활동하여야 한다. 리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험주의적 립장은 리론의 적극적인 역할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가피적으로 변동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하며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한다.

독자들의 편지

기술 교육 사업에서의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 하자

강선·제강소
기사장 리 재 천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동시에 경공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 부문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계속 취하고 있다. 즉 금속 기계, 광산, 철도 등 전체 공업 분야에 걸친 대학과 전문 학교들을 많이 설립하였으며 기술 교육 사업을 현장에 접근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직장 고등 기술 전문 학교, 직장 야간 기술 전문 학교 및 직장 기능 전습 체계를 조직하는 등 기술 교육 사업의 강화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의 기술 교육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우리들은 적지 않은 경우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기대하는 바 그러한 성과를 다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사업에서 주체를 상실하며 형식적이며 교조주의적인, 그리고 근시안적 교육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지속하고 있다. 우선 현재 각종 기술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교육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교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공업이 처하고 있는 발전 단계와 그로 인한 생산 공정의 특수성에 대하여 적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제가 조선에 건설한 공업 설비, 특히 중공업 설비는 주로 일본 공업의 원료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바 그것은 선철과 원료강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과 채취 공업들이다. 더우기 일본 공업은 자본주의 발전의 후반기에 발전한 공업으로서 그 력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이 리윤을 최대 한도로 자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로동자들에게 육체 로동을 많이 강요하면서 생산 설비들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계화가 적게 도입되였으며 주로 구식 설비를 많이 설치하였다.

실례로 강재 압연기를 들면 기본 스탠드는 압착 저항력에 이

저낼 만큼 기계적인 강도를 갖고 있으나 생산성을 좌우하는 주전동기와 그의 전동 장치들의 능력은 기본 스탠드에 비하여 극히 미약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기계 장치는 최소 한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며 내부 작업은 고열 앞에서의 로동자들의 육체 로동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공작 기계인 선반의 례를 들면 그의 기본 벨트는 강력하나 절삭 속도가 더디며 부대 동작이 완만한 구식 선반이 주로 설치되였다。 이와 같은 실례는 대부분의 직장 설비들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강선 제강소에서는 그가 전설 도상에 있었던 실정에 비추어 더욱 혹심하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보아 우리 기술 교육 사업은 우리 나라 공업의 편파성을 퇴치하며 자립 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며 기존 생산 설비를 계속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이게 하며 중로동을 경로동으로, 기계화하며 이를 또한 자동화로 전환시키며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특성에 의하여 기술 공정을 계속 개선 하게끔 진행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우리 나라 공업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에서 주동적 역군으로 되도록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흔히 선진 국가들의 교재를 그대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기술 일꾼들이 우리 나라 현실에 어둡게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학과 전문 학교 교과서를 보면 선진 국가들의 광석과 석탄의 화학 성분표는 소개되여 있으면서도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광석、석탄、주물사、내화 점토 등의 성분은 적게 소개되여 있다。 뿐더러 선진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강철의 기술 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공정에 대하여서는 학습하게 되여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특징적인 기술 공정에 대하여서는 교수 시간을 적게 잡았거나 또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다。 결과 학교를 방금 졸업한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가 처하고 있는 공업 정형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그들은 외국에서 사용하는 기술 공정과 원료만 많이 요구하면서 우리 나라의 원료와 기술 공정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게 또는 꿈뜨게 진행하고 있다。 물론 선진 국가들의 높은 리론과 교수 제강을 인용함으로써 선진적이며 풍부한 리론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교과서를 그대로 소화시키는 경향은 좋치 못할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례를 들면 선진 국가 교과서에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번역된 많은 교과서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공업 술어 대신에 외국의 공업 술어를 직역 사용함으로써 현장 일꾼들은 리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어 우리 나라 학생들의 습성을 무시하면서 교과서의 목차를 책 끝에 부침으로써 독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실까지 있다。

둘째로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설비에 관한 기술 지식을 주는 데 주의를 적게 돌리고 있다。 특히 이는 금속 부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에서 심하다。 현대의 공업은 방대하고도 정밀한 기계와 전기 설비로 장비되여 있으며 공업 발전의 력사는 기술 공정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되는 공업 설비의 개선 발전의 력사이다。 그러므로 현재 기술자들의 역할은 공업 설비를 부단히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로동 생산성을 제고하며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중로동을 경로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는 설비에 대한 교육을 적게 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는 리론 력학이나 도학 리론、야금 분과나 가공과 학생들에게 야금 공정 및 압연 리론에 대하여서

는 상세하게 교육시키지만 그의 설비에 대하여서는 적게 관심을 돌리고 있다。 때문에 야금 기사가 야금 계통 설비를 모르며 압연 기사가 압연 부분 설비에 대하여 어두운 현상이 있다。 이러한 기술자들은 자기 기계 요소에 관한 지식이 미약하므로 설비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며 내놓치 못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자체가 설비를 개선하는 기술자이면서도 다른 기술자에게 설비를 개선해 줄 것을 의뢰하며 간단한 설계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채 오래 끌고 있다。 실례를 들면 어떤 대학을 졸업한 기사가 『부이뿌—리』를 설계함에 있어서 규격 벨트에 맞지 않게 설계하였으며 또 어떤 기사는 소둔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실지 사용 가치가 없게 함으로써 수다한 자재와 로력의 랑비를 초래한 일이 있었다。 또한 일부 전기 야금 기사는 전기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로체의 경 로상의 깊이、용금의 깊이、용금면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높이 및 변압기 능력 등의 륜각적인 로 설계는 자체로 하지만 실지 로를 설치하기 위한 로체의 기초부터 시작하여 일체 부대 설비와 생산 도구까지의 상세한 완전 설계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떤 연구소나 또는 다만 리론만을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 일꾼들을 양성하는 목적은 다만 연구소나 과학원에서 연구만 하는 일꾼들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일꾼 양성의 주목적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요구되는 기술 인재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일꾼들은 자기 전문 부문의 한개 공정에 대한 리론만 갖고는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비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쏘련에서와 같이 분업이 발전되였으며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전문화가 세분화된 조건에서는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 나라의 공업은 발전 도상에 있으며 개선하여야 할 설비의 비중이 크며 게다가 기술 인재가 적은 사정에 비추어 생산 관리 기술자들이 설비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실례를 들면 중학교 정도의 졸업생이 전기로 용해공을 한다면、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용해 기술 공정에 대하여서는 세밀하게 료해하며 용해 공정 개선까지 고안할 수 있으나 그의 설비를 개조하기 위한 지식을 소유하자면 경험만으로는 곤난하다。

그러므로 기술자들이 용해 공정만 알고 설비 능력의 개선에 대하여 모른다면 용해공과 다른 점을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또 학교에서 륜각적이나마 설비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것마저 많은 경우에 선진 국가의 설비에 대하여만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선진 국가의 설비를 교수함으로써 우리 나라 공업의 락후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깊은 지식을 학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 현실을 모른다는 것은 그가 소유한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즉 많은 경우에 우리 나라의 설비들은 낮은 수준에 있으며 형식상 낡은 것이 적지 않게 있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 압연 직장들에는 적지 않게 수압 설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는 전동기를 사용하는 신식 설비에 비하여 훨씬 락후한 설비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에 배치된 기술자가 전기 설비에 대해서만 알고 수압 설비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면 그 설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내기 곤난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새 것에만 치중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세째로 우리 나라 대학과 전문 학교들을 직장에 접근시키며

교원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에 자주 접근케 하는 문제이다. 지금 우리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는 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현장 실습을 조직하며 방대한 국가 자금을 투하하여 각종 실험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평양에 있는 대학이나 전문 학교들이 제아무러 큰 실습장을 가진다 하여도 강선 제강소, 황해 제철소, 성진 제강소 및 김 책 제철소와 같은 웅장한 실습장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동시에 교원들이 제아무리 새로운 리론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현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천 수만명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수십년의 경험과 리론을 토대로 하여 매일 매시각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는 대학, 전문 학교 시험실에서 제아무리 실험 사업을 잘 하여도 매개 생산 직장들에서 진행되는 특수한 생산 공정들을 항상 실험하기 곤난할 것이며 또한 그를 전부 실험한다 하여도 그는 어데까지나 실험이며 웅장한 설비를 움직이면서 생산하는 현실은 안일 것이다. 물론 실험을 통하여 깊은 리론에 근거한 새로운 생산 공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떠난 실험은 어데까지나 실험에 그치며 인민 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는 과학으로는 되기 힘들 것이다.

다음 교원들의 대부분은 첫째로 학교를 졸업하고 장기간 교편만을 잡았으며, 둘째로 해방후 선진 국가나 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즉시로 교편을 잡았다. 학교를 졸업한 후 생산 직장에서 장기간 경험을 축적한 교원은 극히 적은 것을 불매 교원들 자체가 현실에 어둡다는 것을 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공부한 일꾼들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실에 대하여 매우 어두우며 실지 생산 직장에서 기술 관리를 지도함에 있어서 초기에는 일정한 곤난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한 기술자들이 자기가 배운 고귀한 리론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장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이며 이는 또한 우리 당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기술 교육 사업이 잘 진행 못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우리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기술 교육을 받았으면 배운 것 만큼 인민 경제에 초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학교를 현지에 접근시켜야 한다. 그의 첫 걸음은 현재 각 공장, 기업소를 중심으로 설치되여 있는 기술 전문 학교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조건들을 해당 기업소가 적극 지어 주는 것이다.

이제 전문 학교의 교수 요강 중에서 몇가지 실례를 들어 보자. 금속 전문 학교 제강과용(一九五五년 교육성) 일반 전기 야금 교수 요강 중『아―크로 제강』에 一六시간을 배당하였는데 이 내용에는 고질강의 분류, 전기 제강의 우 결점 및 아―크로 제강법의 우 결점, 용련법의 종류『산화 용련법』,『무산화 용련법』,『부분산화 용련법』, 그들의 특수성과 리용 분야 등을 교수하게 되여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교수가 현장에서 진행된다면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므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二―四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례는 동일하게 금속 전문 학교 제강과용『제강 직장의 기계 및 운반 장치』교수 요강에『천정 주행 기중기』,『제강 직장에서의 그의 설비와 내용』에 대하여 一四시간이 배당되여 있으며 지어는 파철 분쇄 설비에 三시간이나 배당되여 있다. 이를 만약 생산 직장에 접근시켜 전문 과목을 교육시킨다면 생산 설비, 생산 공정, 원료, 제품 등의 설명으로 수십 수백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불완전하게 교육시키는 것을 단

몇 시간에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나머지 시간을 좀 더 깊은 리론 강의에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들을 현장에 자주 접근시키는 문제이다. 종전에는 대학 및 전문 학교 교원들이 자기가 소유한 고귀한 리론을 가지고 생산 직장에서 현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현지에 파견되는 것이 드물었다. 우리의 많은 교원들은 자주 현지에 접근하며 매일 매시각 변천 발전하며 나아가는 조선 공업의 현실을 료해하며 자기 리론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산 리론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 교육 사업을 분석하여 볼 때 대학과 기술 전문 학교를 현지에 접근시키며 교원들이 현지에 대한 실정을 료해하며 학교를 졸업한 일꾼들이 조선 공업의 락후한 편파성을 개조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수 요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들은 매년 수다한 국가적 자금을 투하하여 외국에 류학생을 보내는 데 대하여 의견이 있다. 물론 외국에 류학생을 보냄으로써 선진 국가들의 깊고 풍부한 과학을 많이 습득하여 오는 것은 좋치만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로 방대한 국가 자금이 투하되는 사실이다. 만약 一인의 류학생이 五년간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면 국내 대학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으며, 둘째로 그들이 졸업하고 돌아 오면 외국의 실정은 아나 조선 현실에 대하여는 어두운 것이다. 례를 들어 외국에서 공부한 일꾼들은 주물사의 통기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쏘련에서와 같이 건조한 말똥을 요구하였으며 또 어떤 일꾼은 용접봉 피복제를 요구하는 데 조선 현실을 모르고 쏘련에서 사용하는 피복제를 그대로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공정에 대한 지식은 그 나라의 원료와 설비 및 기능 정도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의 특성과 설비들에 대하여서는 아주 잘 모른다. 결과 그들이 조선 현실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실정에 비추어 우리의 의견 같애서는 많은 류학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선 공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것을 예견하여 우리 대학에서 양성하기 곤난한 과목에만 류학생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수년간의 사업 경험을 갖고 있는 일꾼들을 위한 외국 실습을 광범히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대학에서 일정한 리론을 소유하였으며 동시에 생산 직장에서 수년간 경험을 축적하는 데서 조선 공업의 현 시기 발전 계단을 료해하며 그로부터 무엇을 해결하여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꾼들을 외국에 실습 보낸다면 방금 학교를 졸업한 기술자든가 또는 류학생을 보내는 것에 비하여 매우 효과적이며 절약적이다. 이상 지적한 대학, 전문 학교들에서의 기술 교육 사업은 다만 제한된 인원에 한하여 실무적이며 선진적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학교들에서 양성하는 기술자만으로써는 급격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요구를 전부 충당하여 주기는 불가능한 바 로동하는 근로 대중 속에서 기술자들을 광범히 양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와 같은 객관적 현실의 요구에 의하여 우리 강선 제강소에서도 一九五五년 二월 一五일부 국가 기술 자격 심사 위원회로부터 시달된『기업소 기관들에서의 근로 대중들에 대한 기술 학습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공동 지도서』의 정신에 의하여

분과별、부문별、수준별로 기능 전습 체계를 조직하고 약 一년간 운영하여 보았다。이 학습 체계 운영에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얻었다。

이 학습 체계의 긍정적 면은 공장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거나 또한 공장에 대한 경험이 一—二년 미만의 일군들에 대하여 일정한 상식 기술을 주어 그들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며 기성 기술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미 학교에서나 또는 자체로 학습한 리론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리하게 하며 로동자들에게 생산 사업에서 해명 못하든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해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학습 체계 운영에서 나타나는 다른 측면은 一、기술 학습 사업을 주 二회에 四시간씩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는 하나 여기에는 고정된 청강자가 빠짐 없이 참가하기가 곤난하다。왜냐 하면 참가 대상자들이 작업상 관계로、출장、병 관계로 부득이 기술 학습회에 참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또는 이 학습 제도도 주로 직장별로 장기적으로 진행하게 되니 만큼 신입 로동자도 망라된다。결과에 강사 자체는 체계적인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청강자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기술 학습에 대하여 흥미를 갖지 못하므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二、주 二회 四시간의 기술 학습만으로는 기능공을 기수로、기수를 기사로 양성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왜냐 하면 학습 시간을 주 二회에 四시간으로 계산하면 년 二〇〇시간밖에 되지 못한다。그러나 전문 학교에서 기술자가 될 자격을 얻자면 四、五〇〇~五、〇〇〇 시간이 소요되며 보통 대학에서 기사의 자격을 얻자면 七、〇〇〇~七、五〇〇 시간이 소요된다。또한 이들은 그의 전체 정력과 주위 환경이 『학습』에 바쳐진다。그러나 생산 직장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은 우선 자기에게 맡겨진 인민 경제 과제를 완수하며 동시에 자기의 브리가다 사업 및 교대 사업과 사회 단체 사업 등 이러 저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 만큼 사실 기술 학습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곤난하다。이것이 완전한 한 개의 기술자로 발전하는 데 주는 영향은 크지 못하며 또한 시간적으로 보아 二〇년 이상을 경과하여야 되니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곤난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와 같은 학습 제도는 다만 이미 기사 자격을 못 가졌지만 그와 동등한 수준에 놓여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 학교 및 대학에서 일정하게 공부하다가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학교를 졸업 못한 일군들이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리용하는 데 유리할 뿐이다。우리 강선 제강소에서는 정전 직후 조국 해방 전쟁으로부터 돌아 와서 과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밑천으로 하여 검정 시험에 응시할 일군들이 이에 참가하고 있었는 데 정전후 三~四년 경과한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대상자가 더 적어질 것이다。

三、기술 전습은 부분별、기능별로 세분하여 진행하는 데 강사의 수는 제한 고정되여 있으므로 강사의 선발 배치가 곤난한 동시에 강사들의 부담이 많아진다。이는 결국 강사들에게 강의 제강 작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게 된다。그 결과 일부 강사들은 자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서 배웠거나 또는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취하여 현실에야 맞건 않맞건 강의하게 된다。강사들은 강의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범하게 되며 따라서 청강자들은 강의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며 이러

저러한 구실로 참가하기를 싫어하게 된다。그리하여 기술 학습은 통제상 조직표와 숫자상으로는 잘 되는 것같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실지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기술 전습 체계를 분석하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 이 학습 체계를 접혀 포기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술 전습제는 주 二회 四시간씩 계속하되 이는 재로 배치된 로동자들이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소유케 하며 그들로 하여금 五〇~六〇시간 동안에 자기 작업에 대한 보통 지식을 소유케 하며 이 기술 전습 제도 운영의 방법과 수단을 변경하여야 하겠다。즉 지금까지는 흔히 기술 전습 방법은 다만 일정한 방에 모여 앉아서 강사가 작성한 제강을 교단에서 리론적으로 강연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형 또는 현물을 강의에 리용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기술 학습 사업이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다。우리들의 기술 전습에서는 많은 경우에 표준 동작법에 대한 전습이 미약하게 취급되여 왔다。례를 들어 완성공이 망치로 끌을 때리는 것、용해공이 전기로 내에 부원료를 삽으로 장입하는 것、화부가 기관차에 투탄하는 데도 일정한 표준 동작이 있는 것이다。우리에게는 교단에서 강연식 기술 전습 방법도 필요하지만 표준 동작을 전습시키는 사업이 앞으로 광범히 전개되여야 되며 이는 반드시 강연식 기술 전습보다 선차적 의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기술 전습제는 모든 로동자가 기술 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도록 사상적 자극을 주는 방향에서 조직 진행되여야 한다。현재의 로동자가 일생 그 부분에서 로동에만 종사케 할 것이 아니라 그가 五~一〇년을 기한으로 반드시 기수 및 기사의 수준에까지 리론 체계를 확립케 하며 나아가서는 현재는 로동자이지만 앞으로 기술자의 자격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깊은 사상적 자극을 그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쏘련에서 혁명 후에 많은 로동자가 기술자로 자라난 실례와 우리 조선에서 과거에는 로동자였지만 해방후 당과 국가의 혜택으로 과거 일정한 교육 체계에서 공부하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대학을 졸업하였다든가 또한 자습으로 완전한 핵심 기술자로 되여 사업하고 있는 일군들을 실례로 들어 교육시키는 방법들이다。또한 학습을 격을리하는 일군들에 대하여서는 이러 저러한 방법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사상적 투쟁과 병행되여야 할 것이다。즉 매 로동자들에게 반드시 기술자가 되며 자기는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그가 작업하는 부분 및 그가 작업하는 공장과 또는 공화국적으로 권위자가 되겠다는 의욕을 주입시켜 줌으로써 그가 앞으로 여하한 곤난과 신고라도 극복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계획 밑에 기술 학습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상과 같은 기술 학습 체계만으로서는 광범한 근로 대중을 단 시일내에 완성된 기술자로 양성하기는 매우 곤난하며 그는 오직 정상적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여 기술 교육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강선 제강소에서는 一九五五년 一二월에 직장 야간 기술 전문 학교를 위시하여 직장 기술 보습반 및 직장 야간 대학 등을 조직하여 五〇〇 여 명 학생을 공부시키고 있다。이들은 주간 전문 학교나 대학에 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

지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매일 국가 인민 경제 계획 수행 과정에서 야간에 배운 리론을 실지 실습 적용하게 되니 만큼 리론과 현실을 항상 결부시키게 되므로 산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둘째로 그들은 주간 대학이나 전문 학교와 같이 설비 조작법, 생산 도구, 생산 공정 및 원료 재품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수다한 실습을 극히 적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다 적은 시간으로 기술 공정에 대한 보다 깊은 리론을 배울 수 있다.

근로자들을 위한 정상적인 기술 학습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것은 강의를 받아야 할 학생들, 즉 근로 대중 속에서 기술 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욕을 제고시키는 문제이다.

우리 강선 제강소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당 및 사회 단체와의 련계 밑에 기술 학습 강화 대책을 광범한 군중적 토의에 부치는 한편 매개 로동자들의 수준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각 부문별 기능 경기 대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매개 로동자들에 대한 기능 수준 검토 사업을 진행하여 급수를 재사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기 의사를 잘 발표할 줄 모르며 숨어 있던 기능공이 나타났으며 안다고 자칭하던 일꾼들이 실지 모르고 있는 현상들도 나타났다. 이것은 로동자들에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사상적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준비 밑에 우리 제강소에서는 우선 직장 야간 기술 전문 학교를 조직하였다. 그후 물론 청강 희망자는 많았으나 그들을 전부 입학시킬 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첫째로 제강소 내 대부분의 청년들이 청강을 희망하였는 바 이들 중에는 일시적인 기분으로 청강하다가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는 희망자도 있었으며, 둘째로 주간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게 되며 동시에 학습이 수개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계속하게 되므로 수다한 난관과 애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견교한 사상을 가진 청강자들을 선발하여야 하였으며, 세째로 청강자들의 능력상 차이로 정상적인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청강자들을 우선 직장 책임자의 평정서와 그 로동자의 학습 조건 보장에 대한 보증서를 받은 후에 일정한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기수 수준에 있는 일꾼들을 기사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인민 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가진 광범한 로동자들에게 초중 정도의 지식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직장 야간 대학과 직장 기술 보습반을 조직하였다. 이 교육망에도 역시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 체계를 운영하여 나가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니였다. 왜냐 하면 그들은 전문적으로 학습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학생들이 대체 직장에서 우수한 일꾼들로 구성되였으므로 그들 중에는 많은 부분이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 동무들이 생산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만큼 그들에게 학습 시간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은 일정하게 직장 생산 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성부내의 二—三명의 로력으로는 도저히 이 광범한 학습 체계를 운영하여 나가기 곤난하였다. 때문에 직장 학습 체계의 옳은 통제 및 책임적 운영을 위하여 가수급 이상으로 되는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부문별, 분과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출석률 보장과 강사들의 강의 재료 보장 및 강사들의 시간 보장 등을 책임지고 조직 지도케 하였다. 다음 강사로서는 직장 간부들을 위시하여 전체 기술자가 동원되였으며 여기서 많은 간부들과 기술자들은 사업이 바빠서 또는 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이러 저러한 구실을 부쳤으나 대담하게 책임지웠으며 강사들로 하여금 대학, 전문 학교에서 강의하는 체계를 참작하여 강의를 진행케 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은 첫째로 직장에서 사업 관계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못하는 것, 둘째로 부분적 교원들이 학습 진도를 보장하지 못하며 무책임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 세째로 부분적인 강사들이 사업이 바쁘다고 하여 강의에 출현하지 않는 것, 네째로 학생들 자체가 몸이 피곤하다 하여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겠다는 것, 다섯째로 직장 야간 기술 전문 학교에 대한 교수 요강이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는 관계로 강사들이 주간 학교 교수 요강을 참고로 하여 제강을 작성하는 데 부족점들이 초래되였으며 부분적인 교원은 주간 학교에서 배우는 교수 요강을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까지 고집하는 것 등이였다.

이상과 같이 이러 저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였다. 우리는 수시로 나타나는 사소한 결함들의 시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월 一회씩 정기적으로 기술 학습에 대한 정형을 로의함으로써 현재에 와서는 이상과 같은 경향들이 제거되게 되였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일부 동무들은 생산에 지장이 있으니 학습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경향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한 결과에 부당한 고집은 점차 제거되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은 더 제고되였으며 기계 사고는 적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미 기술을 소유한 일꾼들이나 또는 직장 간부들이 후비를 양성하며 조선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사상적으로 동원되는가에 달려 있으며 몇몇 일꾼들이 학교로 간다 하여 생산과 건설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경향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사업 조직에서부터 오는 현상임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여 온 결과 현재에 와서는 각 기술 학습반 사업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게 되였으며 학습 체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였다.

그리하여 기술 학습 행정에서 직장내에 더욱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즉 로동자들과 간부들 간에 사제간의 관계가 형성되였다. 간부들은 주간에는 행정적 간부인 동시에 실습 교원이 되며 야간에는 교원으로 되므로 로동자들은 자기 간부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였으며 로동자들이 자기 직종과 직장에 고착되게 되였으며 결과 로동자들이 행정적 지시나 사회 단체 결정을 더욱 책임적으로 집행하게 되였다.

그러나 강사의 대부분이 책임적 지위에 있는 간부들이니 만큼 때로 대학에서 자기들이 배운 강의 제강이던가 또는 어떤 교재를 그냥 옮겨 써 가지고 나와서 강의함으로써 강의에서 주체를 상실하는 부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우선 강사들이 제강을 작성하며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 부담도 주지 않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조선 현실과 우리 제강소 실정을 고려하여 강의를 진행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 학습 체계에서 방법상 문제들은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초보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방법적 문제는 많은 교육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로부터의 의견이 제출 종합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현재 조직 실시하고 있는 제반 기술 교육 사업에서의 성과는 초보적인 것이며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허다한 난관과 곤난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 바 우리는 더욱 완강한 투쟁과 방법상 문제가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지금 우리들은 제三차 당 대회 결정을 받들고 제一차 五개년 계획이 끝나는 때에는 매개 로동자의 수준을 초중 정도의 지식으로, 브리가다반장 및 직공장급 이상의 간부들은 기수 수준 이상으로 높일 목표 밑에 투쟁하고 있다.

질의 응답

문—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란 어떤 것인가?

답—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란 당 단체들이 당과 정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서 소여의 과업을 소여시기, 지방 및 당 단체의 실제 정형에 근거하여 그에 적응한 실행 방법을 수립하며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형을 잘 연구치 않아 모르거나 잘 못 판단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혀 연구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의사나 감상 또는 욕망, 추측 등에 의거하여 그릇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유물 변증법적, 인민적 사업 방법에 대립되는 유해한 방법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당 사업이란 조국의 통일 독립의 달성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의 부단한 향상을 위한 창조적 사업이다.

우리 당은 인민 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우리 나라의 객관적 현실에 확고히 근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책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의 성과적 수행의 결정적 력량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이다. 따라서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당 정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기 위한 사업은 당 사업의 기본 내용을 이룬다.

그리하여 우리 당 단체들의 일상적 사업은 상급 당 단체들이 하급 당 단체 또는 그 지도 일꾼들과 그리고 모든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비당원 대중과 일상 관계하는 행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당 사업이란 본질적으로 사람과의 사업이다.

이러한 당 사업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 단체들과 당 일꾼들은 항상 대중의 생활 형편, 정치적 동향을 연구하며 그들을 교양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리하여 대중의 친근한 상담자로, 충직한 학생으로, 믿음직한 지도자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포함한 온갖 오유와 결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중과 튼튼히 단결하여 그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제고하며 당 정책의 성과적 실행을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가 항상 강조하는 지도적 원칙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그 지도 일꾼들은 당 사업에서 당의 이 지도적 원칙으로부터 리탈하여 당에 유해로운 주관주의적 착오를 범하고 있다.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바 측한 측면은 교조주의이며 다른 한 측면은 경험주의인 것이다.

례하면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 운동의 첫 시기에 일부 일꾼들은, 농업 집단화는 농촌에 현대적 농업 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된 기계 공업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명제와 또 파거 쏘련에서 농업 집단화 사업을 진행할 때에 비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 발전이 매우 뒤떨어졌다는 것을 념두에 두면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협동화 운동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일부 일꾼들 중에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현실 조건들을 연구 리해하지 않고 그 운동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것을 우려하여 인공적으로 그를 저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관주의의 한 측면인 교조주의인 것이다.

오늘 협동화 운동의 실지 정형은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농촌 경리의 협동화 운동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제 조건이 있으며 그의 발전을 인공적으로 저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정당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또 다른 실례로서는 신해방 지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북반부의 다른 모든 지역들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이 빠른 템포로 발전된다 하여 자기 지방의 구체적 정형, 농민들의 사상 정치적 준비 정도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바 그도 역시 객관적인 구체적 실정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주의적 사업인 것이다.

교조주의는 정치 리론 학습, 당 사상 사업 방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조직 지도 사업 방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교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여 당 사업을 구체적 정형에 부합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퍼놓고 남이 한대로 하려 한다.

그리함으로써 창발성을 상실하고 사업을 기계적, 도식주의적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관주의적 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주관주의의 표현의 또 다른 실례를 들어 보자.

지난 시기 인민 경제 계획 작성에서 일부 일군들이 어떤 기업소들에 대하여는 전쟁 시기에 그 공장이 파괴된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생산 실적만 타산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생산 과제를 부과하며 또는 그와 반대로 현존하는 물질 기술적 내부 예비력과 근로 대중의 창발적 열성을 충분히 타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전년도 실적에만 의거하여 너무 적은 계획을 세운 현상 등은 모두 실제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주의적 표현인 것이다.

이리함으로써 어떤 기업소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여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내부 예비가 사장되고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군들은 당과 정부의 어떠한 결정 집행을 조직할 때에 그를 신중히 연구하지 않고 또 그를 직접 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대중과 의논하지 않으며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협소하고 제한된 자기의 의견과 경험에만 의거하여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혹은 그와 류사한 사업을 하던 방식대로 손쉽게 처리하여 버린다.

이러한 현상은 주관주의의 한 측면인 협소한 자기의 경험(그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은)에만 의거하려는 경험주의의 경향인 것이다.

자기의 지혜, 재능, 경험을 과신하는 일부 일군들은 하부에서 제기하는 창발적인 의견을 연구하지도 않고 한부로 거부하며 변화 발전되고 복잡해진 현실을 이미 낡아진 자기의 경험과 단순한 자기의 견해에 마추어 판단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에서 선진적 로동자, 농민, 기타 근로자들이 자기 실제 활동에서 새로운 기술 기준을 창조하여 그를 일반화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하여 일부 경제 기술 지도 일군들이 그것이 기존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여 거부하며 무시하는 례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일부 일군들에게서는 한 때 긍정적 성과가 있었거나 반대로 결함이 있은 지방 당 단체 사업이나 간부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후에 변동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선입견과 과거의 정형에만 의거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도 역시 일종의 경험주의적 결함인 것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정치 일군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품성인 창발성, 새 것에 대한 민감성과 대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당 사업의 창조적 성격은 새 것에 대한 민감성과 대담성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호상 통일되여 있는 것이다.

당 일군은 사업에서 어떤 편협한 선입감이나 주관에 기울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하며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새 것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적극 지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과거의 경험을 무조건 부인하고 그를 정당히 참작하지 않거나 또 새것을 지지하여 창발성을 낸다 하여 공명주의적 동기에서 남보다 다른 『큰 일』 『새로운 발기』를 달성하려고 모험을 감행하는 경향은 반대하여야 할 것이다.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의 해독은 당과 정부의 정확한 결정을 옳게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를 집행 행정에서 외곡 혹은 손상시키며 그리함으로써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당 사업의 창조적 성격을 상실시키며 당적 지도의 집체적 원칙을 위반하며 당 내에 교조주의, 형식주의, 경험주의, 독단주의, 관료주의, 맹종 맹동 등 유해한 경향을 조장시키게 되는 데 있다.

당 사업에서 편협한 주관, 연구 없는 경솔한 판단, 부정확한 추상적 추측, 기계적인 모방 등등은 모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향 등은 엄격히 경계하며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신중히 창발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의 구체적 연구——당과 정부의 결정, 자기 당 단체의 구체적 정형, 이미 달성한 당 사업 경험, 간부들과 대중의 발전 정도 및 그들의 요구와 감정, 당면 제기된 이러 저러한 과업의 구체적 실행 방법, 그의 행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애로와 난관 기타 등등의 구체적 연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을 정확히 보장하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협소한 자기의 경험과 주관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내려먹이는 것은 용이하고 간단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서 오유와 결함을 동반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일군들은 왕왕이 후자를 택하는 데로부터 주관주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일부 일군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과 같은 주관주의적 착오는 사업을 치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힘안드리고 『헐하게』 하려는 무책임성, 안일성 뿐만 아니라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대중의 무진장한 힘과 지혜를 믿지 않으며 그들과 의논하지 않으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 앞에 책임질 대신에 명령하고 호령하는 그릇된 사상 관점과 사업 작풍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군중 관점이 확립되지 못한 데서 주로 출발하는 것이며 또한 당 사업의 집체적 지도 원칙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며 일군들의 정치 리론적 수준이 미약한 데서 초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자기의 당성, 군중 관점을 확립하여 당과 정부 결정, 현실 생활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관료주의적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고 하부에 침투하여 하급 당 단체와 인민 대중의 일상 생활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지도를 실시하며 당 기관들에서 집체적 지도 방법을 더욱 세련 완성하며 지도 일군들의 정치 리론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키여야 할 것이다.

一九五六년『근로자』총내용

호수 · 페지 · 제목 · 필자

중요 문헌

권 두 언

당 론 문

리론 및 선전

호수·폐지·제　　목·필　　자

끈술따찌야

당 생활 경험

선전원 및 선동원들에게 주는 자료

국제 생활

서적 해제 및 평론

독자들의 편지

질의 응답

호수·페지·제목·필자

의 복리에 기여하는가(도 상록)

一〇 一五五 우리 나라 산업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배급제는 왜 필요하며 어떤 때라야 페지될 수 있는가? 인민 생활 개선 향상을 위하여 중공업의 우위적 발전이 왜 필요한가?

호수·페지·제목·필자

一一 一五九 인민 경제 계획 작성에서 균형은 무엇에 근거하여 설정되는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그를 리용하는 사회 경제적 근거는 어데 있으며 그 구체적 방도는 어떤 것인가?

一二 당 사업에서 주관주의란 어떤 것인가?

근로자 제一二호
(루계 제一三三호)

一九五六년 一二월 二〇일 인쇄
一九五六년 一二월 二五일 발행

편집위원회

발행소 근로자사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값 四五원)